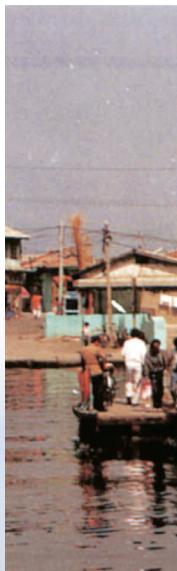


② 문화콘텐츠로 돌아본 속초 - 청호동

청호동에 가본 적 있는지..



속초문화원

이상국 시인

제1회 백석문학상 수상, 시집 〈뿔을 적시며〉 외

김종현 시인

시집 〈청호동이 사라지고 있다〉, 속초예총 수석부회장

이반 극작가

대한민국연극제, 동아연극상 희곡상 수상, 『이반 희곡선집』 외

최재도 극작가

전국연극제 희곡상 수상, 희곡집 『멈춘 곡선의 우아한 고독』 외

② 문화콘텐츠로 돌아본 속초 - 청호동

청호동에 가본 적 있는지

차례

책을 내며 ■ 04

청호동의 역사와 문화 ■ 06

1 장

문학으로 돌아본 청호동

1. 시 : 이상국 외 ■ 23

2. 희곡 :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 - 이반 ■ 54

3. 희곡 : 붉은 훈장(勳章) - 최재도 ■ 80

2 장

작품 해설

1. 떠도는 섬을 위한 노래 - 이상국 ■ 127

2. 지역문인의 시(詩) 작품에 나타난

청호동과 갯배의 이미지 - 김종현 ■ 143

3. 망향(望鄉)의 기착지 '청호동',

실향(失鄉)의 종착지 '속초항' - 최재도 ■ 169

4. 쌩·오닐·이반의 바다 - 김한 ■ 197

책을 내며

속초문화원은 지난해부터 향토사 안내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문화콘텐츠로 돌아본 속초>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지난해는 민족의 명산이자 속초의 중요한 문화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설악산’에 관한 이야기를 집대성한 『명산 설악, 겨울빛으로 깨어나다』를 발간하였습니다. 속초문화에 대한 애정으로 매년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강릉원주대학교 장정룡 교수가 그동안 연구하고 발표한 글을 모은 작업이었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기획으로 ‘청호동’을 선택하였습니다. 청호동은 일명 아바이마을로 불리면서 속초의 생활문화 상징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후 고향 잃은 아바이들의 임시거처이자 집단 생활문화를 전승하면서 갯배와 식해, 북청사자놀음 등 현재 속초의 대표 문화를 잉태한 상징공간입니다. 주민의 삶에서 시작되어 고유의 정체성을 만들기 시작한 문화가 지역을 대표하는 경쟁력이 된다는 측면에서 청호동의 역사와 문화, 주민 삶의 모습은 매우 독특한 인문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호동의 삶과 문화를 가장 먼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문화로 표현한 분들이 예술가입니다. 특히, 시와 희곡으로 청호동 주민의 삶과 아픔, 역사의 상처를 씨줄과 날줄처럼 엮어서 작품을 발표한 속초의 예술가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새로 원고를 작성해주신 이상국 시인, 속초 시

인들의 작품을 모두 살펴본 후 청호동 관련 시를 모아주시고 해설해 주신 김종현 시인, 귀한 희곡과 함께 작품해설까지 해주신 최재도 작가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희곡작품을 통해 실향민 도시 속초를 전국에 알리시고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이반 작가님은 예술이 왜 도시경쟁력의 마중물인지 알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이 책의 발간으로 지역문화와 시민의 삶을 예술로 재해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문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예술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책자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 12.
속초문화원장 김 계 남

청호동의 역사와 문화

모래 위에 세운 삶터 청호동,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설악산과 동해바다, 영랑호와 청초호, 영금정 등이 속초의 자연을 대표하는 상징이라면 청호동 아바이마을은 속초의 근현대사를 통해 도시브랜드를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다. 흔히 속초를 실향민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청호동 마을의 생성과 문화 전승에 의한 도시정체성의 표출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 수복된 속초지역은 1951년 8월부터 1954년 11월까지 미군정이 실시된다. 피난민 1세대의 설명을 들어보면 1·4 후퇴 때 내려왔다가 국군의 북진과 시기를 같이하여 귀향하다 잠시 짐을 품 곳이 이곳 청호동이었다. 당시 군정은 속초지역의 피난민 정착을 위한 주택건설 계획을 따로 세우지는 않았다. 재산과 토지 등 경제기반이 없던 피난민들은 모래사장인 탓에 거주지역이 되기 힘들었던 청호동에 임시로 정착하게 된다. 청호동은 주민 거주공간으로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다. 지반이 단단하지도 않고, 바닷물을 머금고 있는 탓에 식수확보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기존 주민과 큰 갈등이 없는데다, 대부분 배를 타고 피난을 온 실향민에게 배를 정박하고 산업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현재 청호동 1·2·3동 지역을 중심으로 좁은 공간에 움집이나 판잣집 등을 짓고 신포마을·엥꼬치마을·짜꼬치마을·단천마을 등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거주하는 집단취락을 형성하게 되었다.

분단과 통일의 상징적 공간, 청호동

매입할 수 없었던 청호동의 국유지가 피난민 정착지로 제공되면서 땅에 대한 개인적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였고, 실향민 자신들만의 생활 거주공간을 확보하게 되면서 좁은 가로를 형성하고, 담장이 없이 공동의 서비스 공간(화장실 등)을 가지는 독특한 청호동 거리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청호동에 정착한 피난민의 약 90% 이상은 함경남도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로서 함경도 지방의 사투리로 할아버지 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 아바이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하여 아바이마을이라 불리게 된다.

청호동 마을의 형성과 구성원들의 사연, 공동체 문화의 보존과 전승은 속초를 상징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었다. 북한문화와 속초토착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실향민 문화가 보존·전승되고 있으며, 우리 민족 현대사의 가장 아픈 기억인 한국전쟁의 상징공간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가장 많은 실향민들이 거주하는 피난민 정착촌으로서 아바이마을은 정치학·사회학의 다양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는 분단현실과 통일의 염원을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소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함경도 지방의 방언과 음식·주거생활 등 민속문화 연구는 물론, 속초의 토착문화와 경쟁 또는 융합하면서 형성된 독특한 생활민 속을 보여주고 있다.

움직이는 다리, 갯배

갯배는 청호동과 중앙동을 이어주는 도선의 이름이다. 보통 갯배는 일제강점기에 속초항이 개발되면서 시작했다고 말한다. 당시 항만 개발을 위해 속초항을 개발하면서 청초호를 속초항의 내항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운다. 이를 위해 부월리 2구(청호동)와 속진(중앙동)이 맞닿아 있던 것을 준설하여 거의 100m에 달하는 폭을 가진 수로가 완성되었다. 수로가 생기자 양쪽을 오가는 데 불편한 일이 발생하였고, 이동의 편의성을 위하여 수로를 가로질러 운행하는 배가 필요했다. 우마차 한두대를 실을 수 있는 크기의 이 배는 전쟁전까지 요긴하게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후 이 배는 폐선이 되었다.

거룻배가 폐선이 되자 불편이 많았다. 수복이 되면서 청호동에 실향민이 정착하였고 어업이 활성화되면서 수로를 건너기 위한 수단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때 김영학이라는 분이 자신의 거룻배를 이용해 요금을 받고 사람들을 수로 반대편으로 옮겨다 주었다고 한다. 손을 다쳐서 조막손 영감으로 불린 그는 상업적 이용을 하였지만 자신 소유의 거룻배를 이용한 사람들도 많아서 크게 재미를 본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거룻배는 자전거나 손수레 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청호동 주민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따라 미군정 시기이던 1952년 당시 군정의 대리운영을 맡은 1군단에서 목재 및 자재를 지원하여 갯배를 건조했다. 거룻배와 달리 갯배는 자전거나 손수레를 실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기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에 따라 1961년 속초읍 차원에서 갯배를 한 척 더 제작했는데 제작한 곳이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칠성조선소이다.

갯배는 정식 도선업 허가를 받아 재향군인회 속초지회(지회장 마장건)에 위탁운영을 하였는데 수익을 위한 위탁보다 봉사의 성격이 강한 위탁이었다. 갯배 운영은 속초가 시로 승격한 이후 속초시에서 관리하다 1988년부터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 갯배를 새로 건조한 기록은 1998년이다. 낡은 목선을 벼리고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던 4천만원을 들여 현재의 35인승 FRP선으로 바꾸었다.

청호동 주민에게 갯배는 공동체의 추억을 공유하게 만드는 상징기제로 작용한다. 청호동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아침마다 갯배를 경유해야 학교로 갈 수 있었다. 버스노선이 없는 청호동

에서 시내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갯배를 타야했고, 갯배는 항상 만원이었다. 갯배나루까지 숨을 허덕이며 지각하지 않기 위해 뛰어오는 학생의 모습은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그곳에 도착한 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갯배의 줄을 잡아끌곤 했는데, 짧은 순간이나마 위계질서가 자연스레 형성되던 순간이었다고 한다.

갯배는 학생이나 주민을 위한 운송수단이자 삶의 희망을 실어나르던 생계수단이기도 했다. 전쟁 후 아무 것도 없이 남한으로 피난 내려온 청호동 주민에게 오징어나 명태는 생존을 위한 조건이었다. 오징어를 잡아 집안 공터의 덕장에서 말린 후 리어카 가득 싣고는 중앙동 갯배머리까지 가져가곤 했다. 도매에서 소매로의 자연스러운 유통은 모래 위에 집을 만들며 생활해 나갔던 청호동 실향민에게 요긴한 일자리였고, 리어카를 끌고 갈 수 있었던 갯배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꼭 있어야 하는 수단이었던 셈이다.

청호동 주민에게 사랑을 받던 갯배는 90년대 들어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되고 속초의 대표적인 관광콘텐츠로 도약하게 된다. 갯배가 주민의 교통수단에서 세상의 주목을 받는 관광콘텐츠로 사랑받는 이유는 미디어였다. 갯배와 갯배나루는 TV드라마 ‘가을동화’와 TV오락프로그램 ‘1박2일’로 다시금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건어물가게와 횟집, 생선구이집, 오징어순대집 등이 들어서며 일약 관광 변화가로 도약한 것이다. 이러한 갯배의 재발견은 속초의 관광유형을 바꾸게 된다. 설악산과 대포항에서 관광수산시장과 청호동으로 이어지는 관광루트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젓갈과 식해

젓갈은 『제종실록』에 명나라 사신에게 올렸다는 기록이 나올 만큼 예로부터 귀한 음식으로 대접받았다. 속초의 대표적인 젓갈은 명란과 장란, 오징어젓갈인데 지금은 명태가 대부분 러시아에서 수입된 것이지만, 60~70년대 속초는 명태의 주산지로 각광을 받았다. 그 당시 한

겨울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명태를 때기는 아녀자들이 어판장과 항구를 가득 메웠다. 아녀자들은 생태의 알, 창자, 아가미를 떼어내 싸리나무에 퀘는 품삯으로 창자와 아가미를 받았다. 그러고는 창자와 아가미로 젓갈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거나 전문수거꾼에게 팔아 생계를 이었다. 속초의 명란과 창란, 오징어젓갈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함경도식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직후 피난 온 함경도사람들이 청호동에 정착하면서 생계를 잇는 주된 방법이 고기잡이와 덕장, 함경도식 먹을거리 판매였다. 고향 함경도에서 익힌 손맛을 싱싱한 속초의 원재료에 가미하다보니 다른 지역의 젓갈에 비해 특유의 맛을 지니게 됐다.

우리 속초에선 젓갈과 식해는 식단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젓갈에 무채,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등 양념을 버무린 다음 조밥을 섞어 삶히면 식해가 된다. 식해의 한자어 중 해()가 젓갈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식해는 젓갈의 일종으로 여기고 있다. 식(食)이라는 낱말이 밥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식해는 밥을 넣은 젓갈을 뜻한다. 조선 궁중요리 전승자이면서 여러 지역의 지방 요리를 조사하는 데도 종사한 경험이 있는 황혜성은 식해를 한번 소금에 절여 물기를 짜낸 생선토막을 조밥이나 쌀밥과 엿기름, 고춧가루와 함께 버무려서 절임을 해 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동해안 지역인 함경도, 강원도에서 많이 만든다고 정의했다. 식해를 주로 만들어 먹는 지역은 동해안의 함경도와 강원도다. 추운 지역인 함경도는 전통적으로 벼농사가 발달하지 못했고 태백산맥이 바다 가까이 있는 강원도 동해안은 논농사에 적합한 토지가 적어 밭농사로 잡곡을 짓는 지대가 많다. 동해안은 원료를 입수하는 문제 때문에 식해를 곧잘 만든 지역이었을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속초가 국내의 대표적 가자미 식해 생산지가 된 것도 많은 함경도 피난민이 속초에 정착한 후 고향의 맛을 잊지 못해 한 집 두 집 담가 먹기 시작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오징어순대와 아바이순대

오징어순대와 아바이순대는 속초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이다. 원래 함경도지방의 고유음식이지만 한국전쟁 이후 속초에 정착한 실향민들에 의해 속초의 대표 향토음식으로 거듭난 실향민 음식이다.

한반도의 순대는 제주도의 피순대에서 비롯된 남방형 순대와 함경도 아바이순대에서 비롯된 북방형 순대로 나뉜다.

제주도의 피순대는 고려시대 봉고 군사들이 주둔하면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돼지 창자 속에 피(선지)를 넣어 만든 순대로 주로 제주도와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한 음식이다. 요즘은 두부와 야채 등을 넣어 만들지만 기본적으로 피(선지)를 많이 넣어 만든다.

북방형 순대라 할 함경도 아바이순대는 조선 세종 때 4군 6진 개척 등으로 함경북도 지방이 조선으로 편입되면서 여진족 등 이민족의 음식문화가 한반도로 유입될 때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전쟁 때 월남한 실향민들에 의해 서울과 전국으로 퍼졌다고 한다.

함경도 지방에서는 마을잔치나 경사가 있을 때면 돼지를 잡고 그 대창에 속을 채운 순대를 만들어 먹었는데, 이 돼지순대를 함경도식이라고 해서 아바이순대라고 부른다.

아바이순대는 돼지 대창에 무청 시래기, 돼지고기 잘게 썬 것, 선지, 마늘, 된장 등을 버무려 채워 만들어 쪄 낸 것인데, 선지보다는 야채와 곡물을 많이 넣어 만든다는 점에서 피순대와 차이가 난다. 요즘은 선지를 더 줄이고 찹쌀을 첨가해 찰진 맛을 더했다. 돼지의 대창으로 만들어 크기가 보통 순대의 2, 3배로 커서 왕순대라고도 한다. 2000년대 이후에 속초의 향토음식으로 상품화되었다. 돼지 한마리당 50cm에서 1m밖에 나오지 않는 대창을 구하기 힘들어서 요즘은 보통 돼지 소창으로 아바이순대를 만들어 판매한다.

함경도 해안지방에서는 돼지 내장이 귀했기 때문에 명태가 많이 나는 겨울에는 돼지 대창 대신 쉽게 구할 수 있는 명태에 속을 채워 만든 순대를 제사상에 올렸으며, 여름에는 구하기 쉬운 오징어로 순대

를 만들어 먹었다. 속초에 정착한 함경도 출신 실향민들은 수산도시 속초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오징어와 명태를 이용해 순대를 만들어 먹게 되었다.

아바이순대와는 달리 오징어순대는 선지 대신 각종 야채가 푸짐하게 들어 있어 오징어의 쫄깃한 육질감과 야채의 담백한 맛이 어울린 별미로 손꼽힌다. 설악산 관광 붐이 일어난 1970년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속초의 대표 향토음식으로 전국에 알려졌다. 반면 명태순대는 실향민 일반가정에서는 만들어 먹었지만 상품화는 되지 않았다. 순대는 외래 전파 음식이지만 오징어순대와 명태순대처럼 생선의 속을 채워 만든 생선순대는 순대문화가 지역특성에 따라 창조적으로 거듭난 한반도 고유 음식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북청사자놀음

〈북청사자놀음〉은 삼국시대의 기악(伎樂)·무악(舞樂) 아래 민속놀이로 정착된 가면놀이로, 주로 대륙계·북방계인 사자무가 민속화된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1930년대까지 북청 일대에서는 음력 정월 14일에 여러 마을에서 장정들의 편싸움이 벌어졌으며, 달이 뜬 뒤부터 시작된 사자놀음은 15일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16일 이후는 초청받은 유지(有志)의 집을 돌며 놀았다고 한다.

속초는 북한의 민속극인 북청사자놀음이 한반도 남쪽에서 최초로 연행된 곳이다. 1945년 해방과 1950년 6·25 전쟁 이후 북한에서 월남한 함경도민들이 고향에 가고 싶은 그리움으로 정착한 곳이 속초 아바이마을로 불리는 청호동이었고, 이곳에서 최초의 북청사자놀음이 공연되었다. 1957년 음력 정월대보름날, 월남한 북청출신으로 사자놀음 연희자인 김수석씨와 통소 명인 김하륜 두 분이 함경도민 가운데 사자놀음을 보았거나 실제로 했던 실향민들을 중심으로 북청도청 건립을 위한 공연을 하였다. 이후 1958년 제1회 전국민속예술경연 대회에 참가한 이래 여러 차례의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선보이며 알려

지게 되었고 1967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속초북청사자놀음은 樂·舞·劇이 함께 어울리는 민속공연문화의 백미라고 일컬어진다. 사자놀음을 비롯해 다양한 춤사위가 통소·장구·소고·북·팽가리·징 등의 민속악기와 어우러져 오감(五感)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큰 재미는 사자놀음이라고 할 수 있다. 입사자 만들기 등 다양한 춤사위를 보여주는 사자놀음은 우리나라의 여러 사자놀음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역동적인 춤사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여러 놀이꾼이 나와 넋두리춤, 꽁추춤, 사당 거사춤, 칼춤 등의 볼거리를 보여주는 점도 속초북청사자놀음의 특징 중 하나이다.

속초에서는 김수석 씨가 1970년 기예능보유자 제84호로 지정받고는 속초에서 사자놀음의 정착에 노력하였다. 1982년 동우전문대학생들을 지도하였고, 1988년 음력 정월대보름날 북청출신 10여 명이 사자놀음을 구성하여 걸립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명맥을 유지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다. 1991년 강릉원주대 장정룡 교수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김수석과 김하륜을 현지조사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1957년 당시의 원형을 기록한 이 책을 바탕으로 속초북청사자놀음이 재탄생하였기 때문이다.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은 2005년 속초북청사자놀음의 민속문화적 가치에 주목하여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함경도 청년회, 일반 시민과 함께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를 결성하여 전승활동을 펼치고 있다. 속초북청사자놀음은 실향민 문화의 정수이자 속초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탄생하여 연간 10회 이상의 공연과 사자탈 만들기 등의 파생 문화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문학 속의 청호동과 실향민의 삶

속초가 실향민의 삶이 어린 고장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극작 이반의 희곡 「그날, 그날에」가 있다. 이 작품은

1979년 극단 ‘광장’이 대한민국연극제에 출품해 당시 문화공보부 장관상, 희곡상, 남우주연상 등을 수상했다. 실향민 마을인 강원도 속초 ‘아바이’ 마을의 실화를 바탕으로 세대 간의 갈등과 실향민 어부들의 한(恨)을 통해 분단의 비극과 통일문제를 조명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기화로 1980년 1월 신문에 아바이마을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청호동 아바이마을의 아픈 역사와 주민 삶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속초 출신 작가들의 문학 속 실향민의 삶을 정리한 글은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2000, 속초문화원) 중 <제Ⅱ부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문화와 생활사> ‘제6장 문학 속에 투영된 속초시 거주 피난민들의 삶과 그 공간’(채재순)이다. 이 글 이후 ‘실향민 고장’ 속초의 문학적 성취를 집대성한 글은 아직 없다. 이 중 2편 ‘속초 실향민 문학 개관’을 인용한다.

〈‘속초 실향민 문학’ 개관〉

휴전 이후 ‘속초’는 피난민들의 정착 공간이 된다. 피난민들은 낯선 땅에서 기존의 모든 사회적 기득권을 상실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들이 머문 속초라는 공간 역시, 사실은 북조선 통치에서 막 벗어나 새로이 남한 영토로 편입된 상태였다. 그리하여 ‘속초’는 피난민이라는 새 구성원으로 재편된, 또한 ‘적성국敵性國’으로부터 탈환되어 뒤늦게 남한에 편입된 ‘이 나라 이방異邦지대’로 자리매김된다.

속초라는 공간에 모여든 낯선 이들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속초인을 형성한다. 이들의 개별적 체험이 한데 어우러짐으로써 북한 전역의 이질적인 문화가 섞이게 되고, 거기에서 전쟁 직후 황폐한 사회적 분위기까지 겹쳐 수복지구收復地區 ‘속초’는, 이 전과 확연히 다른 생활환경이 조성된다. 피난민들은 이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남한의 신민新民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자신의 본적지를 속초로 정하고, 가족관계를 새로이 설정해 일

가一家를 창립한다. 한편 본디 속초에 살고 있던 주민들도, 농토 등 일부 생계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피난민과 다를 바 없었다. 그들도 여느 실향민과 같이 북한 통치를 받던 이들이었으므로, 남한 정부 입장에서는 ‘적성국에서 유입된 난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향민들이 반공투사로 행세할 때, 속초 본토인들은 북한 정부에 협조한 경력 때문에 ‘빨갱이’로 매도되어 사회적 고립의 위기에 처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형성된 ‘속초’는 얼마 전까지 자기를 통치하던 북한 정부를 적대시해야 하고, 그 구성원들은 북에 남겨진 가족과 지인知人들을 적성국가 국민으로 인식해야 할 처지에 이른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또 그 시절을 그리워하다간 자칫 적성국을 고무 찬양한다는 누명을 쓰기 십상이어서 함부로 내색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 묘한 처지의 속초인들이 내적으로 겪는 갈등은 곧 이 시대 한반도의 비극을 압축해 놓은 것이라 할 만했다.

이런 특이한 상황은 문학적으로 훌륭한 소재가 될 것이기에, 몇몇 문인들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시인 이상국, 김춘만과 극작가 이반은, 속초 실향민의 삶과 의식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상당한 문학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 외 속초 지역 문인으로 구성된 ‘갈뫼’ 동인들도 이 문제에 집요하게 천착穿鑿함으로써 분단의 비극적 현상을 대변하였다.

시인 이상국은 투철한 역사 의식으로 분단상황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시도했다. ‘청호동 새 섬’ 등의 작품을 통해, 실향민들의 삶이 ‘단절로 점철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혈연의 단절, 개인사의 단절, 추억의 단절, 사회적 기득권의 단절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고립된 채 새로이 시작’하는 그들 삶이 흡사 ‘바다 한가운데의 물’ 곧 ‘섬’과 같다고 말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육지’와 교신하기를 원하고, ‘물’을 동경하는 속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개인의 삶이 그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우선 ‘국토의 단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귀향 욕구는 결국 강한 ‘통일에의 의지’로 이어진다. 이상국은 이렇듯 분단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일에의 염원’을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상국은 또한 『수복지구에서 - 대포동 오씨 일가』 등의 작품을 통해 다수의 민중들이 단지 소수 지배층의 이념, 곧 이데올로기에 의해 희생당해야 하는 역사적 상황을 구체적 예시로 그려낸다. 이 모든 것이 외세 의존에 따른 최근세사에 그 원인이 있음을 규명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민중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아울러 그는 『바다로부터 우리들의 적이 온다고』 등의 작품을 통해 분단 상황으로 인해 빚어진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형제를 ‘적’이라 부르고, 동포를 ‘적국’으로 대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과 정서가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그 괴谬함의 정도를 보여준다. 그로 인해 결국 우리는 스스로 ‘철조망 안에 갇혀 있음’을 깨닫게 되기에 이른다. 그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민족 화해가 절대 필요하다는 주장을 여러 방식으로 펼친다.

시인 김춘만도, 차분하지만 집요하게 분단상황을 묘사해왔다. 그는 객관적이면서도 근접적인 관찰로 실향민들의 ‘삶의 양태’를 그려내었다. 김춘만은 『장지葬地에서』 등의 작품을 통해 실향 1세대들이 조용히 한 시대를 마감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역사의 뒤안길로 ‘소문 없이 귀향’하는 저들의 모습을 마치 사관史官처럼 냉철하고 담담하게 기록한다.

또한 『청호동 나무』 등의 작품을 통해 실향 2세대들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한 관찰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렇듯 ‘실향 1세대의 소멸’과 ‘실향 2세대의 정착 과정’은 김춘만에 의해 실록처럼 기록되고 있는 중이다.

시인 장승진은 『명태』 등의 작품을 통해 실향민의 ‘해체된 삶’을 형상화하며, 『청호동 아바이』 등의 작품을 통해 실향민의 그리움을 구

체적으로 묘사했다. 납득할 수 없는 분단현실을 사실적인 어조로 토로하기도 한다.

그 외 최명길, 고형렬, 김영준, 권정남, 채재순 등의 시인들이 이 문제와 관련된 작품들을 발표했으며, 아동문학가 박용열도 분단문제와 관련된 동시들을 여러 편 썼다.

소설이나 희곡 등 서사분야에서 속초 정착 피난민들을 소재로 다룬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어서 실향민들의 삶을 체감하기에 시문학보다 훨씬 용이하다. 소설이나 희곡에서는 주로 남북의 대립되는 이념으로 인한 갈등, 실향 1세대와 2세대 간의 귀향 의식과 관련된 갈등, 분단 상황으로 인해 파생된 사회의 구조적 모순 등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그 삶의 양태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소설가 강호삼은 문학동인지 [갈뫼]를 통해 10여 년 동안 『뚝녁나그네』라는 장편소설을 연재하였다. 미완未完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 소설에는 당시의 대북관對北觀이 잘 드러나 있다. 자신의 친구가 조업 중 납북 당해 대남 선전원이 되고, 자신의 애인이 고정간첩에게 속아 결혼하는 등 분단체제의 희생자로 전락하는 과정을 아픈 가슴으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주인공을 통해 분단현실과 그 비극을 체감하게 된다.

이은자의 단편 『만선』에는 실향민 뱃군들의 삶이 투영되어 있다. 월선 조업의 위험을 안고 만선을 위해 어로한계선 부근에서 조업을 해야 하는 어민들의 실상과 함께, 청호동과 속초 어판장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문영남의 장편 『뿐노의 왕국』은 분단상황을 다루지는 않았으나, 소설 무대를 60~70년대 청호동으로 설정함으로써, 당시 청호동 실향민들의 삶의 양태가 세부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봄의 꽁치잡이와 '조기바리', 여름의 오징어잡이, 겨울의 명태잡이로 이어지는 속초 어판장의 사계가 그대로 투시되어 있으며, 청호동의 주거환경 등을 섬세하

게 그려내고 있다.

극작가 이반은 그의 작품 대부분이 실향민을 소재로 다루고 있을 정도로 이 문제에 공세적으로 접근해 왔다. 그는 『실향민』, 『바다로 가는 사람들』, 『햇바람』, 『어판장 부근』 등 일련의 분단 문학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그 자신이 실향민이며, 수복지구 속초에서 소년시절을 보내기도 했기에 그 누구의 작품보다도 생생한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다. 그의 대표작 『그날 그날에』와 『아버지 바다』 등은 그가 청호동에서 직접 체험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북녘 고향 땅에 묻어 주기 위하여 아내의 시신을 다락에 감춰둔 채 보관해 온 김노인, 그리움에 복받쳐 현역장교 신분으로 휴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다녀온 형철 등 실향의 한을 강하게 느끼는 인물들이 그의 작품 곳곳에서 등장한다. 이들 작품에는 작가의 개인 체험과 염원이 문학적으로 승화되어 있다.

연극협회 속초지부는 최재도작 『그대여, 바다로 가거든』이라는 실향민 배군들의 삶을 그린 작품을 전국연극제에 출품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최재도는 라디오 드라마를 주로 써 왔는데, 특히 KBS 라디오 미니시리즈 《회한》(원제 '훈장, 풋대 끝에 나부끼다')은 분단문제를 민족사적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인민군 고급장교 출신으로 전쟁 중 포로가 되었다가, 열멸결에 반공포로로 분류되어 석방된 김일권은 북조선 정부로부터 전쟁 중에 받은 '훈장'을 한평생 소중하게 간직해 왔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그것을 자랑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회적 불행을 자초할 터이다. 북조선으로 돌아갔더라면 인민의 영웅으로 대접받았을 인물이 남한의 속초에서 뱃놈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과정은, '이념의 풋대 끝에' 깃발처럼 나부끼는 그의 훈장만큼이나 시사적이다.

그 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속초라는 특이지대에 대해 묘사했으며, 실향민들의 아픔을 그렸다.

참고문헌

1.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2000, 속초문화원)
2. 『속초의 문화상징 50선』(2013, 속초문화원)
3. 『모래위의 터전 속초시』(2014, 국립민속박물관)





1 장

문학으로 돌아본 청호동

1. 시 : 이상국 외
2. 희곡 :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 - 이 반
3. 희곡 : 붉은 훈장(勳章) - 최 재 도

— 시

오징어 덕장이 있는 청호동

권정남

열 개의 다리가 있는 일 열
허공에 매달려 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인연으로
청호동에 모여 나부끼고 있다

소금기 묻은 바람 불어와
온 몸 탈수가 일어나는 한낮이면
죄어오는 그리움에
눈이 짓무르도록 울어버리고

“먹물 뿐어내던 그 바다 돌아갈 순 없을까”

목이 아프도록
청호동 하늘의 별을 세며
오징어들은 밤이슬 맞고 있다

북쪽 고향바다 그리워
줄에 매달린 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인연으로
팔에 팔을 걸치고
바다보다 속 깊은 청호동 사람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속초. 청호동

김영섭

봄은 오지 말라고
냉이 꽃 피었습니다.
별들의 폭죽
금강산 왕벚꽃나무 가지에
매달려 울다
시월(歲月) 다 갔수다.

쉽게 오진 않을 거라던
청호동 돌담길
속살 드러낸 향기
진동하네요.

가진 가는데
비무장지대 꼭대기 대동강 가
간헐성 폭발 장애 증후군 앓는 큰 아이 집에
진달래 피어야
가네요.

다시 청호동에서

김영섭

영영 다시는 못 만날 것을 알면서
얼싸안은 꿈결에 비단자락 흔들며
겹으로 이별하는 동기간이 있다.
북망산천 다다라서
문풍지처럼 서러운 미수에
혈육의 여한을 염장하는
처절한 눈물 강
범람하는 겨레가 있다.
바라보는 별 밭이면 그립지나 않지.
함께 물힐 수 있는 고샅이면 서럽지나 않지.
심장을 옥죄는
자절의 끈이 어디더냐?
농잇소를 다 팔아 주고
전지 거두어 다 바치고라도
아니 되겠나이까
단전 저린 눈빛
상봉 채비 서슬서슬한 흰 고무신
상여꽃이 피었네.

청호동 일기1

김영준

물은 모여도 이곳에선
모래를 끌지 못한다

새들은 새쉼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고
주둥이 가득 거품만 물고 있다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술잔을 달래고 있을 때
고인 물처럼 점점 어두워가는 파도가
오늘도 다만 침묵하고 있다

아픔이라고 하자
허연 생채기 같은
우리들 끊겨진 길이라 하자

아침과 아침의 말을 고이 보내고 난 다음
청호동 네 굳은 어깨 너머
기침 같은 소주만 보이고

물은 모여도 이곳에선
꽃이 되지 않는다
쳐박고 앓을 나무가 되지 않는다

청호동 일기3

김영준

새는 이곳에서 먹이를 찾지 않는다
두 눈과 두 발을 모두 걷고
청초호 어디쯤 잠기어 가는 신촌이나 함흥을
청호동 가는 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청호동 갯배

김종현

줄을 당긴다
내가 너에게로 가는 길
물 속 깊이 가라앉아
보이지 않는 줄을 당기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드러나는 너와 나의 질긴 인연

가 보지 못한
너의 길을 걷기 위해
오래 걸어 왔던
나의 길에게
등을 돌려야 한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저 깊은 뼈밭에
흘러간 시간들을 버리고
익지않은 꿈도 버리고
나도 버려야 한다

가까워진 만큼
또 멀어지는 것들로
청호동 갯배는
날마다 줄줄 눈물 흘리고 있다.

청호동 낮은 집

김종현

청초호를 가르는
휴전선 닳은 모래톱 위
집들이 나지막하다
잠시 비를 긁고
바람만 막기 위해
오래 전
그들은 흔들리는 모래톱 위에
그렇게 엎드려 있었다
면 훗날을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잠깐 쉬어 가는 곳
그렇게 내린 실뿌리가
50년 묵은 뿌리로 자리 잡아
이제는 훌훌 털고 일어설 수도 없다
갓배 위로 철다리가 놓이고
바닷길이 뚫려도
고향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어
죽은 이는 혼으로 떠나고
살아있는 이는 등 떠밀려 떠나고
어찌지 못하는 사람만이
하나 둘 높아져 가는 집들 속에
가쁜 숨 몰아 쉬며
납작 엎드려 숨죽이고 있다

청호동이 지워지고 있다

김종현

물길을 트느라
사람의 발길을 끊었다
아바이 마을의
새로운 38선

이제 더 이상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20분과 5분의 차
야경 사진의 멋진 배경이 된
두개의 철제 다리

잃은 것에 대해 누구도 말이 없었다

가을동화 은서네 집
1박 2일이 다녀간 집
입맛이 아닌 입소문을 팔고
삶이 아닌 드라마가 사는 곳

발뒤꿈치로 늘려서 팔던 말린 오징어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고향을 잊지 않으려 던 이들과
그들의 삶을 나르던 갯배마저
편도 200원짜리 인증샷의 배경이 되어버린
오늘 저녁 무렵

청호동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청호동 나무

김춘만

가지를 치고 있어요.

파고들어 모래뿐인 땅 위에 피는 소금꽃

나무들은 흔들리며 소금을 뿜어내요.

이 세상 한복판 낯선 땅에서 날아온 가지들이 버린

안개와 모래 바람 속에서

그렇게 쓰디쓴 수액을 나누는 일은 신기해요.

보아요.

발바닥 써늘한 소금밭에 지난날을 묻어 두고

흰 뼈의 통통선은 어디로 가는지

안개가 끌고 다니는 적막 속에서 맨 발의 아이들이 뛰어 올라요.

그물을 치고, 친 그물을 끌어올리는 익숙한 장난질 속에는

펄떡거리며 아비가 놓친 고기떼가 걸려들고

와와 작은 섬을 채우는 환호 소리에 나무가 흔들려요.

흔들리며 소금을 뿜어내요.

청호동 바닷가에서

김향숙

내가 죽었다면
그것은 목울대가 메었기 때문이다

갈매기를 모래밭에
울며 받아 적고
울고 읊은 이름들
유언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청호동 바람

박명자

청호동 일원에 마른 바람이 한때 지난다
서서히 파도치기 시작하던 청호동의 좁은 어깨
펄럭이는 판자지붕
동에서 서로 바삐 움직이는 비릿한 손놀림

망각의 연기로 꺼져가는
청호동 골목골목의 원흔들

청호동 골목길에는 파도가 혀를 내밀다가도
아주 속속들이 사리를 틀었다

청호동 옷소매 속
부엌 아궁이까지 날 세운 바람은 자리를 굳히더라

청호동 바람은 밤마다 청호동을 떠메고
고향 뜨락까지 다녀서 바삐 돌아온다 하더라
고향집 텃밭도 돌아보고 안방도 기웃거리다가
새벽이면 스르르 제자리로 돌아온다더라
청호동 골목은 그러니까 검은 파도가
한의 높이까지 치솟아 오르지
청호동 아낙들은 밤 깊도록 낚시바늘에
고향을 찍어서 바람을 찍어서 이야기처럼
서리서리 대바구니에 그걸 담는 일을
아주 이슥토록 하더라

청호동 갯배는 만삭이었다

박명자

겨울 새벽

영하의 기온 속에 눈발 조차 흘날리는
청호동 갯배

아바이는 새벽 4시를 열고

명태바리 나갔고
동해 수평선에서 날아온
눈 푸른 팽이갈매기들
표범보다 날카로운 송곳니로
ㅋㅋㅋㅋ 갯배머리를 쪼아대었다

오마니는 펄펄 뛰는 생태를 고봉으로
고무 함지박에 담아 머리에 이고 섰다

자전거를 끌고 배에 오는 면서기 아저씨
강아지를 데리고 할마시 한 분도 배에 올랐다
책가방을 들고 서있는 미래의 꿈나무들 …

살아있는 풀잎 같은 생명체들이
빙산 같은 동체를 입김으로 움직여서
청호동을 떠밀고 갔다

청호동 갯배는 아침마다
만삭이었다

청호동 갯배

이상국

우리는 뱃길 북쪽으로 돌릴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이 무거운 청호동 끌고 갈 수 없어
와이어 로프에 복장 퀘인 채 더러운 청초호를 헤맬 뿐
가로막은 철조망 너머 동해에서
청진 원산물이 가자고
신포 단천물이 들어가자고
날래 따라 나서라고 날마다 아우성인데
우리는 동력도 키도 없어
바람 물 때 손바닥 보듯 하던 아바이들 모래벌에 다 묻고
이따위 죽은 배로는 갈 수 없어
와이어로프에 복장 퀘어 떠도는 함경도일 뿐.
우리는 강원도가 아니야
우리는 속초가 아니야.

갓배

이상국

갓배를 아는지
언제 가나 함경도
자별레 제 몸 재며 가듯
온몸으로 기어가는 배를 아는지
그 배 타고 꽃 피는 단천 가는 사람들 아는지
한 오십 년 속초와 신포 사이를 오가는
꿈길을 아는지
가다가 가다가 풍덩
푸른 동해 빠져 죽고 싶은 배를 아는지
흑역사라는 명텅구리 배를 아는지
함경도에 가본 적이 있는지
청호동을 아는지

갓배 1

이상국

우리는
우리들 떠도는 삶을 끌고
아침 저녁 빼걱거리며
청호동과 중앙동 사이를 오간 게 아니고
마흔 몇 해 동안 정말은
이북과 이남 사이를 드나든 것이다
갈매기들은 슬픔 없이도 끼룩거리며 울고
아이들이 바다를 향해 오줌을 깔기며 크는 동안
세계의 시궁창 같은 청초호에 아랫도리를 적시며
우리는 우리들 피난의 나라를 끌고
마흔 몇 해 동안 정말은
우리들 살 속을 헤맨 것이다

갓배 2

이상국

저렇게 푸른 동해도
청초호에 들어오면 썩을 수밖에 없다
흐르는 물길 막히면
우리들 그리움 또한
이까 복장처럼 새까맣게 명들 수밖에 없다
갈매기들 흰 배 뒤집으며 끼룩거리는 여름
낯선 관광객들은 갓배를 타고 사진을 찍는다
우리들 분단의 고통이
피서지의 추억이 되고
떠도는 삶이 구경거리가 되는 동안
썩어가는 청초호에 몸을 담그고
우리는 주먹으로 슬픔을 틀어막는다.

갓배 3

이상국

미시령 너머로 해 떨어지고
개 건너 호텔은 벌써 불야성이다.
월급쟁이들 학생들 리어카 품팔이 갔다 돌아오는 여자들로
청호동 들어오는 배는 몸이 무겁다.
-야야, 성진胡同 선자야! 느 엄마가 꼬치끼리 사 오래는 걸
내레 깜빡 까먹었다. 니 건너올 때 사와라
들어가는 배를 탄 아주머니가 나가는 배에 대고 소리지른다.
-에이, 아줌만 쟁피하게, 얼마친데요?
하고 건너다보는 처녀 얼굴이 고춧가루 빛이다.
-야 이 간나 다 컸다고 꼴값한다. 무시기 쟁피하니,
꼬치끼리 안 먹고 사니?
학생들이 먼저 킥킥거리자
오가는 배에 탄 사람들 모두 웃는다.
오늘도 갓배는 청초호 가운데서 수없이 만나고 헤어진다.

청호동 새섬

이상국

청호동 방파제 너머 떠다니는 섬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장화를 신은 채 청호동 사람들마저 잠들고
홍남이나 청진물이 속초물과 쓰린 속으로
새섬 근처에서 캄캄한 소주를 까다가 쓰러지면
북쪽으로 날아가는 새 섬을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헐떡거리며 짐승처럼 날다 바다의 벽에
다치고 돌아와 죽은 듯이 잠드는
청호동 방파제 너머 새섬을 사람들은 모른다.
청호동 사람들의 동해 밑바닥 국적 없는 고기를 잡거나
모래 위에 집짓고 아이들을 낳는 사실을
믿거나 믿지 않는 건 무서운 일이다.
나룻배 끊기면 흐르는 땅 모래 껴앉고 아바이들 잠드는
청호동 방파제 너머 이남 물과 이북 물이
야 이 간나이 새끼 마이 늙었구만 하며
공개적으로 억세게 무너지면
동해 속으로 사라질 청호동은 잠시 객지일 뿐이고
분명히 객지여야 한다.
청호동 방파제 너머 청호동 사람들의
흐르는 섬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떠도는 청호동

이상국

떠나야지.

청호동은 청호동 사람들의 땅이 아니고

그저 남한의 공유수면일 뿐,

이곳에선 물이 흐를 때마다

자꾸 발목이 빠진다.

잊혀지지 않으려고

잠들지 않으려고

서로 모래뿌리는 저녁,

갈매기들이 청초호 더러운 물에 부리를 박고 있을 때

늙은 아바이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바라보고 있다.

섬이 아닌 줄 알면서도

꼽꼽내 떠도는 섬,

흐르고 물이 흐르는 동안

청진이나 신포 부두에 매어 놓은 배들이 삐걱거린다.

청호동에 나무를 심는 일은

이상국

날 단천에서
뱃길로 사흘 갱지 속초에 와
나무를 심는 일은 단천을 버리는 일이다.
그렇게 청호동 모랫바닥에 엎드렸다가
한두 달이면 떠나야 할 갱지,
청호동에 나무를 심고 뿌리를 키운다는 건
단천나무를 육하는 일이다
철공소집 변돈도 받아야 하고
뻬뚤네 콩명석 두 높도 돌려줘야 하는
단천이 보이지 않는다.
뱃길 사흘 머나면 단천 때문에
나무를 심지 못하는 청호동 사람들의 단천은
단천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프리카나 마찬가지임을
청호동 사람들은 눈치 채고 있지만
아직 청호동 모랫바닥에 나무를 심는 일은
뱃길 사흘 단천을 아주 버리는 일이다.

청호동 안개

이상국

그물이나 작살로는 잡을 수 없는 안개 때문에
원산이 보이지 않는다.
원산이 보이지 않으면 결코 보일 수 없는 서울,
안개 속에 넘어진 아바이들은 모래바닥에 못을 박으며
캄캄한 소주만 마신다.
안개가 청진을 먹고 원산 진남포를 먹어 치우고
목포 인천을 먹으며 영을 넘어와
뻔뻔스럽게 청호동 여자들과 동침하는 밤에도
인천 등대와 같은 속초 무적靄笛으로는 속수무책이다.
청호동이 아프면 같이 아프다고 그리움 속에 몸을 숨기고
지워져야 한다고, 아픈 청호동은 지워져야 한다고
안개는 속삭인다.
전라도나 함경도는 지구에 없다고
먹어 치우는 안개 잡으려고 작살이나 그물 펴 들고
넘어진 아바이들 기 쓰다 잠들면
지워지지 않으려고 우는 청호동.

청호동에 가본 적 있는지

이상국

청호동에 가본 적이 있는지
집집마다 걸려있는 오징어를 본 적이 있는지
오징어 배를 가르면
원산이나 청진의 아침햇살이
퍼들썩 거리며 튀어 오르는 걸 본 적이 있는지
그 납작한 몸뚱이 속의
춤추는 동해를 떠올리거나
통통배 연기 자욱하던 갯배머리를 생각할 수 있는지
눈 내리는 함경도를 상상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오징어 속에는 소줏집이 들앉았고
우리들 삶이 보편적인 안주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마흔 해가 넘도록
오징어 배를 가르는 사람들의 고향을 아는지
그 청호동이라는 떠도는 섬 깊이
수장당한 어부들을 보았거나
신포 과부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는지
누가 청호동에 와
새끼줄에 거꾸로 매달린 오징어를 보며
납작할 대로 납작해진 한반도를 상상한 적은 없는지
혹시 청호동을 아는지

청호동 아바이

장승진

엊저녁 청호동에서 마신 소주는
그리운 바닷물인 줄 알았다
어찌면 그 놈이 마시고 간 바닷물도
십중팔구 씹쓰름한 소주맛이었을지 모른다

휘청이는 바닷물에 떠서
잠기는 밧줄 건져 올리며
힘있게 벨아내는 소주 기운이
매양 이승의 아침으로 닥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판장 죽은 생선들
감지 못한 눈동자 핏발 같은 햇살로
따스해져오는 속초의 지붕들과 창문들을
아슴아슴 바라보는 것 또한
낯설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엊저녁 청호동에서 마신 소주는 정말 내 고향 바닷물인 줄 알았다
부러진 나무젓가락 두드리는 소리도
젊은 날 네 녀석들 웃음소린 줄 알았다
이 땅에 새로 심은 나무들이 자라고
뜰 앞 꽃덤불도 해마다 줄기를 키우는데
술 깨는 아침이면
동전만한 크기로 가물대는 땅
고개 돌려 따라가면
무더기로 내다버린 눈동자들뿐인 바다

바람만 드나드는 눈자위에
하나 가득 다시 해장술을 따르면
아바이 아바이 고향이 어데요
아바이 아바이 타향은 어디메요
갈매기들 끼룩대는 소리에
새로 돋은 하루가 물살로 감긴다

청호동 아바이

- 실향민 문화촌에서

정명숙

기차도 기찻길도 없는 속초 역사(驛舍)에서
전쟁의 아픈 기억이
7분짜리 영상물로 상영되고,
남루한 판자촌은
지워져 가는 기억의 증인으로
빈 역사를 지키고 있다.

며칠, 아니 몇 달을 기약으로
시작 된 피난살이
고향땅 다시 밟을 희망이 있어
거친 바다에 삶을 내린 함경도 아바이들
모래땅 한 평짜리 판잣집도
배고픈 설움도 견뎌 낼 수 있었다는데

그리움으로 지켜낸 무심한 시간은
기약도 희망도 모르는 척
저 혼자 흘러가고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뿌리내린
대를 이은 실향의 아픔만이
빈 역사와 남루한 판자촌으로
실향민 문화촌, 꽃비 내리는 뜰을 지키고 있다.

갓배

정영애

동해의 햅살들을 갓배에 싣고
그리움 물그리메 아바이 마을
청호동 가슴으로 스미는 바람

그리운 이 하나둘 꽃처럼 져서
바람에 전한 아부 소식도 없고
청호동 고향되어 줄감는 손길

갈매기 한 마리가 갓배를 따라
물 속을 바라보다 먼 하늘 날다
청호동 노을 속에 멀어져가네

청호동 아바이

정정하

아무도 살지 않던 모래 별에
바람 송송 구멍 뚫린 헌 문짝 달아 놓고
바닷물처럼 간간히 밀리는 알 수 없는 그리움에
목젖 늘이며 살아가는 청호동 사람들

수평선 한 쪽으로 가슴 한쪽이 기우는 그리움에
기우는 몸 싣고 가는 갈매기 때들에게
고시내 몇 번 하고 돌아오는 길
어느새 바다 노을이 가슴에 변지면
마디진 한생을 이어가듯 그물을 깁고 또 깁는다

꿈속에서도 누군가를 찾는 소리
겨울 바다보다 자식들의 가난이 더 무서워
빼꼼한 하늘 한 쪽을 지붕 삼아
저녁밥 잣는 냄새에 위안을 얻었던
늙수그레한 청호동 아바이

뚫리다만 원산행 철로 같은 이마의 깊은 골
얼마나 많은 세월을 갈아엎었을까
걸쭉한 사투리가
어릴 적 뱃길을 만들고 지우며
허공에 길을 낸다
바닷길을 연다

청호동 갯배

조인화

물가에 서면
돌아갈 곳이 있을듯해
잔잔한 파문 몰고 들어설 마을이
있을듯해

골목을 몰고 다니던
스산한 바람
남아있는 사람들 몇 집 건너씩
쪽마루에 걸터앉아
검버섯 드뭇한 햇살 받아 놓고
시름없이
하여 봉분 돋우지 못한 문 돌찌귀 그대로 두어
무서운 겨울 손에 찍찍 붙던 추위
기억의 저장장치를 슬라이드로 열어놓고 있는
해가 지지 않는 마을

물가에 서면 돌아올
그 누군가가 있을 듯

청호동으로 가는 갯배

지영희

너에게 내린 줄을 당기고 싶다는 건
내게로 오게 함이었다

뱃전에 달라붙는 소외된 냉기쯤
더 아플 것 없는 청호동 바람에 훑어내고
가끔 큰 배가 지나칠 때마다
물결 사이로 솟구치는 유혹은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네가 왜
먼 바다에까지 외등을 밝히고
밤마다 서성이는지 알아야겠다
갈고리에 끼운 쇠줄
힘껏 당기어
네 가슴 한가운데를 끌어내는데
내 먼저 가고 있는 건
발 먼저 내달아지는 건 무슨 까닭인가

바람 속 너를 끌어안고 싶은
오늘
내 가슴 한가운데로
굵은 쇠줄 하나 내리고 싶다.

청호동 그물

채재순

햇발이 종종걸음으로
달려오는 날에도
캄캄한 대낮이 걸려드는 청호동 그물

핏발선 광녀의 목청이
와-와 울며 걸려도
소금에 절여진 모래땅이
등 따신 아랫목이 될 수 없다며
비릿한 바람으로 몰려와 안겨도
어제 놓아준 명태가
청상과부로 늙고 있는 고향을 물고 와
저녁 노을로 걸리고

청초호 갈매기 때
속초 하늘을 끼룩이는데
선달 하현달을 건져 올리는
청호동 그물.

청호동 바람

채재순

새벽을 건져 올리던 바람이
어지러운 물살로 뒤척인다

어느 아침이면 돌아갈 수 있을까
그물질을 기다렸던 명태가
비릿한 바람으로 걸려들고

청호동 마실을 따라 나란히 선
단천상회, 북청이용소 간판이
네 이놈, 네 이노옴!
뚫어지게 내려보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

아이들이 햇살로 깔깔거려도
설악산 대청봉 바람에
손발이 시린 청호동은
아침이 오지 않는 한
캄캄한 바람, 어두운 대낮이다.

아버지의 일기

-청호동에서

최월순

바람이 불어 가끔 해금강 하얀 모래를
청호동 방파제 위로 한 마장씩 부려놓고 간다네.

수평선 위에는 가끔 붉은 달이 떠오르고
달 속에 숨었던 어린 나의 연인이
선연한 눈물 한 줄기 떨어뜨리고 가기도 한다네.

때로는 처자를 남겨두고
바다 건너 한사코 떠나겠다고 마음먹기도 한다네.

손 내밀면 닿을 것 같은 내 고향
뗏목을 타고 건너도 한나절일 텐데
나는 가지 못했네.

나는 이제 걷지도 못하고
나의 연인을 알아보지도 못하네.

아무 것도 그리워할 것이 없다네
아무 것도 보고픈 것이 없다네.

그러나 지난밤 차가운 비바람 속에
청호동 모래밭에 숨어 있는 메꽃 한 송이
꽃잎이 다칠까 작은 손바닥으로 가리느라
전전긍긍하였다네.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

作 이반

등장인물 -

길수(28세)

쌍가매(32세)

나그네(35세)

노파(62세)

어부(25세)

때 -

현대

곳 -

동해안 어촌

무대 -

바다가 인접해 있는 초가 주막

주막은 벽에 옷가지와 그물이 너저분하게 걸려 있어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막이 오르면 때는 겨울새벽.

긴 침묵 속에 잠들었던 바다가 조용히 거동을 시작하면 파도는 해변을
긁기 시작한다.

파도소리는 규칙적으로 주막으로 엄습해온다.

그것은 적진으로 향하는 젊은이의 군화소리처럼 몰려오다가 어머니의

자장가같이 밀려간다.

이제 겨우 먼동이 트기 시작하는 이른 새벽인데 노파는 어둠 속에서 거동을 시작한다. 노파의 거동은 늙은 무당의 춤처럼 능숙하고 아름답다.

무대가 조금 밝아지면,

쌍가매, 부엌으로부터 급히 뛰어나오며 악몽에서 헤어 나오려는 듯 몸을 뻔다.

노파, 그런 쌍가매를 급히 돌아본다.

노파 아아 에미니? 아아들 애비는 아직 아이 일어났니? (창을 통해 하늘을 쳐다보고) 예구, 별씨 샛별이 떴구나. 날래 방에 들어가서 애비를 깨워야겠다.

쌍가매 별씨 시간이 그렇기 되었소?

노파 별씨라니?

쌍가매 저. 아아들 애비를 바다에 내보내지 않으믄 아이 되겠습메?
 오늘만 말입메.

노파 무슨 소릴 하는 거니?

쌍가매 아아들 애비가 오늘 바다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입네.

노파 야아, 나는 니가 무슨 소릴 하는지 모르겠다.

쌍가매 귀두 아이 잡셨는데 어째 그러오?

아아들 애비가 바다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오.

노파 니 세 살 먹은 아아들이니 응? 어째 그러니? 역정 나는 소린 하지두 말아.

쌍가매 아아들두 자구 있는데, 좀 살랑살랑 얘기합세.

노파 아들 애비를 어째 바다에 아이 내보내겠다는 거니?
 애비가 날씨가 칩어서 꾀가 난다구 하디?

쌍가매 그런기 아입메. 니기를 쟁취로 암메?

노파 그럼 어째서 신시 바다에 나가는 사람을 아이 내보냈으면 좋겠

다는 거니? 응? 대답을 좀 해봐라아.

바닷사람이 바다에 아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쌍가매 지난 밤의 일이 뒤풀어져서 그러오.

노파 그런기면 말할 필요도 없다.

뱃머리에서 여자들이 가타 부타 말이 많으면 좋지 않다.

쌍가매 간밤의 일이 너무 이상해서 그러오.

노파 또 싸움했니? 그러니 내 무시기라고 하디?

가아는 성미가 급해서 막 집어던진다고 하잖디?

일없다, 일없어. 성난김에 바다에 아이 나가겠다구 했을기다.

가아는 뒤끝이 없는 아이라서 어저는 풀어졌을끼다.

가서 깨워라.

쌍가매 어마에!

노파 내가 들어가서 쟁기를 쟁겨주믄 아아 애비는 딴소리 아이할 끼다.

너는 날래 들어가서 깨우기나 해라.

그저 뉘기뉘기 해도 가아는 이 에미를 어려워 하지비.

내 말이라면 지금두 소금짝이라두 가물로 끌고 들어가라면 간다.

어째, 그러구 서있니?

쌍가매 아마에 우린 아이들이 아입메.

우린 아이들처럼 싸움을 하지 않는담 말입메. 싸움은 무슨 싸움을 했다구 그럽메? 아아들 애비는 아마이 못지않게 나두 어려워 합메. 싸움 같은 소린 하지두 맙세.

노파 싸움도 아이했으면 어째 아아 애비를 바다에 내보내지 않겠다는거니?

내참. 니 맴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쌍가매 역정낼 일이 아입메. 나두 마음속에 유감이 있어 그럽메.

노파 맴 속에 유감이라니? 이 봄세. 아아 에미!

십 년을 넘게 살아두 내 어디 아아 에민데 유감 있는 소리합네?

열푸드 대답을 하라아.

쌍가매 이 아마이 어째 자꾸 이러오? 내 어디 어마이 보구 유감이 있다
구 했소?

신시난 사람을 보구 언치를 걸지 맙세.

노파 이거 말이 길겠다이. 저리 나섭세. 내가 들어가서 아아 애비를
깨워 갖고 나오지비.

새벽싸움에 배두 못 나가겠다이.

노파, 쌍가매를 밀치고 부엌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쌍가매는 그런 노파를 한 번 더 저지시켜 보려고 하나 소용이 없다.

이때 길수 나온다. 그는 삼십대 초반의 짧고 건강한 어부다.

길수 밖이 어째 이렇게 소란하오?

노파 잘 나왔다. 아이, 그래두 내 깨우러 들어가려구 했지비.

길수 무슨 일이 있었소?

노파 배 나갈 시간이 다 되었다.

길수 벌써 시가이 그렇기 되었단 말이오?

노파 날래 쟁기를 챙깁세. 어지보다 조금 늦었지비.

길수 쟁기는 어지 나조에 다 쟁겨 두었음메. 배에 그냥 두고 왔소.
어전 몸만 나가면 됩메.

쌍가매 (길수 옆으로 다가서며) 오늘은 바다에 아이 나갔으면 좋겠습
메.

길수 무슨 소립메?

쌍가매 다른 날은 모르겠소. 오늘만 바다에 나가지 맙세.

노파 자아 오늘 아침에 어째 저러는지 모르겠다이. 하루 이를 시나를
가물에 내어 보내는 모두 아인데 저렇기 마구 나서이, 기가 막
히다이.

내 참, 폐러분 아아를 다아 보겠다이.

- 쌍가매** 아메에, 폐러분 건 냅메. 남의 말두 아이 들어보구 자꾸 폐럽다
구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메?
- 길수** 그만들 합세. 무슨 이야기진 몰라두 배를 내어보낸 다음에 합세
아아 애미나 어마이두 내기 할 말이 있으면 배가 들어온 다음
에 합세.
- 쌍가매** 배가 들어온 다음에 할 이야기가 아입메.
- 길수** 그럼 지금 열푸딩 합세. 부두로 나가는 길에 죄 아바이 집에 들
려야됨메. 시가이 없으니 열푸딩 합세.
- 쌍가매** 꿈자리가 나빠서 그럼메. 바다에 나가지 맙세.
- 노파** 무시기라구?
- 길수** 꿈자리라이!
- 쌍가매** 그러이 내 말두 좀 들읍세.
- 노파** 벳머리에서 미친소리 하지두 말아. 꿈 꿈 하다가 큰일을 당한 것
잊어버렸니?
- 길수** 무슨 꿈이오?
- 쌍가매** 좋잖은 꿈이오. 옛날에두 그런 꿈을 한 번 꾸었소.
- 노파** 이거 어째 이라니? 새벽부터 꿈 이야기를 하면 험한 일을 당한
다구 내 그러잖니. 아무 말두 말구 아아 애비를 바다에 내어보
내라.
- 쌍가매** 아마이는 옛날 그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말을 하오.
그때두 내 무시기라구 그랬소? 바다에 나가지 말라구 그리잖었소?
- 노파** 야, 듣기싫다. 너는 우리 집에 시집와서 처음부터 시나보구 바다에
나가지 맙세 했다. 어전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마.
- 길수** 날씨두 잠잠한데 별 걱정 맙세. 꿈이 나쁘다구 바다에 아이나가
구 기분이 좋잖다구 가물에 배를 띄우지 않으면 바다엔 뉘기 나
가겠소?
- 벳사람은 궂으나 좋으나 꾀를 부려서는 아이되오. 당신두 어전
벳사람 다 된 줄 알았드니 아직 멀었구만. 그까짓 꿈을 가지구

그리면 못쓰오.

노파 내 말이 그 말이다. 우리가 갈디라구는 바다밖에 더 있니?
바다에 아이 나가면 어찌란 말이니?

쌍가매 내 맴을 좀 알아줍세, 보통 꿈이면 내 이렇기 말리지는 않겠소.
내 언지 꿈 이야기를 합데? 보통 꿈이면 말을 꺼내지두 않지비.
시퍼런 바다에 배도 띄우기 전에 무슨 방정맞을 소리 하겠습메?

길수 어지밤에 나두 꾸었습메. 보통 때 꾸던 꿈이 아이란 걸 나두
압메. 그렇지만 나는 바다에 나가야 됩메. 내말 알아 듣겠습메?
꿈이란 것은 생가하기에 달린기란 말이오. 좋구나 하고 믿으면
좋은기 꿈이란 말입메.

노파 어전 그만하구 나갑세.

길수 멀기소리 들으니 마파람 같소. 이런 날은 후리질만 잘하면 만선
이지비.

쌍가매 내가 나가면 아이 된다구 그러재오!

노파 이 애미네야. 오늘은 어찌 그렇게 새쓰게처럼 그러니? 에그 언지
바다를 알겠니? 난 니 나이에 바다에 대해서는 다 알았다. 훤히
알았단 말이다.

쌍가매 그까짓 바다는 알아서 무스걸 하겠소?

길수 (화를 내며) 무슨 소리 하는겁메?

노파 큰일 날 소린 하지두 말아, 어전 철이 좀 들어라.

쌍가매 무시기라구 그래도 일없소. 오늘은 바다에 나가면 아이되오.

길수 아마에 나갔다 오겠소. 이렇기 말씨름 하다가는 날을 새우겠소.
노파 그래, 니말이 맞다. 자아는 지금 무시기 씌웠다. 그 씌운 아아를
다리구 진종일 이야기해두 끝이 없다. 날래 나가자, 날래

쌍가매 아마에.

노파 듣기 싫다.

노파와 길수 밖으로 나간다. 그들은 쌩가매의 만류를 무시한 채 바다로 나간다.

쌍가매 내가 아이 된다구 그러재오? 오늘은 바다에 나가면 아이된단 말이오. (조명 다시 어두워지면 파도소리 들린다.)

같은 날 깊은 밤. 세찬 바람소리와 물을 삼키려는 파도의 울부짖음이 들려온다. 쌩가매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칠 때마다 놀라며 초조한 듯 문께를 바라본다. 그녀는 남자의 속옷을 들고 이를 잡고 있다. 희미한 호롱불 밑에서 쌩가매가 이를 하나씩 잡을 때마다 염지손톱 사이에서 터지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쌩가매는 옷섶에 하얗게 모여 앉은 서캐를 하나씩 잡다가 그것들이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의 옷섶을 몰아 쥐고 씹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쌍가매 누기오? (문소리 계속 들린다.)

아마이오? 채우지도 않았는데 어째 그러오? 얻지 문을 두리고 다녔습메?

노크소리 계속 들린다. 쌩가매는 일어서서 문께로 가서 문을 연다. 그 틈새로 바람이 몰려들어 방안에 걸려 있던 옷가지와 그물을 날린다. 텔모자를 눌러 쓰고 두터운 목도리까지 한 나그네가 들어온다. 그의 모자 위와 어깨엔 진눈깨비가 그득히 얹혀 있다. 나그네는 쌩가매를 보고 그녀의 앞에 다가서다가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남자의 속옷을 보고 멈칫한다.

쌍가매 뉘깁매? 이 야밤에.

나그네 길을 가던 사랩이오. 좀 쉬어갈 수 없을까 해서 들렸습메.

쌍가매 에그, 아이 되겠소. 우리 집은 방이 넉넉잖아서..... 이이 되겠소.

- 나그네 (주위를 둘러보고) 주막집이 아입메?
쌍가매 주막을 아이한 지 언지라구.
나그네 그럼 이 야밤에 어디 갈디두 없구 큰일이구만. 어디 다른 주막은 없습메? 여관이라두 일 없습메.
쌍가매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기래두 있을기 아이요?
나그네 옛날에는 장새꾼들두 마이 들끓었다구 들었습메.
쌍가매 옛날에 여기 와봤습메?
나그네 (당황하며) 아이, 아이 와봤소. 소문들어서 알지비.
쌍가매 그 일이 있구 난 다음부턴 사람들이 아이 오지비.
나그네 그 일이란 기 무시김메?
쌍가매 가물이, 가물이, 이 동리 배하구 사람을 다 가져 갔습메.
나그네 가물에게 이 동리 장정들이 혐한 일을 당했단 말입메?
쌍가매 그래두 원체 더러분 일이라서 물에 사람들두 다 알끼오.
나그네 아 그렇지비 이전 알겠습메. 이 동일 배 다섯 체하구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소문은 나두 들은 것 같습메.
그건 옛날 일이 아입메?
쌍가매 십 년이. (사이) 어전 모두 잃어 벼렸지비. 이 가슴에 못을 박구.
나그네 살아온 사람은 없었소?
쌍가매 살아 아이와두 시체라두 찾았으면 이렇게 속은 썩찝겠지비.
나그네 시체두 못 찾았소.
쌍가매 배 네 채는 깨어진 기라두 찾았습메마는 하나는 형체두 못 찾았지비.
물가에 가서 시체라두 보내달라구 몇 날을 정성 드렸는지 압메? 백 일을 드렸습메, 백 일을. 보내줘야 말이지비.
나그네 그럼 그 배가 아주마이너 배란 말이오?
쌍가매 (나그네의 아래 위를 훑어보고 의자를 내놓으며) 이리 좀 앉으세. 이 야밤중에 여기는 어찌서 왔습메?
나그네 장새를 다니는 사람입메. 저쪽 집에 가서 방을 하나 얻어 보자구

그리이 이 집으로 가보라구 해서... 주막을 그만 둔 진 오래 되었습메?

쌍가매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턴 살아갈 정세가 나야 말이지비.

나그네 아주머이너 배였구만.

쌍가매 썩은 기 물에 나가 없어질라면 아아 새끼들 하구 나두 테리구 죽잖구

내기 무슨 죄가 있다구..... 쫓, 쫓, 쫓, 다 팔재지비.

나그네 배만 없어진기 아이구 집안 어른두 없어졌단 말이구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은 죽지만 바다에 나가 그렇기 없어지면 너 무 하지비.

쌍가매 말을 해서 무스걸 하겠습메? 아아들 서이하구 노친까지 두고 갔으이.....

나그네 고생 마이 하겠소.

쌍가매 목숨이 무시기라구 질기기두 합데. 처음 한두 해는 하두 고생스 러워 죽으려구두 했지비. 그런데 그기 어떻게 마음대로 됩메? 혼 자라야 말이지비.

나그네 주인 양반에겐 형제도 없었소?

쌍가매 (나그네를 쳐다보고는) 동생이 하나 있지비. 그 일이 있을 때 열 여덟이었는데 어전 스물여덟이오. 날씨는 어째 이런지 모르겠다 이. 어전 들어올 때도 되었는데.....

나그네 멀기가 몹시 치던데, 이런 날은 배질하기두 힘들낀데. 앞이 보여 야 배질을 제대로 하지비.

쌍가매 물에서 장새한다면서 어떻게 바닷일을 그렇기 잘 아오?

나그네 어렸을 적에 나두 배를 탔지비. 한번 혼이 나구 가물만 보면 멀 려서 얼푸덩 때려 치웠지비.

쌍가매 잘했습메. 배를 타는 사람이 좋아서 그 짓하는 사람이 뉘기 있 겠습메?

나그네 그나 저나 이날이 어째 이러오? 바람이 너무 불재오?

- 쌍가매** 간나 세사이]. 아침까지 뱀뱀하던 하늘이 이기 무스기 짓인지 모르겠다이.
- 나그네** 어디. 면 바다에 나갔습메?
- 쌍가매** 홀치기 바로두 옛날 같잖아 멀리 탄답메. 괴기들두 면 바다를 타야지 그렇잖으면 아이 잡힌답메.
- 나그네** 날이 꾸물거리면 얼푸덩 들어올 일이지비.
- 쌍가매** 해오나(혹시나) 해오나 하다가 그렇겠지비. 남정네 하는 일을 우리가 무시기라구 빼치겠습메.
- 나그네** 바다에서 주인양반이 돌아오지 않기 되었으면 그 동생이 배를 탔겠구만.
- 쌍가매** 나는 배를 태우고 싶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겠습메? 뉘기 이 귀신들을 벌어 먹이겠습메?
- 나그네** 바닷 사람이 배를 타야지 또 무슨 일을 할기 있습메?
- 쌍가매** 말을 해서 무스걸 하겠습메? 스물두 아이되어서 무스걸 안다고 배를 타고 그 고생이겠소.
- 나그네** (잠시 망설인다.) 그 사람 장개는 들었습메?
- 쌍가매** 무시기라구 구려오. (별걸 화를 내며) 그런걸 어째서 묻소? 예? 어째서 묻는가 말이오! 남의 집의 사정은 알아서 무스걸 하겠다구 그러오? 가마이 보자보자하니 사람을 어떻기 치구 그런 걸 묻는기오?
- 나그네** 그렇기 역정냅메?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합메. 그저 옛날에 배를 탔던 사람이라서 남의 일 같잖아서 그랬습메.
- 쌍가매** 남의 일 같잖으면 어떻게 하겠소? 어렵기 하겠는가 말이오. 군소리 하겠으면 나가오 알겠소?
- 나그네** 미안하다구 그러재오?
- 쌍가매** 저기 저쪽 방에 들어가 잡세. 봉당 옆방입메. 별 싱거운 양반 다 보겠다이.
- 나그네** 아주마에, 내가 무슨 못할 소리를 했소? 어째 그리 역정을 내오?

쌍가매 아이 내게 생겼습메?

나그네 나이 스물여덟 먹은 사람이 장개 갔는가 아이 갔는가 하고 물었는데 그기 무슨 잘못이란 말이오?

쌍가매 이 양반이 남의 배에를 뿐기네. 난 아푸단 말이오. 아파, 내 뿐 아이오. 우리 식구들은 다 아파하는 얘기란 말이오. 아이들을 섯씩이나 테리구 있는 과부를 뉘기 데리고 가겠소? 아이 그렇소, 서이 중하면 그 조캐도 중할끼 아이오? 오디갈디 없는 어마이는 어떻기 하구 장개 가겠소?

그렇다구 총각으로 늙어 죽을 수도 없구. 그는 서이 중한 것보다 형수가 더 중요했단 말이오. 내 말 알아 듣겠소? 내가 중했던 말이오.

(사이) 낸디 장가왔소, 낸디. 어째 그러오 오째, 그기 무슨 아이 된기라두 있소? 그런거 어째 자꾸 묻소!

나그네 그래 미안하다구 그랬잖소?

쌍가매 동리 간나새끼들은 지금도 뒷손질합메마는 난들 어떻기 하겠습메? 나두 옳구 그른기는 아는 사람이오. 이미 있는 사람이란 말이오. 그렇다구 그 사람 아이면 아들을 다 굽겨 죽이겠으니..... 내 생각은 마이 했지비.

나그네 다른 데 재혼할 데는 없었소?

쌍가매 재혼 같은 말은 하지두 맙세, 그 일이 있는 다음 우리 동리 과부가 몇인 줄 아오? 스물 일곱이었습메, 사내라구 씨도 마를 뺀했지비.

따지고 보면 나만 재혼한 셈이지비. 간나들이 뒷공론하는 것두 배 아파서 그러는지두 모르지비. 법이 무스킨지 모르겠습메만 그것두 사람들이 만든기 아이겠소? 살아가기 편하자구 만든기 법이겠지비.

나그네 아이들은 어찌오? 그것들이 지 새아부지가 삼촌이었다는 걸 알면 아이 좋을끼오.

- 쌍가매** 후 후 후. 감쪽같이 모르지비. 열파들은 지 애비를 어려서 잃어버렸단 말이오.
- 더구나 마지막 간나는 지 애비가 없어 졌을 때 배 안에 있었습메.
- 나그네** 다행이구만.
- 쌍가매** 지 애비가 짚어두 고급 중학은 다 마쳐주겠다구 했으니깐 가아들은 잘 될기오.
- 죽어두 가아들은 배를 태우지 말아야지비.
- 나그네** 장세를 배우든지 무슨 일이든지 물에서 하겠단 말입페? 바닷일 만큼 힘든 짓이 또 어디 있겠습마는 물의 일도 그리 만만치는 않지비.
- 쌍가매** 고급 중학만 나와두 동리 서기 하나는 문제없지비. 가아들이 크는 것만 보면 (사이) 저 애비를 닮아 키는 어찌 그리 큰지. 아주 바이두 보통 키는 아이구만.
- 나그네** 키 커서 무스걸 하겠습메? 남인데 욕바가지나 얹어 먹을 짓이나 하구... 싱겁기만 하지비.
- 쌍가매** 그래두 작은 것보다야 낫지비. 복사나무에서 복사 하나 따 먹어 두 키 큰기 낫지비.
- 나그네** 바람이 좀 자는 것 같소?
- 쌍가매** 점점 더 지랄이오. 저 방안의 그물이 떠는 걸 봅세.
- 나그네** (그물을 본다. 그리고 그리로 걸어가서 그것을 만져본다.) 나이롱 줄루 만든기 아이오? 웬만해서 끊어지지 않겠구만.
- 쌍가매** 그렇잖습메. 나이롱도 바위에 걸리면 잘 나가서 잔 바로 할 때는 나조마다 보망해야 된답메.
- 나그네** 어전 가봐야 되겠습메.
- 쌍가매** 이 야밤에 어디루 간다구 그러오? 여관두 없다 그리잖소.
- 나그네** 전두 없는데 어떻기 남의 집에서 쉬겠소?
- 쌍가매** 폐러분 양반 다보겠다이. 우리 주인은 마음이 넓습메. 고단하면 저 봉당 옆방에 가서 쉽세.

나그네 주인두 바다에서 아이 들어왔는데 쉰다는 것두 인사는 아이 지비.

쌍가매 걱정말고 날래 들어갑세.

나그네 아직 잠두 오잖소. 쉬자면 멀었지비.

쌍가매 우린 인사치레 하는 걸 싫어합메.

나그네 아까 어마이가 있다고 그랬잖소?

쌍가매 있지비.

나그네 지금 어디 있습메?

쌍가매 이지 조금 있으면 들어올끼요. 마아도리 나갔다가 부둣가에 들렸다 올킴메.

나그네 손자가 열 살 넘은 아아들이 있다면 나이두 많이 자셨을 텐데 아직 마아도리를 다닌단 말이오?

쌍가매 우리 어민 환캡이 넘었는데도 아직 씨잉씽 합메. 아이들 하구 싸우는 걸 보면 아직 한참이지비.

나그네 그럼 아이 되겠소. 아마이두 없는데 어떻게 남의 집에서 쉬겠소?

쌍가매 일없소. 그 아마이두 맴이 좋아서 남의 딱한 사정 잘 봐주는 성미요.

염려말구 들어가 쉽세.

나그네 아무리 생각해도 가야겠습메. 정 잘디 없으면 부둣가나 한 바퀴 돌구 주인양반이 돌아온 다음에 들어오겠습메.

쌍가매 엉그 일 없다이 그리오.

나그네가 나가려고 할 때 노파가 들어온다. 노파가 문을 연 틈새로 아까보다 더 강한 바람이 주막 안으로 밀어닥친다. 노파도 나그네와 마찬가지로 흰 눈을 머리와 어깨 위에 쓰고 있다. 밖으로 나가려던 나그네는 노파를 보고 어깨를 돌린다.

노파 종 간나 날씨. 어째 이러니? 일이 나겠다 일이 나. 야, 아아 예미
야 너는 어째 이러구 집에만 있니?

쌍가매 배는 아직 아이 들어왔소?

노파 배가 들어왔으면 어째 혼자 왔겠니?

쌍가매 몇 채나 아이 들어왔다구 하오?

노파 아이 들어온 건 아아애비 배밖에 없다. 딴 배들은 다 들어왔다.

쌍가매 우리 배도 들어 오다라오?

노파 그 눈갯비 속에 어떻기 남의 배를 찾겠니? 무스걸 하니? 거기 그
렇게 섰지 말구 빨리 나가봐라.

쌍가매 어마에

노파 어째 그러니?

쌍가매 손님이 왔습메.

노파 손님이라니?

쌍가매 장새하는 사람인데 잘 데가 없다구 해서... 내 집에 있으라구 했
습메.

노파 이 치운데 어딨 사람이니?

쌍가매 집에서 쉬라구 해도 일 없겠소?

노파 넌 빼치지 말구 가만 있어.

쌍가매 내 봉당 옆방에서 쉬라고 했소.

노파 (버럭 화를 내며) 뉘기 마음대로 그랬니? 응? (나그네를 향하
여) 아아들 예비두 없는데 어찌겠소? 나갑세 우리 집 말구두 이
동리에 잘 디 많을껍메.

쌍가매 인심두..... 박정하게 그러면 이 밤에 뉘기 집으로 가란 말이오?

노파 (나그네에게) 글씨, 내 말대로 합세.

쌍가매 어마에!

노파 나이 많은 사람의 말두 들읍세.

나그네 아마에 걱정맙세. 아이 그래두 지금 나가려구 했습메.

쌍가매 이구 이 바람부는데 말이오?

노파 야, 아아들 애비는 이 멀기 치는데 죽은 나무를 타구 시피런 가 물에 떠있다.

쌍가매 그러이 내 아침에 무시기라구 했소?

노파 니 씨먹챈 말을 정 하겠니?

나그네 고맙습메. 잘 쉬다갑메.

노파 그렇기 합세. 날씨도 뒤숭숭 해서 그러오. 우리를 나쁘기는 생각 지 맙세.

나그네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여니 바위를 깨는 듯한 파도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진눈깨비가 주막 안으로 몰려온다. 파도소리 사이마다 해변을 할 퀴고 바다로 밀려나가는 물소리가 음산하게 들린다.

그것은 불길한 예감을 안겨준다. 파도소리는 계속된다.

노파 (나가려는 나그네에게) 아이 여기서 쉡세.

나그네 네엣?

노파 여기 있습메. 나두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치운 밤에 집에 든 손님을 내어 쫓겠습메? 여기 옵세.

나그네 일 없습메. 전두 없는디서.....

노파 일 없소. 여기 있어. 여기서 쉬구 내일 아침에 갑세. 야 니는 어 째 그렇기 명하니 서있니? 빨리 나가 보잖구.

쌍가매 내 정신 좀 봐. 아마이 변덕에 딴 생각하구 있었구만.(나가려 한다.)

노파 그냥 나가면 어떻게 하니? 저기 솜방망이 있잖니? 거기다 얘기 름이라두 쳐서 불을 들구 나가야 될기 아니니?

쌍가매 얘기름이 다 떨어졌소.

노파 그러문 그냥 나가라. 엄돌이년 깡통에다 기름을 가득 넣어 가지 고 나왔더라. 가서 좀 얻어쓰면 될끼다.

쌍가매 별써 부두에 나와 있소?

노파 너만 빼어 놓구 다 나왔더라. 초저녁부터 얼푸딩 나가봐라. 또 무시기라구 손가락질하겠다.

쌍가매 (나가며) 갔다 오겠소.

노파 장새하는 사람이라구 그랬소?

나그네 네. 오래는 아이 됐소.

노파 이즘 장새는 잘 됩메?

나그네 그 까짓기 잘 돼서 무스걸 하겠소.

노파 그 까짓기라니? 장새하는 사람이 그걸 잘 해서 돈을 모아야지 비. 돈 모을 생각을 아이 하구 땀디 맴을 쓰면 아이 되지비.

나그네 돈두 쓸 디가 있어야 모아지지. 그렇잖고는 모아지չ메.

노파 물에 사는 사람들은 가물 사람하구 달라서 욕심이 많다던디 나 그네는 아이 그런 모양이구만.

나그네 욕심을 내서 돈을 모으면 어찌겠소? 자꾸 바다가 생각 키우는데. 자꾸 바닷가로 오구 싶어서.....

노파 그럼 이 야밤에 여기 찾은 것두 장새 하자구 온기 아이구 바다를 보고 싶어왔단 말입메?

나그네 (고개를 끄덕거리며 혼자 중얼거린다.) 늦었지비.

노파 본디 육지 사람이 아인 모양이구만.

나그네 바다를 떠나 산 지 오래 아이 되었습메.

노파 그렇기 좋아하는 바다면 어째 떠났소?

나그네 바다일이 사람 마음대로 되어야 말이지비. 떠나구 싶어서 바다를 떠나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소.

노파 그럼 고향이 여깁메?

나그네 아이, 아이오. 여기하군 가까워두 하룻길은 더 되오.

노파 아 이제 알겠다이. 고향가는 길에 들렸구만. 내일 새벽엔 고향으로 떠나겠구만.

나그네 고향엔 갈 수 없습메.

노파 어째서?

나그네 더 묻지 맙세.

노파 아이 묻겠소. 그런데 고향을 떠난 지 몇 해나 되었소?

나그네 어지 같은디 벌써 십 년이오. 십년.

노파 십 년이라 그럼? 고향은 어째 떠났소?

나그네 (대답이 없다.)

노파 무슨 나쁜 일이라두 했습메? 죄를 지었는가 이 말입메.

나그네 죄를 지은 것은 없지만 죄를 지은 기나 다름이 없지비.

노파 죄를 지은 기나 다름이 없다이..... 고향에서두 장새를 했습메?

나그네 바닷가에서 무스래 장새를 하겠습메? 배를 타쟁구.

노파 한번 배를 타면 배를 등지기 아이 되는디 나그네는 어째서 바다
를 등겼습메?

나그네 그래서 이렇게 바다 앞에 왔습메마는... 물으로 다시 기어 올라
가 봐야겠소.

노파 나두 십 년 전에 아들을 하나 바다에 내어보냈지비. 다시 아이
돌아와두 가아는 그기 장한 아아지비. 장하구 말구.

나그네 그때가 스물다섯 살 때였습메. 스물다섯에 뜻배긴 해두 개량선
을 하나 갖고 있었으니 나두 그 나이엔 성공한 셈이었지비.

노파 어째서 바다를 떠났는가 말이오?

나그네 풍랑을 만났습메, 풍랑을.....

노파 십 년 전 설달에 있었던 그 풍랑 말이오?

나그네 네, 아흐래 밤과 낮을 바다에서 떠돌아 다녔습메.

노파 나그네도 그 배에 타고 있었소?

나그네 난 그 배에 선장이었소. 배가 고파 기진맥진하여 죽은 사람, 물
이 먹구실어 바닷물을 퍼먹구 죽은 사람. 모두들 고생만 하다
죽어 갔지비.

노파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났습메?

나그네 젊은 아아 하나는 시퍼런 바다를 보구 구조선이다, 구조선이다
하구 바닷물에 뛰어들어 죽구 말았지비.

- 노파**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났는가 말입메?
- 나그네** 선원들이 하나 둘이 쓰러질 때마다 나두 죽으려구 했지비. 더러
 버서, 책임이란 기 무시긴지? 살아 있는 사람 때문에 죽지두 못
 하구 있다가 혼자서 살아났다 말이오. 이렇게 혼자서.
- 노파** 잘 되었지비. 살아서 또 바다에 나가야지비.
- 나그네** 일본 배에 구조되어서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엔 나두 그렇
 기 생각했소. 그렇지만 난 혼자서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소.
- 노파** 고향엔 부모두 있구 처자식두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
 아했겠습메? 그렇지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왔다는 것은
 이런거 두구 하는 말이지비.
- 나그네** 내 배에서 죽은 선원들의 가족은 어떻게 하겠습메? 어떻게 그
 가족을 다 맥이 살리구 그들의 처신을 들겠습메?
- 노파** 그렇지비. 그것들을 생각하면 이러지두 저러지두 못하지비.
- 나그네** 죽지 못해 살면서 생각하면 고향 주위에만 빙빙 돌면서 장새를
 했소. 십 년 동안이나.
- 노파** 고향 소식은 자주 들었습메?
- 나그네** 원치 외진 곳이라서.....
- 노파** 내일 새벽엔 고향에 가봅세.
- 나그네** 가보니 무스걸 하겠습메.
- 노파** 바다로는 다시 아이 나가겠습메?
- 나그네** 어째 아이 나가겠소?
- 노파** 잘했습메, 뱃사람은 무시기 무시기 해도 뱃일이 제일이지비.
- 나그네** 아마에 고맙소. 이 야밤에 갈디도 없는 사람을 쉬게 해줘서.
- 노파** 갑자기 무슨 소리하는 겁메?
- 나그네** 이전 일어나 봐야겠습메.
- 노파** 일어나다니?
- 나그네** 주인 양반도 없는데 딴 데 가서 잠자리를 구해야지비.
- 노파** 염례 말구 그냥 있습세.

나그네 가야 되겠소.

노파 있으라구 하재오.

나그네 난 날이 밝기 전에 가야합메.

노파 가만 좀 있습세. 아무래도 이상하오. 아아들 애비가 이상하단 말입메.

나그네 무슨 말입메?

노파 큰일이오. 큰일이라구.

나그네 집의 배가 무슨 사고라두?

노파 좋지 않은 꿈을 꾸었답메. 가지 맙세.

나그네 어떤 꿈인데 그러오?

노파 바다에서 죽은 지 시아버지가 바다 끝까지 가는데 힘이 모자란 다구 지 시나를 내어 놓으라구 하더랍메.

나그네 그 소릴 듣구 바다에 나갔습메?

노파 들었지비.

나그네 오늘은 바다에 나가지 않을 걸 그랬습메.

노파 그렇지만 그건 꿈이었습메, 정말이라구 해두 할 수 없지비. 바다에 있는 지애비가 부르는데 아이 갈 수 있습메?

나그네 나가지 말 걸 그랬소.

노파 가지맙세. 배 들어올 때까지만 있습세.

나그네 날이 새기 전까지 있어 달라면 있겠습메, 그리 걱정은 맙세. 만 선할 꿈인 것 같기두 합메.

노파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메? 옛날에두 간나 그런 꿈을 꾸더니 지 시나를 잡아 먹었지비.

나그네 이전 바람두 좀 자는 것 같소. 이지 곧 배가 들어올 기오.

노파 자기는커녕 점점 더 지랄이오.

쌍가매 (급히 밖에서 뛰어 들어오며) 아마에, 아마에.

노파 어쩐 일이니?

쌍가매 아마에, 나그네두 아직 아이 자구 있구만.

- 노파 무슨 정새나서 이렇게 뛰어다니니?
- 쌍가매 배가 들어오오, 배가.
- 노파 무시기?
- 쌍가매 배가 들어온단 말이오.
- 노파 정말 우리 배디?
- 쌍가매 아이 들어온 것 우리 배 말구 또 있소? 아아 애비 배가 맞소.
- 노파 웬디 밴지 뉘가 아니?
- 쌍가매 이거 어찌 자꾸 이러오? 뉘길 쟁취로 아오? 이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오, 우리 배가 맞소.
- 나그네 아즈마에 참 다행이오.
- 노파 하늘이 도왔구나.
- 쌍가매 예 하늘이 도왔소.
- 노파 바다도 인정은 있지비.
- 나그네 바람은 어떻소?
- 쌍가매 하늘에 별이 간가이 보입메다마는 바람은 여전하오.
- 나그네 무슨 바람이오?
- 쌍가매 마파람이 불다가 하뉘로 바뀔 모양이오.
- 나그네 그럼 날은 좋아지겠구만.
- 노파 배는 부두에 닿았니?
- 쌍가매 조금 있으면 닿을끼오.
- 나그네 이만큼 쉬었으면 난 가봐야 되겠습메.
- 쌍가매 가시겠소?
- 나그네 편히 쉬게 해줘서 고맙소.
- 쌍가매 이 난리통에 쉬긴 어렵겠소, 조금만 있으면 날이 셀텐데
눈을 좀 붙입세, 아침이라두 자시구 가야지비.
- 나그네 맴같아서는 쥐 양반두 만나 보구 싶지만 원치 갈 길이 멀어서.
- 노파 길이 바쁜가 보다.
- 쌍가매 그래두 어디 그렇소? 손님인데 뱃두 한끼 대접 못해 드리구 이

기 무시김떼?

나그네 아즈마에 맴만도 고맙소, 내 밥을 먹은 걸루 알고 가겠소.

쌍가매 난 폐러분 양반 다 보겠다이. 오자마자 가겠다, 가겠다, 그렇기
갈끼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지비.

노파 바쁜가 본데 이 다음 지나는 길이 있으면 들려줍세. 보면 알겠지
만 여긴 사람이 그리운 딘데. 이것두 인연이 아이겠습메? 지나
는 길이 있으면 꼭 들립세. 그래 뜻뜻한 뱈이랑 해 잡숫구 갑세.

나그네 아마에 고맙소.

노파 배는 어디 가서 타겠습메?

나그네 돌아다니다 보면 마땅한 곳이 나설김떼.

노파 자 그럼 얼푸덩 가봄세.

노파, 나그네의 앞으로 가서 그의 손을 꼬옥 쥔다. 나그네는 노파의 손에
서 나와 쌍가매를 바라본다. 텔모자에 얼굴이 가려 있지만 희미한 호롱불
밑에서도 그의 눈은 빛나고 있다. 그는 속주머니를 뒤져 신문지에 쓴 것을
꺼낸다.

노파 갈까면 빨리 갑세.

나그네 (쌍가매에게 가서 주머니에서 꺼낸 것을 그에게 건넨다.) 변변치
는 않습메만 쉬고 간 값으로 이걸 받읍세.

쌍가매 이거 어째 이러오? 우린 고생하면서 살아두 남의 돈을 막 받진
않습메.

노파 그냥 넣구 갑세.

나그네 그래두.....

노파 나가라구 하재오?

조명이 어두워지면 나그네 도망치듯 밖으로 나간다. 쌍가매는 나그네의 뒤
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노파에게로 온다. 노파는 쌍가매의 시선을 피한다.

- 쌍가매**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소. 아마이는 아이 그렇습메?
- 노파** 듣기 싫다. 보긴 어디서 보겠니? 잰소리 말구 얼푸덩 부두에 나가자.
- 쌍가매** 아마에, 내 부두에 나가기 전에 아마인데 할 말이 있소.
- 노파** 할 말이 무슨 말인지 부두에 나가면서 하자. 배가 벌써 들어 왔겠다.
- 쌍가매** 길에서 할 말이 아입메.
- 노파** 그럼 이따 하자.
- 쌍가매** 지금 하겠습메. 아아들 애비 들어오면 다신 바다에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메.
- 노파** 무시기라구?
- 쌍가매** 아아 애비가 다시 바다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입메.
- 노파** 그건 아이 된다.
- 쌍가매** 아아들 애비가 바다에 아이 나간다구 입에 풀칠두 못할 줄 아오? 나두 옛날하군 다르오. 물에서 무슨 짓을 해서라두 아아들을 굽기지 않을 자신이 있단 말입메.
- 노파** 너는 이제까지 아아 애비가 바다에 나간 것은 입에다 풀칠을 못해서 나간 줄 아니?
- 쌍가매** 먹을기 아이문 그 무서운 바다에 어째 나가겠습메?
- 노파** 너어 아아 애비 형제하구 그들의 아버지 하고 또 할아버지하구 모두 먹을 것 때문에 바다에 나갔단 말이니?
- 쌍가매** 아바이들이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것 아이면 어째 바다에 나갔습메? 난 이전 멀기소리만 들어두 숨이 넘어갈 것 같습메.
- 노파** 알았다, 니 땜은 알았다. 아아 애비 들어온 다음에 얘기하자. 이 에미네야, 시나 뱃머리 나갈 생각은 아이 하니?
- 쌍가매** 어째 아이 하겠소? 빨리 나가오.

여부를 선두로 여섯 명의 선원들이 시신을 어깨에 메고 들어온다. 그들은
여부보다도 조금 뒤에 떨어져 있다.

- 여부 (두 어깨가 축 쳐져 있다.) 아즈마에,
- 노파 이기 뉘기니? 배가 벌써 부두에 들어왔니? 고생했다. 고생했어.
- 쌍가매 아아들 애비는 어디 있습메? 부두에서 나를 기다립메?
- 여부 아즈마에.....
- 노파 어째 이렇기 맥이 없니? 배가 고풀 모양이구나. 그렇지비 멀기통
에 지약두 못해 먹었겠지비.
- 쌍가매 괴기는 마이 잡았소?
- 노파 저기가 앉아 있어. 내 에미하구 뱃머리에 얼푸덩 다녀와서 지약
을 줄게. 괴기랑 쟁기를 날라야 될기 아이니?
- 쌍가매 그렇게 하오.
- 여부 서이미, 선장 서이미는 죽었습메. 우리하구 여기 이렇기 같이 왔
습메.
- 노파 야 이 간나 새끼야 무슨 소리하는 거니?
- 쌍가매 죽긴 뉘기 죽었단 말이오?
- 여부 서이미, 선장 서이미 죽었소.
- 쌍가매 아아들 애비가 죽었단 말이오?
- 여부 (동료들이 메고 온 시신을 가리키며) 여기 이렇기 왔재오?
- 노파 이 간나 새끼들아. 뉘기 우리 아아 애비를 이렇기 했니?
- 여부 뉘기 그러긴 뉘기 그러겠소. 바다가 한 걸 우리가 어떻기 하겠소.
- 쌍가매 에구 나는 이전 어찌면 좋겠니? 내 이기 무슨 팔재니?
- 여부 너무 상심마오. 이전 아아들두 다 켰재오?
- 노파 이 이미네야 니 무스결 하니, 빨리 나가라.
- 쌍가매 어마에, 너무하오, 내 이기 무슨 팔재오.
- 노파 너무 한기 아이다. 나가라 나가서 아까 그 사람을 찾아와야 된
다.

쌍가매 그 사람을 찾아와서 무스걸 하겠다고 그러오?

노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쌍가매 이 난리에 오망쓰오?

노파 야 이 간나야, 어찌 말을 아이 듣니? 빨리 나가서 그 사람을 다려와야 된다. 나그네를 찾아야 된단 말이다.

쌍가매 난 못 나가겠소. 처음 보는 사람을 불러다 어쩌자는 거요?

노파 야, 이 눈먼 쟁취 같은 간나야. 그기 어찌 처음 보는 사람이니? 그기 너이 서방이다. 십 년 전에 바다에 나갔다 아이 돌아온 너이 서방이다. 이 간나야.

쌍가매 아이 그러문 그 사람이.....

노파 너이 아이들 애비다, 날래가서 데려와야 된다. 날래 잡아야 된다.

쌍가매 그이가.

노파 날래가서 찾아라.

쌍가매 아! (울음 같은 절규를 뒤에 남긴 채 밖으로 뛰어나간다.)

노파 야 이새끼들아, 뉘기 시신을 여기 가져오라구 했니? 뉘기? 대답을 해라. 대답을.

어부 물에서 자겠다구 뱃전을 따라 오는 걸 어떻게 하겠소?

노파 (시신을 가리키며) 야아는 물에서 자겠다구 할 그런 아아가 아이다.

어부 어마에.

노파 야, 이 새끼들아 늙은이 말은 아이 듣겠니?

어부 땅을 맑은 시신을 어떻기 바다에 다시 내어보내겠소?

노파 빨리 나가. 내 눈에서 보이지 말아. 내 말 아이 듣겠지? 내 죽는 꼴 보겠니?

어부 (시신을 향하여) 서이미 바다로 갑세. (그들은 다시 바다로 나간다.)

노파 나가라. 가서 거기서 살아라.

음악이 흘러나오며 막이 내린다.

붉은勳章

作 최재도

등장인물

장일권 : 1922년생. 전직 인민군 고급장교. 함경도 출신.

이수향 : 1931년생. 장일권의 아내. 속초 출신.

장동선 : 1957년생. 장일권의 큰아들. 어민단체 간부.

장동후 : 1960년생. 장일권의 작은아들. 은행 간부.

주대석 : 1923년생. 장일권의 친구. 함경도 출신.

엄형사 : 1930년생. 공안 담당 형사.

엄모친 : 엄형사의 모친.

최수하 : 1951년생. 월북자 가족. 속초 출신. 버스 기사.

할머니 : 최수하의 할머니

황홍연 : 1939년생. 함경도 출신. 남북경력자.

학수, 상현 : 공산포로

어린 동후 : 5-6세.

시기 및 장소

1999년 속초

제1장

막이 오르면, 빈소(殯所). 아직 문상객은 없다. 상복(喪服)을 입은 동선, 통화 중이다. 편 조명에 의해, 동후의 침실이 드러난다. 무척 짜증스런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다.

- 동선 (조심스럽게) 와야 되지 않겠냐, 동후야?
- 동후 ...
- 동선 바쁘냐, 회사 일이?
- 동후 ...
- 동선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 동후 (퉁명스럽게)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 동선 어떻게…라니?
- 동후 어디다 묻으실 거냐구요?
- 동선 ‘망향동산’이지, 뭐. 군민회 총무한테 얘기해 놨다.
- 동후 북청군민회 망향동산? 토성면 탱크부대 옆에 있는?
- 동선 그래, 개울 건너 저 편 쪽으로.
- 동후 (빈정대는) 좋은 나라군요. 아버지 같은 분이 묻힐 곳이 다 있다니.
- 동선 통일되면 고향 땅에 옮겨 드려야지
- 동후 고향땅? (격분하며) 그럼 지금 보내세요, 당장.
- 동선 ...?
- 동후 북으로 송환하라구요, 시신을!
- 동선 ...동후야.
- 동후 (흥분한) 금강산 가는 유람선에 태워 보내세요! 북한에도 국립묘지가 있을 거 아녜요? 자기를 영웅 묻는 곳이 있을 거라구요! 아버지는 당연히 거기에 묻혀야죠! 그게 아버지가 바라던 바

아닌가요?

동선

...

동후

(빈정대는) 하긴, 유람선 취항도 반대했으니 거기 탈 면목도 없겠지.

동선

…내려올 거냐?

동후

...

동선

임종은 못 지켰어도 장례는 치러야 할 거 아니냐? 애들하고 같이 내려오너라.

동후

...

동선

…와야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동후

...

동후 침묵하는 동안 암전. 어둠 속에서 적기가(赤旗歌)가 울린다.

제2장

흔란스러운 조명과 치열한 전장 소음(戰場 騷音).

조명 속에서 드러난 인민군복 차림의 장일권. 인공기(人共旗)를 들고 있다.

일권

(고함) 돌격하라! 돌격하라! 고지를 점령하라! 남조선의 해방이 코앞에 있다! 우리의 피로써 미제를 물아내자. 우리의 목숨으로 남조선을 구해내자. 돌격하라! 돌격하라! 조국 통일의 사명을 저 고지에서 완수하자!

전장 소음 멈추고 장일권에게만 편 조명. 부동자세로 상을 받고 있다.

- 소리** 조선 민주주의 인민해방군 육군 소좌 장일권. 귀관은, 헌신적인 투쟁으로 조국 통일 과업에 앞장 서 남조선 괴뢰 1개 사단을 궤멸시킴으로써 조국 통일에 크나큰 기여를 하였기에, ‘인민 전사 영예 훈장’을 수여함과 동시에, 일 계급 특진을 명함. 1950년 8월 25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총사령관 김일성.
- 일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김일성 총사령관 동지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

적기가(赤旗歌)가 장엄하게 울리는 가운데, 장일권의 만세 소리 이어진다.
암전.

제3장

점등되면, 장일권의 빈소. 문상 중인 사람들. 동선은 정중하게 문상객들을 맞고 있으나, 동후는 문상객들과 한 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 대석** 통일전망대?
- 수하** 한, 두어 달 됐을 거예요. 그날, 내 버스를 타시더라고요. 통일 전망대 가신다면서.
- 대석** 그 아바이가 뭐 하려 거기까지 갔음매?
- 수하** 제가 여쭈어봤죠. 이 추운데 뭐 하려 가시느냐고.
- 대석** 그랬더니?
- 수하** 겨울에 금강산이 더 잘 보인다나요. 사람도 덜 붐비고.
- 수향** 통일전망대를 다녀오셨구나… 그 이후 몸저눕더니, 영영 못 일어났어.

- 수하** 그 날 엄청 추웠거든요, 날씨는 화창했지만. …하루종일 찬바람을 쐬셨으니.
- 대석** 수구초심이라 하지 않디야. 니 아바이도 죽을 때가 된 걸 안 모양이다아. 고향 하늘이 그리웠나보지비. 통일전망대를 다 가고.
- 동후** (취한. 빈정대는) 고향이 그리운 게 아니라, 빨갱이들이 그리웠던 거겠죠. 옛 동료들이 몸서리쳐지게 그리웠겠죠.
- 대석** 오래 떠나 있으면 고향이 그립고, 나이가 들면 짚은 시절이 그리운 법이다아. 이해합세, 우리. 누구든 향수가 있기 마련이지비.
- 동후** (격한) 그건 향수가 아니라 망상입니다, 지금도 자기가 인민군 장교인 줄 아는! 술만 취하면 아무한테나 호령을 해대지 않았습니까. (장일권의 흉내를 내며) ‘돌격하라! 돌격하라!’ 대체 어디로 돌격하라는 겁니까? 누구를 때려부수라는 거죠? …결핏하면 인민군 노래나 부르고.
- 수하** 사실 네 아버지가 그 노래 부르고 다닐 땐 나도 조마조마했다.
- 대석** 할 줄 아는 노래가 그것밖에 없어 그렇다잖느냐이.
- 동후** 그 흔한 남한 노래 다 팽개치고 북한 혁명가만 부르는데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 대석**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하다아.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노래를 부르고 다님매.
- 동후** 국회의원 출마하겠다고 한동안 설쳐댄 거 기억나시죠? 제정신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 동선** (다가와 타이르는) 동후야, 상주가 그렇게 술을 마시면 어떡하니? 문상객들이 계속 오시는데.
- 동후** 상갓집에서 술 안 마시면 대체 뭘 해요?
- 동선** 남의 상갓집이 아니잖니.
- 동후** 상주가 취해야 조문객도 취하죠. 작별이 서러운 사람은 슬퍼서 마시고, 후련한 사람은 기분 좋아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수

- 하 형님 한 잔 드세요. (따르며) 한 잔 합시다. 어차피 갈 사람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동선** 동후야, 이미 술이 과했다.
- 동후** 과해요, 제가? 오히려 전, 왜 형님이 오늘 같은 날 왜 이러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날은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구요.
- 동선** 그만 해라. 어디 가서 눈 좀 불이고 와.
- 동후** 자라니요? 아버지 가시는 길에 아들이 어찌 잠들 수 있습니까. 작별하는 마당에, 아버지한테 할 얘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철들고 나서, 우리 부자(父子) 몇 번이나 대면했습니까. 쌍인 얘기 좀 하자구요.
- 수향** (다가와) 동후야, 형 말대로 해라!
- 동후** 아이고, 불쌍한 우리 어머니. (수향을 안고) 불쌍한 우리 어머니, 어쩌다 뺨갱이 남편을 만나 한평생 이 고생을 하셨어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
- 동선** (단호하게) 동후야, 너 무슨 짓이냐 !
- 동후** …왜요? 위대한 혁명 전사를 읽고 슬픔에 잠겨 있는 여인을 위로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 동선** 자중해라. 여기는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자리다.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 동후** 자식을 생각지 않는 아버진데, 우리가 왜 아버지를 생각해야죠? 최소한 돌아가시기 전엔 자식들에게 잘못을 빌어야 했던 거 아닌가요? “나야 소신 때문에 그랬다손 치더라도, 너희들까지 고생시켜 정말 죄송하다”고, 유언이라도 남겨야 옳지 않았겠느냐고요!
- 동선** 우리야말로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가 문제, 아버지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말이다.
- 동후** 우리가 왜 생각을 안 해요? 아버지를 단 한순간도 의식하지 않

고 살아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뺨갱이 아버지를 머릿속에서
지워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한평생 죄책을 달
고 살았는데, 왜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형!

수향, 조용히 돌아 우는 가운데, 암전.

제4장

점등되면, 1978년 속초 청호동 장일권의 집. 일권과 대석, 마루에 앉아 술
을 마시고 있다. 술상엔 술병만 덩그마니 놓여 있다. 대석, 처마 끝에 걸린
명태 걸어내 북북 찢어 안주로 삼는다.

- 대석 일권아이. 내 은혜 절대 잊어서는 안되지비. 반공포로로 새 삶
을 찾게 해 준 건 바로 나란 말이다이.
- 일권 이 반동! 남조선에서 이렇게 거지꼴로 사는 게 새 삶이란 말임
매?
- 대석 남쪽에 정착했으니 이만큼이나 사는 줄 알라이. 이승만이가 반
공포로 석방 안 해주었으면 어찌 할 뻔 했음매?
- 일권 포로면 다 송환해야지, 풀어주는 건 또 뭐라이. 풀어줬으면 제
대로 대우를 해 주던가.
- 대석 물에 빠진 놈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임매.
- 일권 제네바 협정도 모름매? 전쟁이 끝나면 포로는 본국으로 다 송
환하도록 되어 있다이. 뒤로 몰래 빼내는 건 엄연히 협정 위반
이다이.
- 대석 안 그랬으면 너는 수용소 안에서 죽었다이. 그때 친공 캠프에

서 반 주검이 된 걸 내가 반공 캠프로 옮겨와 살려냈지 않았느냐 말이다이.

일권 나는 거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었다이. 네 놈이 나를 끌고 포로 수용소를 빠져 나온 기, 그기 잘못되었다 이 말이다이.

대석 배은망덕한 놈. 네 놈이 이 남한 땅에서 장가들고, 이만큼이나 자리잡고 사는 게 다 누구 덕분임매? 내 남한 일가친척 아니었음 어찌 할 뻔했음등?

일권 헛소리 말라이. 내 인생을 망친 게 네 놈이라이. 반동분자 새끼 땜에, 내가 남조선에서 이 고생이라이.

대석 북으로 갔어도 처형받았을거다이, 넌.

일권 (흥분하며) 무슨 소림매? 인민영웅이 되어 있을 거다이. 북조선 인민을 영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을 검매.

대석 누가 네 놈을 알아주겠음매?

일권 낙동강 전선 유학산 전투. 그 공로만으로도 난 인민영웅 칭호 받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이.

대석 그게 다 우리 국군을 많이 죽였다는 말 아님매? 그런 소리 함부로 떠들다간 여기선 맞아 죽는다이.

일권 1개 대대 병력으로 1개 사단병력과 맞서 물리친 건 세계 전투사에서도 보기 드문 전과(戰果)지비. 6.25 최대 전공(戰功)이라 하지 아니함매.

대석 사람 많이 죽인 게 자랑임매?

일권 전쟁 중에 전선에서 직접 훈장 받기는 내가 처음이다이.

대석 김일성이한테 받은 훈장은 여기서는 못 써먹음매.

일권 그러기 나는 돌아가야 한다이. 인민의 영웅이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을 수는 없다이.

수향, 안주 챙겨 등장한다.

- 대석** 동선이는 어디 갔음매?
- 수향** 원양어선을 타고 싶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고 있어요.
- 대석** 원양 어선? 앞바다를 두고 무시기 원양선임매?
- 일권** 먼바다도 나가보고 너른 세상도 돌아보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니? 원양어선 타면, 돈도 많이 번다던데.

엄형사 등장한다.

- 대석** (놀라) 아니, 엄 형사님이 웬일임매?
- 형사** 팔자 좋구먼. 대낮부터 술탄령이고.
- 대석** 한 잔 하겠음매?
- 형사** 근무 중에 술 마시는 거 봤어?
- 수향** 무슨 일로 우리 집엘 다?
- 형사** 동후, 집에 있어요?
- 수향** 동-후요? 동후를 왜?

동후, 방에서 나온다.

- 형사** (책망하는) 어찌자고 이런 짓을 했어?
- 동후** ...
- 수향** ...?
- 형사** 머리가 좋다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 사관학교는.
- 수향** 사관학교?
- 형사** 신원불량자들은, 필기시험 성적이 아무리 우수해도, 사관학교 입학이 불허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지.
- 동후** ...
- 형사** 어쩔 수 없다. 신원관리 대상자라고 회신할 수밖에.
- 동후** ...

- 일권** (놀라) 사관학교라니? 남조선 사관학교?
- 수향** 사관학교 시험을 쳤다고요, 우리 동후가? (상황을 파악한 후)
아이고, 엄 형사님. 우리 동후가 공산당 잡겠다고 사관학교에다
원서를 낸 모양인데, 신원이 나빠 못 간다더니, 그게 말이 되오?
죄가 있으면 애비가 있지, 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소? 엄 형사님
한번만 봐 주소.
- 형사**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빨갱이 아들을 대한민국 장교로 세울
수는 없지 않소.
- 수향** 그렇다고, 아들까지 이러면 쓰오?
- 형사** 까마귀는 지 애비 때문에 까만 거고, 백로는 그 애비가 희기 때
문에 그런 거요. 저 애도 마찬가지 아니겠소?
- 수향** 동후가 어째 빨갛단 말이오? 저 아이가 누구 핏줄을 (중단하
는).
- 형사** (멈칫하다, 동후에게) 애당초 못 오를 나무다, 포기해라. (수향
에게) 동선이도 원양어선 타겠다고 신원조회 의뢰했던데, 왜 그
다지도 정신들을 못 차리는 지 모르겠어.
- 수향** ...
- 형사** (고갯짓으로 장일권을 가리키며) 저렇게 새빨간데, 어떻게 신원
조회를 통과한단 말이오?

엄 형사 퇴장한다.

- 일권** (분노를 억누르며) 왜, 그런 짓을 했느냐이? 식구들도 모르게.
- 수향** 응변대회 나간다더니, 사관학교 학교 시험을 치고 온 모양이구
나. 어째 그런 짓을?
- 동후** (더듬거리며) 그럼, 전, 한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형처럼 오징어잡이 배나 타야 한단 말입니까?
- 대석** 왜 하필 군인이 되려고 합매?

- 동후** …속죄하려고요. 아버지의 죄를 저라도 씻어야 될 거 아녜요.
그래야 우리 집안도 빨갱이 집안이라는 원죄에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 일권** 속죄?
- 수향** 군인이란 게, 사람을 잘 잡아 죽여야 출세하는 직업 아니냐.
- 일권** (분명하게) 난, 출세하려고 사람 죽인 거 아니다이.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일념으로 민족해방전선에 참전한 거다이.
- 동후** (점차 분노하는, 장일권에 항의하는) 오 민족해방! 그렇죠. 그게 아버지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죠. 전쟁터에서 명장으로 이름 날리던 그 시절, 그 찬란한 훈장들 지금도 그립죠? 자랑할 수도 없는 훈장. 저 붉은 훈장 가슴에 달고 거리를 활보해 보시라고요.
- 일권** (뜻하지 않은 반항에 당황하는) …
- 동후** (홍분한) 제가 어떻게 학교생활을 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반공도덕 시간이 저한텐 고문이라고요. 현충일만 되면 몸살이 나곤 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고요. 수류탄을 꺼안고 숭고하게 죽은 국군을 칭송할 때, 전 아버지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려요. 교련 시간이면, 아버지한테 총부리를 겨누는 모습을 상상하곤 해요. 반공이 국가이념인 이 나라에서, 인민군의 아들, 이 장동후는 도대체 빨붙여 살 곳이 없더라고 말입니다! (퇴장)
- 일권** …(분노와 배신으로 한참을 떨다,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며) 모두들 준비하라이. 우리는 북조선으로 가게 된다이. 북조선으로 돌아가야 한다이.
- 수향** 월북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 일권** 월북이 아니라, 북조선 정부에서 우리를 모시러 온다 이 말이 지비. 인민의 해방을 위해 어린 시절부터 몸바친 나를, 늙고 병들도록 그냥 내버려두겠음매? 그 동무들이 나를 적지(敵地)에

서 죽게 내버려두지는 않겠스지비?

장일권, 관객을 향해 연설을 시작한다. 사뭇 비장하다.

- 일권 (강한 톤으로) 왜 쌀을 재배하는 농부는 쌀밥을 먹을 수 없고, 왜 비단을 짜는 여공은 비단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게 다 봉건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때문입니다! 나는 일본제국 주의자들과 20년을 함께 살았고, 공산주의자와 6년을 함께 지냈습네다. 물론 자본주의자들과도 20여년을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오로지 공산주의만이 이런 모순을 극복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수향 (중복되며, 놀라) 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거예요? 당신 정말 미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대체?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 일권 (연설 계속하는) 우리 조선 인민 모두가 명실상부 이 땅의 주인이 되는 세상, 그 진정한 민주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조선인민 민주공화국은, 단일국가를 이루며 단란하게 살았던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받았습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의 반쪽을 빼앗겨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 시키고….
- 수향 (중복되며) 이봐요, 동선이 아바이. 정말 왜 그래요? 누가 들으면 어찌려고.
- 대석 일권아이 문 좀 열어봐라.
- 수향 이보오, 아바이.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온 집안 식구 다 불잡혀 간다구요.

연설 진행 중인 상태에서 암전.

제5장

점등되면, 동후와 수하, 빈소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며 서 있다.

동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의지해 살 수 있겠어요, 안 그
 래요, 수하 형?

수하 …아비 없이 자란 우리보단 낫지, 그래도.

동후 나아요? 자식들한텐 해만 끼쳤는데도요? 아버지 때문에 온 가
 족이 따돌림을 받았다고요. 우리하고 어울리면 행여 간첩 누명
 이라도 뒤집어 쓸까봐 기피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
 짜로 빨갱이 행세를 하면서 당국의 끄나풀 노릇을 하는 거라
 의심했고. 그러면서도 당국의 감시는 감시대로 받고.

수하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따돌림이나 감시는 우리도 너네보다 덜
 하지 않았어.

동후 …?

수하 월북자 가족도, 똑같이 취급했거든. 늘 색안경을 끼고 감시했으
 니까.

동후 ...

수하 나 같은 놈은 일기를 써도 불온선전물이라며 패고, 시(詩)라도
 쓰면 북에 보내는 암호문이라고 패니. 글쓰기는 애시당초 포기
 하고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지금도 빨강색만 보면 섬뜩하다. 빨
 강은 멈추고! 파랑은 달리고! 우리같이 빨간색으로 낙인찍힌
 놈들은 무조건 멈춰야 해!

동후 왜 우리네 아버지들은 그런 선택으로 자식들에게까지 고통을

넘겨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 동선 (끼어들며) 수하 형네 아버지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해방되었을 땐 여기가 이북 땅이었으니까. 해방 조국의 역군으로 나서야 마땅한 거 아니야? 그러다 전쟁이 났고, 남한 군대가 들어오니, 붉은 완장을 찬 수하 형네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인민군을 따라 북으로 간 거야. 가족들을 남겨 두고.
- 동후 (빈정대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많았던 우리 아버지는 남한에 정착한 거군요? 자기를 알아주는 북쪽을 버리고.
- 동선 그 어디든, 동족이 머무는 땅 아니더냐?
- 동후 그 어디든, 아버지 같은 반역자가 머물 곳은 없었던 겁니다.
- 동선 …남과 북 모두, 이 땅의 애국자들을 제대로 대우해 줄 수는 없었을까.

암전.

제6장

점등되면, 80년대 속초 뒷골목. 수하 할머니가 쓰레기통을 뒤져 빈 병을 모으고 있다. 일권과 대석, 술 취한 채 등장한다.

- 일권 (등장하며) 수하 할마이 아님매? 그 어두운 데서 뭐 함매?
- 할머 아무 것도 아니야.
- 대석 (의아한) 그거 빈 병 아님매? 병을 모아 뭐에 쓸려고 그럼매?
- 할머 뭐, 그냥, 심심풀이로.
- 일권 병을 주워 팔라 그럼매?

- 할머 ...
- 일권 (한숨) 하. 이보오, 수하 할마이. 어찌다가 할마이가 아래 됐소?
이 동네에서 제일 명문가(名文家) 아니었음매.
- 할머 ...
- 일권 일제 때 고보(高普)까지 나온 신여성 아님매, 수하 할마이가.
- 할머 옛날 얘기지, 뭐.
- 일권 그런데 어찌 말년이 이 꽂이다이? 일제 때 독립운동하던 할아버지
는 말년에 양말 행상을 하더니, 이제는 혼자 남은 할마이
가 공병 주우러 다닌다이.
- 할머 다들 그렇게 살잖아.

수하, 등장한다. 퇴근길이다.

- 일권 (점차 울분) 아들 놈 월북했다고 숫제 반역자 취급을 한다이.
민족을 위해 투쟁한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말이다이.
- 할머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아, 동선 아버지. 사람들이 빨갱이라
면 아주 질색을 해.
- 일권 남편은 독립투사, 아들은 민족해방의 역군. 그런데도 이 나라에
서는 그 가족을 적대시한다이. (울분에 잠긴 채, 상념에 젖는.)
- 할머 그 사람들한테 좀 시달렸나, 모두들. 그러니 그러지.
- 수하 (책망하는) 할머니 또 병 주우러 나왔어요?
- 할머 ...
- 대석 니 별이가 신통치 않다는 건 알지만, 할마이를 이리 고생시키면
되겠니야?
- 할머 시키긴 누가 시켜? 심심해서 나온 거지.
- 수하 사서 고생이죠. 집 팔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 대석 집을 팔다니?
- 수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우리 집을 팔라는데, 할머니가 한사

- 코 반대하시잖아요.
- 대석 (할머니에게) 어찌 그럼매? 그거라도 팔면.
- 할머 그건 안 돼, 절대로.
- 대석 왜? 왜 안 팔라 그러는지 모르겠음매.
- 할머 얼마나 실망하겠어? 옛집은 간 곳 없고 볼썽사나운 아파트만 덩그마니 서 있으면.
- 대석 실망? 누가 말임매?
- 할머 우리 아들. 북에 간 우리 큰아들. 통일이 되기만 하면 단결음에 달려올 텐데.
- 일권 ...
- 할머 난 지금껏 기왓장 하나 바꾸지 않았어. 집 모양이 달라지기라도 하면 행여 우리 아들이 못 찾아올까 봐.
- 일권 ...
- 할머 사흘 후에 돌아올 거라며, 부엌에서 찬 밥 한 숟 떠먹고 황급히 떠난 내 큰아들이 집을 못 찾으면 큰일 아니겠소?
- 일권 ...(눈물 글썽이는)
- 할머 우리 집이 왜 온통 장미 투성이인 줄 아오?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오. 향기도 짙고 색깔도 진해서 멀리서도 금방 알아볼 수 있지. 이걸 마당 가득 심어놔야 우리 아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지 않겠소. 저기 저 바다에서 보나, 저기 저 산 위에서 보나 우리 집은 금방 눈에 띌 거요. 안 그려오, 동선 아바이?
- 일권 (이윽고 울먹이며) 내 어찌, 거미줄 같은 가슴에 이슬처럼 맷혀 있는 이 설움을 헤아리지 못할 것임매?
- 할머 ...
- 일권 (울며) 수하야. 너는 이 자리에 보초처럼 서 있으라. 통일이 되는 날, 네 아바이가 돌아오면 할머니가 얼마나 애절하게 기다렸는지 똑똑이 얘기해 주라이. 네 아바이 덕분에 이 마을엔 오랫동안 장미 향기가 끊이질 않았다고 말이다. 아침햇살조차

이 거미줄의 영롱한 이슬방울을 거두어가지 못했다고 말이다
이.

(할머니에게) 이보 할마이. 이기 다, 혁명 과업을 완수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이. 할마이, 날 용서합세! 날 용서하기오!

적기가 흐르는 가운데, 암전
어둠 속에서 들리는, 일권의 군가 소리.

제7장

점등되면, 1969년 경찰 취조실. 위압적인 분위기. 일권과 대석이 끌려와
있다.

대석 (불안해하며) 일권아이. 이기 무슨 꼴이니? (화내며) 이게 다
니놈 때문이다이. (계속 투덜거린다.)

엄 형사 등장한다.

형사 장일권이! 이번엔 아주 노골적이더구먼. 인민군가를 불러?

대석 아이고 엄 형사님, 쟈가 술김에.

형사 닥쳐! 너도 공범이야!

대석 아니 엄 형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나는 절대로 안 불렀음매.
같이 술은 마셨지만, 나는 이 놈 보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막
았으지비.

형사 장일권이, 벌써 몇 번째야? 이렇게 끌려 다니는 게 지겹지도 않

야?

- 대석 그게 그러니까 엄 형사님. 내 말을 들어보기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 형사 시끄러! 뺨갱이 놈의 새끼들. 이번엔 못 빠져나가. 그냥 안 둘 거 야!

전화벨 울린다.

- 형사 골목길이 떠나가라 하고 혁명가를 불러대? 아주 환장을 했구만. (수화기 들며) 여보세요. 아, 예 검사님. 지금 조사 중입니다. 내일 넘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권을 쳐다보며) 제가 전에 말 씀드렸던, 예. 예. 그렇지만, 그 놈들 뿌리를 뽑으려면 필요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 건도 사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올라가 뵙겠습니다. 같이 해서 올리겠습니다. (전화 끊고, 다른 곳에 전화 거는) 아직 안 끝났어? 뭐라고? 이리로 보내. 지금 당장!

취조실에 황홍연 끌려 들어온다. 겁에 질려 있다. 고문으로 몸이 엉망이다. 다른 형사가 파일을 주고 나간다. 엄형사, 황홍연을 의자에 앉히고 서류를 뒤적인다.

- 형사 홍연이. 협조 좀 해 줘. 우리 쉽게 가자구. 응? 아니면 또 내려가든가.
- 홍연 (겁먹고 몸을 움츠리는)
- 형사 김호섭이 북괴 노동당원이란 건 언제 알았나?
- 홍연 …아님때, 우리 선장님은.
- 형사 (서류를 흔들며) 이미 자백했어. 부인해봐야 소용없어. (읽는다) “본인 김호섭은 소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노동당원

으로, 함경남도 이원군 출신으로 1.4 후퇴 때 피난민을 가장하여 월남한 후, 그동안 속초에서 어로에 종사하며 간첩활동을 해오던 중, 금번 1969년 1월 납북을 가장, 월북하여 6개월간 체류하면서 북괴 노동당 중앙당부와 접촉, 각종 지령을 받고 위장귀환하였습니다.” 지장 꽝!

- 홍연 절대로 그럴 리가-.
- 형사 (고문하며) 아니긴 뭐가 아니야.
- 홍연 우리는 그저 끌려간-. (고문으로 말을 잊지 못한다.)
- 형사 명태 어군을 쫓다 조류에 밀려 어로한계선을 넘었다?
- 홍연 사, 사실임때, 그건.
- 형사 왜 김일성이를 친양한 거야? 왜 우리 정부를 규탄한 거냐고?
- 홍연 친양한 것도 없고, 규탄한 것도 없지비. 그냥 그 사람들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 형사 하루 열다섯 시간씩 밀봉교육도 받았잖아?
- 홍연 잠도 안 재우고 일방적으로 그러니 우린들 어쩌겠...
- 형사 중앙당 간부도 만났다면서?
- 홍연 (고문에 신음하는)
- 형사 (고문을 멈추며) 중앙당 간부들이 왜 네 놈을 맞으러 김일성 광장까지 나왔겠어? 한 패니까 그런 거 아니야.
- 홍연 명소를 유람시켜주겠다며 우리를 평양 김일성 광장으로 끌고...
- 형사 (고문을 시작하며) 격려 품으로 쌀 두 가마를 받았지?
- 홍연 배에 실어주는 걸 어찌-.
- 형사 자기들 체제 선전하려고 그리는 건데, 그걸 왜 받아 오냐 말이야? 그걸 받아왔다는 건, 북한 체제가 우리보다 더 낫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야, 이거야!
- 홍연 (신음하는)
- 일권 (불쑥 나서며) 이보오, 엄 형사!
- 형사 ...

- 일권 여기 야는 아무 죄가 없음매.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지비.
- 형사 너는 왜 또 나서?
- 일권 아, 생각해 봅세. 간첩질이라는 게, 이쪽 정보를 캐다 저쪽에 갖다 바쳐야 하는 거 아님매? 저 무식하고 미천한 친구들이 무슨 수로 정보를 캘 수 있겠음매? 저 친구들 그저 입에 풀칠하려고 배타고 투망질이나 했을 뿐이다이. 터무니없는 죄를 그렇게 뒤집어씌우면 안 된다이.
- 형사 뭐야?
- 일권 이보오. 자들은 그저 1.4후퇴 때 열렬결에 피난 나와 여기서 괴기 잡아 벌어먹는 평범한 어민에 불과함매. 무식한 뱃놈들이 괴기잡이하다 조류에 떠밀려간 걸 가지고 그렇게 무거운 죄를 씌우지 말기오. 공산당이 미우면 그놈들을 때려야지, 왜 가여운 제 나라 백성들을 들고 패냐 그 말이다이. 그기 잘못된 것 아니겠음매?
- 형사 오라! 같은 빨갱이다!
- 일권 (홍분한) 이보오, 엄 형사. 여기서 빨갱이는 나밖에 없다이. 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 육군 중좌 장일권'임매! 인민공화국에선 내 직위를 아직 박탈하지 않았지비. 조선 인민을 해방하기 위해 투쟁한 놈은 바로 나란 말이지비. 나는 감옥에 가두어도 좋다이. 하지만 자들을 벌해선 안 된다이, 절대로!
- 형사 (격분한) 이 자식이 어디서 주동아리를!

둘 다 격분한 상황에서, 암전.

제8장

점등되면, 1970년대 엄 형사의 집.

엄 형사, 엄모가 김수향에게 쌀을 퍼주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엄모 한 되만 더 가져가.

수향 이거면 됐어요.

엄모 떨어지면, 또 와.

수향 번번이 죄송해서.

엄모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제부터 아무 걱정 마. 우리로
선 평생을 펴 줘도 그 은혜 다 못 갚아.

수향 무슨 그런 말씀을.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수향 퇴장한다.

엄모 (엄 형사에게) 니 아버지가 일본 놈한테 쫓길 때, 저 집 시어른
아니면 살아남지도 못했어. 그 후론 줄곧 독립운동도 같이 했
지.

형사 ...

엄모 북청에서 꽤 큰 부호였는데, 독립자금 대느라, 저 집도 결국 몰
락했어.

형사 (퉁명스럽게) 그런 집이 어디 한둘이에요? 우리 집도 그랬잖아
요.

- 엄모 장씨네야말로 진정한 독립투사다. 북한 정부도 그걸 인정해서 장일권이를 고급 장교로 등용했던 거고.
- 형사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여기선 빨갱이일 뿐이라고요.
- 엄모 네 입장이 난처하다는 건 안다. 하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아선 안 되지 않겠느냐.
- 형사 국가의 녹을 먹는 경찰이, 어떻게 그런 불온한 사람을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 엄모 불온하지 않다, 저 집 사상은.
- 형사 인민군 장교입니다, 장일권이는.
- 엄모 반공포로다.
- 형사 속까지 새빨간데, 무슨 반공포롭니까?
- 엄모 장일권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 이웃이 짖으면 그걸 그냥 보는 법이 없었다. 내가 그 집에 마지막 들렸을 때, 떠나는 나한테 쌀 한 말을 펴주더구나. 그때 그 집 곳간엔 쌀이 단 두 말밖에 없었다. 전 재산의 반을 털어 나를 준 거다. 장일권이네가 그런 집이야.
- 형사 그 얘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거하고 장일권의 이적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어머니.
- 엄모 그 은혜를 어찌 잊겠느냐?
- 형사 (답답한) ...
- 엄모 이 애미를 봐서라도, 그 친구한테 해가 가지 않도록 네가 보살펴 줘야 한다.
- 형사 제가 장일권이 죄를 눈감아주면, 그건 직무유기라고요.
- 엄모 어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단 말이냐?
- 형사 (충동적으로) 어머니, 우린 이미 그 은혜를 갚았습니다!
- 엄모 응?
- 형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진 빚을, 제가 그 아들인 장일권이한테 갚았단 말입니다!

- 엄모 …?
- 형사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할 장일권이를 구하려고 나도 몹쓸 짓을 했다고요!
- 엄모 무슨 얘기냐?
- 형사 검찰에다, 제 끄나풀이라고 거짓 보고했어요.
- 엄모 끄나풀?
- 형사 제가 정보원으로 쓰고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뺨갱이들 꾀려고, 일부러 장일권이한테 그런 짓을 사주시켰다고 했고요.
- 엄모 …
- 형사 그 대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넣었다고요. 장일권이를 살리려고, 그 뺨갱이를 살리려구. (말을 잇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장일권이 대신 감방에 있는 거라구요, 아시겠어요? 장일권이 때문에 저는 무고한 다른 사람들을 해친 거란 말입니다!

암전.

제9장

점등되면, 1970년대 속초 청호동 마을.

황홍연, 집수리 중이다. 벽에다 시멘트를 두텁게 겹쳐 바르고 있다.

대석과 일권 등장한다. 작업복을 입고 있다. 홍연, 계속 벽을 바르며 중얼댄다.

- 일권 (홍연을 보고) 저 놈아가 어찌 저럼매?
- 대석 자가 그때 고문당한 후로 저런다이. 돈만 생기면 시멘트 사서

바르고 또 바르고.

일권 뭔 놈의 집, 이리 자주도 손 봄매? 창문도 없애고, 벽도 이중 삼 중으로 바르고, 대체 어찌 이럼매?

대석 벽에 귀가 있다고 저러지 않음매? 자꾸 자기 말을 엿들어 일러 바친다고 말이지비.

일권 (홍연에게 다가가) 홍연아이, 너 또 뭔 짓이냐이? 왜 집을 빵카로 만드냐이?

홍연, 일권을 보며 깜짝 놀라며 자기 귀를 틀어막고 구석으로 가 몸을 웅크리고 벽에 기대어 앉는다. 벽과 대화하는 기이한 양태를 보인다.

일권 대석아이. 자, 지금 뭐라고 하는 검매?

대석 맛이 가서 저러지비.

일권, 홍연에게 다가간다.

홍연, 놀라면서 두 손을 쌍싹 비빈다.

홍연 빨갱이가 아니지비, 날. 붙잡아가지 말기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엎드려 울다가 갑자기 일어나며 일권을 향해 정색하며) 끄나풀, 너 끄나풀이지. (웃으며) 너 끄나풀 맞지비? (갑자기 얼굴이 굳으며 구석으로 가 앉아 벽에다 이야기한다)

일권 (놀라는) 대석아이. 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 임매?

대석 신경 쓰지 말기오. 미쳐서 그러는 긴데, 뭐이 신경 씀매. 생각해 보라이, 그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정신이 온전할 리 있겠음매. 감방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 처자식 다 떠나고. 쟤가, 저 모양이 안 되고 배기겠음. (일권을 끌며) 가자, 김 선주 또 난리 치겠다.

무대 반대쪽으로 이동하다, 발을 멈춘다.

- 일권 (생각하며) 끄나풀? 대석아이. 흥연이가 나한테 끄나풀이라고 했지비?
- 대석 미친 아가 하는 소리, 신경 쓰지 마라아. (눈을 피한다)
- 일권 (이상한 깜새를 느끼고) 아무래도 이상하다아. 그게 무슨 말이 지비?
- 대석 ...
- 일권 너는 알지? 말해 보라아!
- 대석 이 중간나 새끼.
- 일권 날래 말해 보라아!
- 대석 오해 말고 들어라이. 니가 엄 형사 끄나풀이라는 소문이 있는 건 사실이다아.
- 일권 무시기?
- 대석 흥연이 자들은 괴기 잡이하다 끌려가 3년을 살았는데, 너는 북괴를 그렇게 찬양하고 다니는 데도, 4개월 만에 풀려나지 않았음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음매?
- 일권 (충격 받는) 내가?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자들을 팔아 내 일신을 챙길 것임매?
- 대석 억울하게 처벌받았으니, 그런 오해를 할만도 하지 않겠음매?
- 일권 (좌절하며) 내가 반동의 끄나풀이라니, 반동의 끄나풀이라니!

암울한 음악과 함께, 암전

제10장

접등되면, 빈소.

- 동선 통일되면 당연히 고향 땅에 옮겨 드려야지. 한평생 고향을 그리셨는데.
- 동후 그쪽 사람들이 묘 자리 잡아 놓고 기다리기라도 한답니까?
- 동선 살아서 가지 못한 고향, 유골이라도 그 땅에 묻어드려야 옳은 거 아니냐.
- 동후 죽어서마저 이 땅을 임시 거처로 삼자는 말씀이세요? 그건 아닐 겁니다. 잠시라도 이 땅에 묻힌다면, 그 자체가 아버지에겐 치욕일 거라구요.
- 동선 치욕?
- 동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수복지구라고요. 38이북, 전쟁 때 우리가 되찾은 땅. 그러니 아버지한테는 여기가 적지(敵地)아닙니까. 적군이 점령해버린 땅. 적군한테 빼앗긴 땅이죠.
- 동선 ...
- 동후 살아서도 적의 땅에 머무는 것을 수치스러워했는데 죽어서 여기에 묻히려 하겠느냐고요?
- 수향 그럼 어찌자는 말이냐?
- 동후 화장(火葬)을 해야죠. 지우개로 지우듯 그렇게 깨끗하게 육신을 거둬가야지요.
- 동선 화장?
- 수향 불구덩이에 던져 넣자는 말이냐, 네 아버지를?
- 동후 차가운 땅 속에 묻히는 것보단 낫잖아요.
- 수향 원(怨)도 많고 한(恨)도 많은 사람을 어찌 육신마저 뺏으려 하느냐?

- 동후** 어둔 지하에 가둬두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어머니!
- 수향** 죽어서라도 이웃과 함께 단란하게 지내고 싶어할 게다.
- 동후** 죽어서까지 이웃한테 조롱 받게 할 순 없습니다.
- 수향** 최소한 부모 품엔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양반 부모들이 묻힌 선산까진 돌아가야 한다.
- 동선** 그래. 비록 살아서 가진 못했지만, 그 육신이라도 기필코 고향에 보내드려야 한다. 유골이라도 영웅 대접은 받아야 할 거 아니냐.
- 동후** 누가 아버지를 기억이나 해 준답니까? 그 사람들도 이미 아버지 따원 안중에도 없을 거라구요.
- 동선** 아버진 영웅이었어, 적어도 저쪽 사람들에겐.
- 대석** (천천히 다가오며.) ….
- 동선** (대석을 바라보며)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반동아저씨?
- 대석** 일권이 그 놈아는, 돌아갈 곳이 없다.
- 동선** 무슨 말씀이세요? 자신을 대접해 줄 북으로 돌아가야죠.
- 대석** 일권이 그 놈아, 나와 다를 바 없음매. 고향에 가도 반겨 줄 놈이 없지비.
- 동선** 여기와는 다를 겁니다. 여기서야 부두노동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거기선 인민을 다스리는 정치지도자가 되었을 거라구요.
- 대석** 어림도 없다이. 반공포로 딱지가 붙었을 때부터 이미 반동분자가 된 겁매.
- 동선** 한평생 자기 신념을 버리지 않았는데도요?
- 대석** 북으로 송환되길 거부했는데, 어찌 신념을 지켰다고 저들이 믿을 거란 말임매?
- 동선** 아버진 혁명전사라고요!
- 대석** 나하고 다를 바가 없음매. 북으로 갔어도 이미 총살당했을 겁매.
- 동선** 무공훈장을 받은 혁명전사를요?
- 대석** 니 아바이가 왜 포로 교환 때 북으로 돌아가지 못했겠음매? 내

가 구해내지 않았으면 그때 거기서 그 놈들 손에 맞아 죽었을 거라이.

동선 왜요? 위대한 민족 영웅, 뛰어난 혁명 전사인 아버지가 왜 저들 손에 맞아 죽는단 말입니까.

대석 ...

암전.

제11장

점등되면, 포로복 차림의 장일권. 1953년 거제도 포로수용소다. 뒤쪽에서 실루엣으로 보이는 박상현과 이학수.

학수 인민해방군의 영웅! 유학산 전투의 헌신적 행동으로 전사 영예 훈장을 받은 장일권 중좌! 우리는, 동무가 변절했음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오.

일권 난, 인민과 당을 배반한 적이 없음매.

학수 미 앞잡이들이 우리 인민전사들을 분해하려는 계획에 맞서, 의연히 일어나 굳건한 당의 충성심으로 송환 심사를 반대한, 제62구역 전사들에게 반당적인 연설을 한 것을 인정하오?

일권 연설을 한 건 사실이지만, 반당적인 행동은 아니었음매.

학수 동무의 그 행동은 당과 인민을 배반하고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요.

일권 이학수 동무!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인민공화국에선 남조선에 남겠다는 동무들을 사랑하지 않소. 혁명에 도움이 되지 않

는 동무들은 아무 필요가 없소. 그런 썩은 사상을 가진 반동들은 우리의 위대한 공화국에 살 가치가 없지비. 뜻떳한 사람들만 돌아가라고 했음매.

- 상현 장일권 동무! 우리가 비록 이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지만, 당에서는 이곳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소. 끊임없이 지령을 내려, 우리에게 투쟁을 계속하라 명하였소. 변절된 동무들은, 마땅히 인민과 당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하오.
- 일권 동무! 그들도 인민이지비. 우리 공화국을 위해 피 흘리며 싸운 전사들을 우리가 죽일 수는 없음매. 변절한 이유를 먼저 살피고, 회유하고 포섭해서….
- 학수 그게 바로 미 제국주의의 끄나풀이라는 결정적 증거요, 장일권 동무!
- 일권 끄나풀? 내가?
- 상현 뻔뻔스럽긴! 동무는 64포로병원에서 우리의 투쟁계획과 운영 방법, 게다가 조직까지도 모두 폭로했소. 우리의 전사인 첨보부와 유격지도부까지 말이오.
- 일권 박상현 동무! 그건 동무가 한 짓 아님매? 동무야말로 당과 인민을 팔아먹은 반동이지비. 수용소 소장인 콜슨에게 빌붙어 대체 뭘 얻었음매? 내가 알고 싶은 바이매, 그게!
- 학수 동무! 우리 공산당 총사령부를 모욕하지 말기오.
- 상현 장일권 동무. 동무의 반역행위는 인민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소. 인민해방군 총사령부는 동무에게 수여된 훈장은 박탈하고 동무를 인민재판에 회부할 거요.
- 일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가 어찌 반동분자임매? 내가 어찌 반동의 끄나풀이 될 것임매? 어찌 나를 이렇게 모함함매? 이 반동 놈의 새끼들!

암울한 음악과 함께, 암전.

제12장

접등되면, 빈소.

- 대석 ...
- 동후 (빈정대는) 그렇군요. 아버지는 결국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모두 버림받은 거군요. 애당초 돌아갈 수도 없는 고향을 그토록 그리워했던 거군요.
- 동선 ...
- 동후 (빈정대는) 이제야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말년에 우익으로 변신한 게 바로 그 때문이었군요. 어떻게 그렇게 극좌에서 극우로 급속히 변신을 할 수 있을까 했더니, 바로 그거였어요.
- 동선 극우로 변신하다니? 그건 무슨 말이냐?
- 동후 난동을 주도하셨잖아요. 금강산 유람선 취항 반대! 온 동네 노인들 선동해 시위를 주도한 분이 아버지 아니었던가요?
- 동선 ...
- 동후 한평생 민족통일을 외치고 다니던 분이 정작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을 만 하니까 어깃장이나 놓고. 왜 그러나 했더니, 이제야 이해가 되는군요. 돌아 갈 수 없을 땐 큰소리치다가, 막상 돌아 갈 시기가 다가오니 정체가 들통 날까 불안했던 거예요. 북으로 돌아가 봐야, 저들은 아버지를 민족배신자로 기억할 테죠.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실체였다고요!
- 동선 ...아닐 거다, 그건.
- 동후 그럼 뭐죠?
- 동선 아무 절차도 없이, 아무 과정도 없이, 슬그머니 세상이 바뀌어 버린 데 대한 분노 때문 아니었을까?
- 동후 그래요, 아버지로서는 억울했겠죠. 자신이 민족통일을 외칠 때

에는 그렇게 적대시하더니, 이제는 그게 옳다며 저들끼리 가고 있으니, 화가 날 만도 하겠죠.

동선 ...

동후 그렇다고 남한 사람들의 적개심을 부추기고 자존심을 건드려 북한과 계속 대립하기를 부추길 건 아니잖아요?

동선 ...

동후 (분노의) …반역자! 미치광이! 전쟁광!

동선 …그렇진 않다. 비록 성공은 못했지만, 아버지도 당당한 혁명가였다. 확고한 이념을 가진 사상가였고, 그걸 당대에 실현하려던 실천가셨다.

동후 몽상가에 불과하죠, 평생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나 꾸다 간.

동선 풍운아이시지. 실패했지만, 그 시도는 높게 평가할 만하다. 이 루지 못했다고 그 생각과 몸짓이 다 부질없는 건 아니잖냐?

동후 차라리 아무 짓도 안 했으면, 최소한 우리가 미워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동선 한번쯤은 실현을 꿈꾸어 볼 만한 이념 아니겠니? 공평한 분배를 이루자는 게 뭐가 나쁘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다라야 할 이상 사회 아니겠어?

동후 오, 형마저. 형도 아버지한테 세뇌되었군요. 이제 보니 실패한 건 아버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네요. 그토록 철저하게 반세기 동안 반공교육을 시켰건만, 여전히 빨갱이들이 판을 치니!

암전.

제13장

접등되면, 1996년 속초항 여객선 부두 일행, 시위 현장에서 돌아오는 중이다. 대석, 매우 격양되어 있으며, 정신이 온전치 않은 흥연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일권은 묵묵히 이를 행렬을 따른다.

- 대석** 우리는 아직 종전(終戰)을 안 했음매. 휴전(休戰) 중이란 말임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있다 이 말이지비. 그러니 아직도 북한은 우리 적입네.
- 흥연** 그렇지비, 그렇지비.
- 대석** 아 세상천지에, 적에게 군량미 갖다 바치며 적지(敵地) 유람을 간청하는 법이 어디 있음매? IMF인지 뭔지 때문에 나라가 거지꼴이 되었는데, 유람은 무슨 유람이란 말임매?
- 흥연** 그렇지비, 그렇지비.
- 대석** 금강산 유람이 그렇게 자존심 다 버리고 서둘러 나설 만큼 급한 일임매? 이거야말로 반역행위다이.
- 흥연** 풍랑에 휩쓸려 갔어도, 일부러 넘어간 거라고 우기지 않았음매? 얼마나 가혹히 처벌받았는 알고 있지비?
- 대석** 맞다. 괴기 잡이하다 강제로 북에 끌려갔다 왔어도, 간첩혐의를 뒤집어씌우지 않았나 말이다.
- 수하** 북한에 일가친척이 남아 있어도 신원이 불량하다고 따돌렸고, 집안에 월북자가 있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지요.
- 흥연** 그렇지비, 그렇지비.
- 대석** 그러기에 화가 나는 겸매. 친하게 지내는 거는 좋지만, 왜 저들과 화해해야 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음매?
- 수하** 맞습니다. 반공 이념을 포기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 때문에 불이익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홍연 그렇지비, 그렇지비.

수하 목숨 바쳐 지키던 반공이념을 아무 해명과정 없이 포기하는 건, 사실상 항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연 그렇지비, 그렇지비.

동선이 술 주전자를 들고 나와 이들에게 한 사발씩 따라준다.

일권 …동선아이. 솔직히 한 번 얘기해 보라이.

동선 …?

일권 너도 통일을 원하니야?

동선 예?

일권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느냐 이 말이다이.

동선 물론이죠.

일권 솔직히 말해 보라이.

동선 …

일권 대체 이 땅에서 누가 통일을 원하니야? 남한 정부? 북조선 정부?

동선 …

일권 황소를 천 마리씩이나 갖다 바친 재벌?

동선 ….

일권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통일을 원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대석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이북사람이라면 진저리를 내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통일비용 운운하며 난감해 하지비.

동선 …

일권 그럼 대체, 누가 통일을 원한단 말임매?

동선 …그래도 지금 이 분위기는 통일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일권 그기 이상하다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그리로 훌러가고 있다

이. 한때 서로 간절히 원할 때는 요지부동이더니 말이다이. 북치는 놈은 없는데, 어디서 북소리가 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이.

동선

...

일권

(점차 분노하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고 있는 자는 나뿐이다이. 그 긴 세월동안 모두 마음에도 없이 건성으로 통일을 부르짖어 왔다이. 잇속이 있을 때만 통일을 찾았다이. 그런 놈들이 나를 팔세한다이. 오히려 나를 구박했다이. 적반하장이다이. 그기 역울하다이. 용서할 수가 없다이.

동선

...

일권

이 땅에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이. 민족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가 단 한 명도 없다이.

동선

...

일권

(눈물을 글썽이며 나지막이 입 안에서 노래 흥얼거린다.) “민중의 기, 붉은 기는 전사의 시체를 썬다. 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혈조(血潮)는 깃발을 물들인다.”

동선

…(연민의 눈으로 일권을 바라본다)

암전. 어둠 속에서 훌러나오는 적기가.

제14장

접등되면, 1997년 장일권의 집. 앓아누워 있는 수향을 대석이 문병 중이다. 과일 통조림을 따고, 그 내용물을 꺼내 입에 넣어준다.

- 대석** 내 잘못임매. 내가 너를 일권이한테 시집보낸 거 그기 잘못된 겸매.
- 수향** ...
- 대석** 남들은 남한 땅에 피붙이 하나 없어 그리 고생할 때도, 나는 외 할머니 덕에 수월하게 정착했다이. 그런데도 정작 내 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니, 이 죄를 어이 다 씻겠음매.
- 수향** …오라버이도, 그 사람도 잘못없소.
- 대석** 처자식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건 큰 잘못이다이.
- 수향** …가족에 매여서야 어떻게 민족과 역사를 생각할 수 있겠소?
- 대석** 가족도 돌보지 못하는 놈이 무슨 일을 하겠음매?
- 수향** 아무한테서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우리 가족들이라도 그 양반 애국심을 알아줘야 되지 않겠소, 오라버니.
- 대석** 누가 지보고 애국 애족하라 했음매? 지 혼자 귀신이 씌여서 저러는 거지비.
- 수향** 통일이 조금만 빨리 됐어도, 애들 아버지도 그리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 대석** …니도 일권이하고 한 40년 살더이, 이젠 통일이 입에 붙었음매?
- 수향** …통일되면, 훈장만 팔아도 우리 호강하며 살 수 있다 했는데.
- 대석** 그 소릴 믿슴매? 사람 죽여 얻은 훈장, 누가 그걸 금은보화를 주고 사겠음매?

이때 풍악소리와 함께 북청사자놀음단 등장한다. 그중 사자 한 마리가 수향 주변을 꽤 오랫동안 맴돌며 악귀와 다투다, 부엌으로 들어가 바가지를 물고 나온다. 풍악소리 멈춘 가운데, 바가지를 힘차게 밟자 요란한 소리와 함께 깨진다. 그 소리에 놀라 악귀는 달아나고, 수향은 부스스 일어난다. 꿈인 듯 현실인 듯 통환에 빠진다.

이어 풍악소리 다시 울리며, 북청사자놀음단 온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춤

을 춘다. 남(南)과 북(北)이 따로 없고, 노(老)와 소(少)가 구분되지 않는다. 등장인물 전원이 태극 문양을 그리며 무대를 휘젓는다. 사자가 앞장서 온갖 사악한 귀신들을 물리친다. 전쟁 귀신이 들고 있던 바지도, 이념 귀신이 들고 있던 바지도, 모두 빼앗아 부순다. 이들의 춤이 끝날 무렵 풍악소리 잣아지며, 그 사이 장일권의 목소리 들린다.

일권 (E. echo) …진실로 내 꿈은, 내 동포가, 내 민족이, 내 핏줄이, 다같이 화목하게 사는 꿀을 내 눈으로 보는 거다이. (점차 격정적으로) 따사로운 햇살과 포근한 바람 아래서, 오곡백과 풍성한 금수강산 옥토에서, 온 겨레가 오순도순 정을 나누며 살고 싶었다이! 내가 피로써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그거다이. 빈(貧)과 부(富)가 따로 없고, 귀(貴)와 친(賤)이 분별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이. 평화가 말뚝처럼 박혀 있고, 풍요가 불같이 퍼지는 조국을 건설하고 싶었다이!

문득 풍악소리 멈추면, 무대 위의 인물들 고정된다. 유독 사자만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탈을 벗어든다. 탈 속의 인물은 다름 아닌 장일권. 이들, 빙긋 웃는 사이 다시금 풍악소리. 김수향 장동선과 함께 가족사진 찍듯 모여 앉은 채, 사람들 사이에 둘려 싸여 무척 행복해 한다.
그 사이 암전.

제15장

점등되면, 빈소.

- 동선 위패, 다시 쓰자. 원래, 나라에서 내린 벼슬을 받았으면 그걸 써 넣는 법이야.
- 동후 무슨 벼슬을 받아요, 아버지가? 부두노동자인 주제에. 현고학 생부군 장일권 신위(顯考學生父君 張一權 神位). 저거면 됐지. 관직도 없잖아요, 아버진.
- 동선 ...
- 동후 써넣을 벼슬이 있긴 한 거예요?
- 동선 (새로 써 온 위패를 내보이며) ...
- 동후 (위패를 읽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 육군 중좌 장일권 신위’. 형, 미쳤어요?
- 동선 ...
- 동후 어떻게 적국의 벼슬을?
- 동선 아버지에겐 조국이지.
- 동후 조국? (격분하며) 그럼 상여를 메고 당장 이북으로 가세요!
- 동선 (타이르는) 동후야. 아버지도 조국을 위해 싸운 분이야.
- 동후 아버지는 백성을 죽이고 국토를 잣더미로 만든 빨갱이일 뿐입니다!
- 동선 아버지도 민족을 위해 싸운 거다.
- 동후 민족을 위해 싸운 건 인민군이 아니라 국군이라고요. 인민군은 살생을 한 거구요.
- 동선 (점차 강해지며) 통일을 위한 과정이다!
- 동후 한반도를 피로 물들이는 게 통일이란 겁니까?
- 동선 민족 통일은 범죄가 아니다! 민족을 갈라놓는 게 범죄다!
- 동후 전쟁을 일으킨 게 범죄입니다. 평화를 지킨 게 정의라구요!
- 동선 도탄에 빠진 민족을 외면하는 거야말로 불의다. 민족을 구원하는 게 정의다!
- 동후 도탄에 빠뜨린 건 아버지 일당이라구요. 온 민족을 재앙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게 누구냐 말이에요!

- 동선 민족을 해방시키려면 전쟁밖엔 방법이 없었다!
- 동후 빨갱이 세상이 되는 건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 동선 우리는 육천 년 동안 독립국가였다. 일제와 싸워 해방되었듯, 미제와 싸워 독립해야 했다!
- 동후 육천 년 동안 자유국가였어요. 공산당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야 말로 역사를 지키는 거였다구요!
- 동선 우리는 천오백 년 동안 통일국가였다. 원상회복시키는 건 역사적 사명이다!
- 동후 천오백년 만에 민족상전이 일어났어요. 그건 역사적 죄악입니다!
- 동선 전쟁은 당대의 혼란이지만, 통일은 영원한 안정이다!
- 동후 피로 얻은 통일이, 평화로 지킨 분단보다 대체 뭐가 이득이라는 겁니까?
- 동선 통일은 피로 얻은 거다. 신라와 백제가 황산벌에서 싸운 것도 통일전쟁이다!
- 동후 6.25동란이 통일전쟁이라고 치자구요. 그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는 무조건 항복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항복했어야 역사에 부응하는 것이었느냐구요?
- 동선 ...
- 동후 아니잖아요! 한쪽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다른 한쪽에선 맞서 싸워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피를 흘려야 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거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피 흘린 사람들에겐 사과를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전범(戰犯)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일으킨 쪽이 사과를 해야 하는 거라구요.
- 동선 ...
- 수하 …그건 동후 말이 맞다.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6.25 전쟁도 통일전쟁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 하지만 아직은 대치 중이니

까, 저들은 엄연한 전범일 뿐이야.

동선 우리 아버지는 통일조국을 위해 앞장 선 것뿐입니다.

동후 형이, 언제부터 그렇게 빨갱이가 됐죠? 어쩜 이렇게 아버지의 훌륭한 대변인이 된 거냐고요?

동선 ...

동후 오라. 노조위원장이 되더니.

동선 동후야!

동후 같은 혈통인데, 어떻게 형하고 나는 이다지도 다른 거죠?

동선 ...

동후 하긴, 난 스무 살 때 집을 떠났고, 형은 40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봤으니.

동선 동후야. 너가 아는 게 전부는 아니다. 나야 어차피 아버지와 한伙줄이니 그렇다하더라도, 너는. (황급히 중단하는) 아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만큼, 아버지의 사상도 존경한다.

엄 형사, 이윽고 빈소 안으로 들어선다. 작은 상자를 들고 있다. 상자 안에서 훈장을 꺼낸다.

대석 이건, 훈장 아님매?

수하 북한 훈장?

동선 이걸 왜 엄 형사님이?

엄 형사, 영정사진 옆에 놓아둔다.

동후 엄 형사님. 미쳤어요? 아무리 세상 좋아졌다지만 어떻게 인민군 훈장을!

형사 네 아버지의 유품이다.

동후 아직 이 나라는 공산주의자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 형사 공산주의자…라기 보단, 민족주의자지.
동후 민족주의? 자기 민족에게 총을 들이댔는 데도요?

형사, 상념에 젖는다. 주위 시선 집중된 가운데, 암전.

제16장

곧바로 접등되면, 1960년 엄 형사의 집무실.

- 일권 그게 무슨 소리매? 입양을 보낸다고, 미국으로?
형사 그럼 어떠해? 아비마저 죽었는데. 이게 다 네 놈들 때문이야.
일권 어찌 민족 영웅의 후손을 미제에게 내 던짐매?
형사 민족 영웅의 후손? 그게 당신 입에서 나올 말이야?
일권 전쟁터에서 만난 건 악연이지만, 그래도 우린, 둘 다 민족을 위해 싸웠지비.
형사 김용탁이는 낙동강 전선 유학산 전투에서 부상당해 불구가 된 이래, 공산당 놈들이라면 한평생 이를 갈고 살았어.
일권 나를 철천지원수로 여긴다는 거 잘 알고 있지비.
형사 뻔뻔스럽긴. 당신 같은 빨갱이 때문에, 이 땅에 이런 비극이 넘치는 거라구.
일권 김용탁이는 민족의 영웅이다이.
형사 네 놈들은 민족의 반역자고!
일권 어찌 영웅의 아들을 미제에 넘긴단 말임매? 왜 남의 나라 사람들에게 팽개친단 말임매? 그게 민족을 위한다는 당신들이 할

짓이냔 말임매?

형사 ...

일권 (돌아서 걸어가는) 그 아이 내가 기를 검세. 민족 영웅으로 당당하게 기를 검세! (문 닫고 나가는)

형사 빨갱이가, …국군의 아이를?

암전.

충격적인 자세로 망연자실 서 있는 동후에게 편 조명 어리다 사라지면, 다시 접등.

1965년. 같은 장소. 취조 중이다.

형사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일권 ...

형사 일곱 살밖에 안된 아이한테 인민군가를 가르쳐? 이 골수 빨갱이 같으니.

일권 그 노래, 나도 우리 아바이한테 배웠다이.

형사 당신이야 골수에 맷혔으니까 그렇지만, 그 아이까지 그렇게 키워야 되겠어?

일권 당신 아바이도 이 노래를 불렀다이.

형사 뭐?

일권 만주별관에서 일본 놈들과 싸울 때, 우리 아바이와 당신 아바이가 함께 불렀던 노래란 말이다이.

형사 …?

일권 모름매? 그 노래 원래 독립군이였단 말이다이. 아리랑도 그렇고 적기가도 그렇고 조선 땅에서 일본놈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당당하게 살자고 불렀던 노래다이.

형사 입 닥쳐! 빨갱이 군가야, 엄연한! 빨갱이들이 혁명가로 부르는

노래라구. 어떻게 그 노래를 그 어린것한테 가르친단 말이야?

일권 이 보라이, 엄 형사. 내 사랑스런 아들한테 자랑스런 조선 민족의 기상을 심어주려 했다이. 그기 뭐가 잘못된 거라이? 미제 놈들한테 넘겼으면, 양놈들 노래밖에 더 배우겠음매?

형사 (훈장을 내 던지며) 그래서 미제 장난감 가지고 놀까봐, 이따위 훈장을 아이한테 내 줬구먼.

일권 그건 안 된다이!

형사 압수야, 이건!

일권 돌려 달라이. 돌려 달라이!

형사 북한 훈장을 벼젓이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것만도 용서할 수 없는데, 그걸 아이한테 내주고 세뇌를 시켜? 하긴, 네 놈한테 아이를 맡긴 우리가 잘못이지.

일권 조국이 버린 아이를, 내가 기르고 있다이. 인민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 몸바칠 민족주의자로 키우고 있다이.

형사 닥쳐!

암전.

충격적인 자세로 망연자실 서 있는 동후와 수향에게 편 조명 어리다 사라지면, 다시 점등.

1978년. 같은 장소.

일권 (애원하는) 이 보오, 엄 형사. 나와 동후는 씨가 다르지 않슴매?

형사 ...

일권 동후 친아바이는 반공투사요. 비록 내가 길렀어도, 그 놈아 몸속에는 지 아바이 피가 흐른단 말이오.

형사 그 순진한 놈을 빨갱이로 키웠잖아, 당신이.

일권 아니오. 내가 키웠는데 그걸 모르겠소? 그 놈아가, 빨갱이 자식

이란 소리를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나 몰래 남조선 사관학교를 지망했겠음매?

형사 호적상 당신 아들이고, 당신이 20년 동안 길렀어. 신원조회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봐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구.

일권 이 보오, 엄 형사.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으매? 이북엔 아직 내 일가친척들이 있다이. 남한 군인이 되면, 가들이 내 일가친척들 한테 총구를 겨누게 된단 말이오. 알겠슴매?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부탁하지 않슴매.

형사 그래서 당신 큰아들 고등학교도 안 보내는 거 아냐. 교련시간에 총칼 드는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도 군대는 보내야 할 걸.

일권 그래서 원양선을 타라고 했음매. 원양선 타면, 군대 안 가도 된다 하지 않스비.

형사 이런 반역자.

일권 우리 동선이 신원조회 통과시켜 준 거, 무척 고맙게 생각하오. 그것처럼 우리 동후도 봐 주기오. 더욱이, 동후는 씨가 다르지 않음매. 뼈꾸기 새끼처럼, 다 크면 지 에미를 찾아가야 되지비. 난 보내 줄 거요. 내 품에서 내보내, 이 남조선에 되돌려 주려 그러는 거란 말이오. 알겠소, 엄 형사? (점차 격분하며) 우리 동후를 학격시키기오! 남조선의 영웅 김용락의 아들 장동후를 남조선 사관학교에 학격시키기오!

암전.

강한 충격으로 무너지는 동후에게 편 조명 어리다 사라진다.

제17장

접등되면, 화장장. 장일권의 관을 가운데 두고 가족과 문상객들이 서 있다.

- 수향 (울먹이며) 잘 가소. 당신 보내고 이제 나도 맘 편하게 살 거요.
(점차 통곡소리 높아지며) 아이고, 아이고. 호걸영웅 우리 영감,
한 번 싸워 적군의 숨을 끊고, 두 번 싸워 고지에 기를 꽂던 전
장의 위인이었건만, 시대를 잘못 만나 평생을 숨어살았네. 훈장
이 여러 개나 가슴에 한 번 달아보지도 못했으니, 그 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짚겠는가. 백만대군을 호령하던 명장이, 끝내
기세 한 번 못 펴고 저승의 객이 되고 말았구나, 아이고.
- 동후 ...
- 동선 여기가 아바이에게 있어 치욕의 땅이라고 했지?
- 동후 ...
- 동선 우리 아버지는 이 마을의 총독이었다.
- 수하 총독?
- 동선 동후 너 말대로, 이곳은 수복지구, 전쟁 때 남한 정부가 점령한
땅이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북한이 빼앗긴 땅을 자신이 대신
관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를 통치하고 있었다 이 말이다.
- 수하 북한정부가 자신을 총독으로 파견했다고 여겼다는 건가?
- 동선 그렇지요.
- 수하 …그리고 보니, 선거에 출마했던 것도, 그 때문 아니었을까. 남
한 체제하에서 합법적으로 다스려보려는.
- 대식 (침울한) 불행하고 오욕에 찬 삶이었지. …저 훈장은 어떡할 겁
매?
- 동선 유품으로 남겨 두어야죠. 육신도 없는데, 훈장이라도 남겨놓아

야 하지 않겠습니까.

- 수향 …그 훈장, 네 아버지 가슴에 달아드려라. 하늘나라에서라도 달고 다녀야 할 거 아니냐.
- 동선 …
- 수향 동후, 네가 달아드려라.
- 동후 …
- 수향 동후야.
- 동후 …

인민군복을 입은 당당한 장일권의 모습, 관 위로 해처럼 떠오른다.

애절하게 편곡된 인민군가가 배음으로 깔리는 가운데, 그들, 관 뚜껑을 연다.

동후, 장일권의 시신에 훈장을 단다.

다시 관 뚜껑이 닫히고, 이윽고 화장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 잠시 후 점화된다. 불길이 솟는다.

그 사이 편 조명에 의해 한쪽 무대에 등장한 장일권. 어린 동후와 함께 김용락의 묘소 앞에서 절을 하고 있다.

- 일권 (echo) 동후아이. 여기다 술잔을 올리라이. 그리고 절하는 거다이. (사이) 내가 아주 사랑하는 친구다이. 민족의 영웅이지비. 김, 용, 락. 따라 해 보라이. 김, 용, 락. …너도 크면 이 어른을 존경하게 될 거다이. (사이) 이건, 훈장이지비.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운 영웅들만이 달 수 있는. …원래는 내 거였는데, 내가 김용락이한테 바쳤다이. 용락이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꺼다이. (달아준다.) 용락이와 함께 부르고 싶었던 노래가 있다이. 들어보라이. (나지막이 적기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점차 커지는)
- 어린 (훈장을 가슴에 단 채, 따라 부른다.)

핀 조명 사라지며.

동후 (그 자리에 망연히 선 채, 장일권의 노랫소리에 빨려들 듯 따라 부른다. (노래 끝나면 끝내 흐느끼는) …아버지, 아버지, (통곡하는) 아버지!

적기가 계속 흐르는 가운데, 아주 천천히 암전.

- 막





2 장 작품 해설

1. 떠도는 섬을 위한 노래 - 이 상 국
2. 지역문인의 시 작품에 나타난 청호동과 갯배의 이미지 - 김 종 헌
3. 망향의 기착지 ‘청호동’, 실향의 종착지 ‘속초항’ - 최 재 도
4. 쌍·오닐·이반의 바다 - 김 한



떠도는 섬을 위한 노래

이상국(시인)

글을 시작하며

나는 상당기간 청호동과 청호동 사람들, 어로(漁撈)현장으로서의 동해, 그리고 바다에 터 잡고 사는 어부들을 시로 노래하고자 했다. 이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이자 분단 현실을 껴안고 사는 사람들의 삶과 역사성을 문학으로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것의 객관적 의미와 성취는 차치하고 다만 기억에 남는 몇몇 시편을 통하여 그간의 생각과 변화 과정을 돌아보고자 한다.

내가 만난 오구(五區)

내가 5구(五區· 청호동의 60년대 洞名)와 만난 것은 60년대 초 중학교 까까머리 시절이었다. 양양의 강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속초 중학교에 입학한 나는 강선리 집을 떠나 물치, 대포를 지나 갯배로 청초호를 건너 당시 6구(청학동)에 있던 속중을 걸어서 통학했던 것이다.

그때 기억으로는 대부분 루팡이나 판자로 지붕을 한 하꼬방집들 사이로 길이 나 있었고 그곳에 인근 부월리나 논산 쪽에서 나오는 농산물 시장이 서고는 했다. 여름에는 애들이 벌거숭이로 돌아다녔고 집집의 덕이나 철조망에 오징어가 지천으로 걸렸다. 철조망의 마른오징어를 슬쩍해서 배고픔을 달래며 먼 길을 걷기도 했다. 비 오는 날에는 오징어 썩는 특이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당시에도 갯배는 오는 배와 가는 배 두 척이었다. 한여름이면 축을 잡은 오징어를 산더미처럼 싣고 수협에 팔러 가는 리어카들과, 대야에 힘껏 인 여자들, 통학하는 학생들로 갯배머리는 늘 북적였다. 시커먼 연기를 토해내며 들고나는 오징어 배들로 갯배는 출렁거렸고 어떤 날은 배의 닻에 걸려 갯배 줄이 끊어지기도 했다. 나는 중학교를 마치고 다시 영랑동에 있는 속초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꼬박 6년간 이 길을 드나들었다.

개와 애들이 아무 데나 뚝을 누는 지저분한 동네, 억센 사투리를 쓰는 합경도 피난민들이 모여 사는 곳, 길이자 마당인 곳에 신발을 벗어놓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낮은 집들, 추녀가 없어 비가 오면 신발에 벗물이 고였다. 더러는 집 앞에 깡통 화분들이 놓였고 그곳에 꽂이 피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와 뭔가 다르다는 것과 그 다른 것이 위험하다거나 불온할 것이라는 인식으로 대상화된 곳, 그곳이 내가 만난 당시 5구였다.

떠나야지

청호동은 청호동 사람들의 땅이 아니고
그저 남한의 공유수면일 뿐
이곳에선 물이 흐를 때마다
자꾸 발목이 빠진다
잊혀지지 않으려고

잠들지 않으려고
서로 모래 뿌리는 저녁
갈매기들이 청초호 더러운 물에 부리를 박고 있을 때
늙은 아바이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바라보고 있다
섬이 아닌 줄 알면서도
끝끝내 떠도는 섬
흐르고 물이 흐르는 동안
청진이나 신포 부두에 매어놓은 배들이 삐걱거린다.

『떠도는 청호동』. 시집 『내일로 가는 소』

우리는 뱃길 북으로 돌릴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이 무거운 청호동 끌고 갈 수 없어
와이어로프에 복장 훠인 체
더러운 청초호를 헤맬 뿐
가로막은 철조망 너머 동해에서
청진 원산물이 가자고
신포 단천 물이 들어가자고
날래 따라나서라고 날마다 아우성인데
우리는 동력도 키도 없어
바람 물때 손바닥 보듯 하던 아바이들
모랫벌에 다 묻고
이 따위 죽은 배로는 갈 수 없어
우리는 강원도가 아니야
우리는 속초가 아니야

『청호동 갯배』. 시집 『내일로 가는 소』

섬은 물으로부터 격리된 곳이다. 그러기 때문에 청호동은 섬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곳을 섬으로 생각했다. 스스로가 아니고 전쟁이라는 물리력이나 이데올로기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떠나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심정적 섬이다. 그 섬과 바깥을 연결해 주는 통로가 오직 갯배였다. 그러나 갯배는 동력도 키도 없었고 청호동은 몸이 무거웠다. 갯배는 청호동의 출구이자 입구였지만 그 뱃길은 고작 6,70 미터에 불과한 것이었다.

나가는 배 들어오는 배

나는 70년대 중반 등단 이후 주로 농민과 농촌 현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전태일의 분신과 광주 민주화운동, 80년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중공업 위주의 개발독재로 농촌은 급격하게 해체 과정을 밟고 있을 때였다. 농민들은 농토와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빈민이나 산업 예비군으로 편입되었다. 농사보다 나았기 때문이었다. 계획경제하에 산업체제가 재편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첫 시집을 낸 이후 시선을 지역으로 돌려 우리 안의 타자로 존재하는 청호동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거기에 분단 당사자들이 있고 분단의 실체와 또 다른 전쟁의 폐허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일상적이고 일반화된 청호동 풍경과 갯배와 피난민들, 판잣집에 역사성과 문학적 리얼리티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다.

80년대는 지역경제의 기반이 바다에서 설악산으로 옮아가던 시기이기도 했다. 높아가는 국민소득은 관광산업이라는 소비문화를 불러왔고 설악산이 각광을 받았다. 개 건너에는 여기저기 아파트가 들어서도 청호동의 지붕은 여전히 낮고 거리는 어두웠다. 그리고 청초호는 벼려진 바다였다. 생활폐수는 물론 할복한 오징어 내장을 리어카로 들이부었고 여름이면 부영양화로 고기들이 배를 뒤집으며 떠올랐

다. 가스에 취해 갯가로 밀려나는 송어를 아이들은 봉동이로 때려잡기도 했다.

갯배는 원시적인 배다. 동력도 키도 없이 인력으로 청호동과 중앙동 사이를 건너다닌다. 그 물길은 수십 미터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역사성이나 문화 사회적 의미는 특별한 것이었다. 단절은 이북과 이남 사이의 국가와 국토의 분단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청호동이라는 공유수면 위에 집 짓고 사는 실향민들과 이른바 원주민이 사는 중앙동 사이에도 단절은 있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기준의 주민 사회가, 틈입자이자 타자로서 청호동 실향민들에게 느끼는 감정에는 얼마쯤의 불온시와 멀시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 떠도는 삶을 끌고

아침저녁 빼걱거리며

청호동과 중앙동 사이를 오간 게 아니고

마흔 몇 해 동안 정말은

이북과 이남 사이를 드나든 것이다.

갈매기들은 슬픔 없이도 끼룩거리며 울고

아이들은 바다를 향해 오줌을 깔기며 크는 동안

세계의 시궁창 같은 청초호에 아랫도리를 적시며

우리는 우리들 피난의 나를 끌고

마흔 몇 해 동안 정말은

우리들 살 속을 헤맨 것이다

『갯배·1』. 시집 『우리는 읍으로 간다』

미시령 너머로 해 떨어지고
개 건너 호텔은 벌써 불야성이다
월급쟁이들 학생들 리어카 품팔이 갔다 오는 여자들로
들어오는 배는 몸이 무겁다

- 야야 성진홍집 선자야! 느 엄마가 꼬치끼리 사 오래는 걸 내래 깜빡 까먹었다. 니 올 때 사와라.

들어가는 배를 탄 아주머니가 나가는 배에 대고 소리 지른다

- 에이, 아줌마는… 쟁피하게 얼마친데요?

하고 건너다보는 처녀 얼굴이 고춧가루 빛이다

- 야아 이 간나 다 컸다고 꿀값한다. 무시기 쟁피하니, 꼬치끼리 안 먹고 사니?

아주머니의 거침없는 말에 학생들이 먼저 킥킥거리자
가고 오는 사람들 모두 웃는다

오늘도 갯배는 그렇게 청초호 가운데서
수없이 만나고 헤어진다.

『갯배.3』. 시집 『우리는 읍으로 간다』

중세나 나치 독일에 게토(ghetto)가 있었듯이 이를테면 청호동은
20세기 냉전 이데올로기와 한국전쟁이 만든 물리적이자 심리적 게토
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두 달이면 돌아
갈 줄 알았던 고향은 멀어지고 임시로 거처하고자 했던 곳에 집을 짓

고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났다. 갯배는 그 5,6십 미터 남짓한 그 먼 거리로 역사와 희망을 끌고 다녔고 사람과 생활을 실어 날랐다.

노분·단천집 할아버지

갯배머리에 호텔이 들어서고 시내 상가에는 소위 유명 메이커들의 매장이 몰려들었다. 대형 횟집들이 경쟁적으로 문을 연 시기가 있었다. ‘콘도미니엄’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숙박업소가 인근 산야에 새로운 풍광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선거가 지나가면 청호동 출신 누가 몰표를 했느니 하는 소식 외엔 청호동은 늘 세간의 관심 밖에 있었다. 거기엔 동사무소 말고는 번듯한 건물도, 팬찮은 마트도 없었다. 대중목욕탕도 없었다. 이산가족 신청을 매번 해도 어쩐 일인지 청호동 사람들은 한 사람도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그동안 많은 난민 일 세대를 만나 그들의 고향과 피난의 서사를 들었다. 노분이라는 성진 할머니와 그의 이웃인 단천 할아버지도 이 무렵에 만났다. 출생지는 달라도 두 분이 동갑이었다. 노분 할머니는 낡은 ‘런닝구’ 안에 아이들 다섯을 길러낸 젖가슴이 쪼그라든 채 매달려 있었지만 줄담배를 즐기며 목소리는 카랑카랑했다. 장독대 옆에 깡통 화분이 여럿 있는 하꼬방을 언젠가 단돈 6천 원에 샀다고 했다. 나는 그 집에서 소주를 마시기도 했다. 문살을 널찍한 철사로 엮었는데 녹이 슬어 창호지에 녹물이 배어 있었고 안방 사진액자에는 고향에서 가져온 흑백사진이 걸려 있었다.

단천 할아버지는 상당한 식자층이었는데 남한사회의 부패와 정치인들의 행태에 비판적이었다. 당당했고 좀 거북한 걸 물어봐도 거침이 없었다. 두 분 모두 팔십년 대에 이미 고희를 넘겼으니까 벌써 오래전에 몸은 망향의 동산에 묻혔고 영혼은 성진이나 단천 부두를 갈

매기처럼 날고 있을지도 모른다. 죽어서 영혼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할 나라이다.

그 두 사람은 나에게 그냥 개인이 아니었다.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닌 중간지대에 거주하는 상징적 개인들이었다. 내가 만난 청호동 피난민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시가 남았다.

노분*

늙은 팽이갈매기

썩은 고기 먹으며 피난살이하는 노분,
청호동 모래사장에 6천 원짜리 집 사고
그 곳에서 아들 둘 딸 셋 낳았다
육아오 때 함포 소리에 놀라 집 떠난
성진 갈매기

노분,

중학교도 못 마치고 쇳돌배** 타던 맏이도 이젠 환갑이 가깝고
밑에 아들도 할 수 없이 뱃놈 만들었지만
아애비, 평생 물질해도 바다 돈이 무시기 돈이니?
손가락 끝에 담배 끼고
손자 기저귀 개는 노분,
청초호 썩은 물에 날개 다 버리고 주저앉은
일흔네 살 늙은 갈매기
노분

*청호동에 사는 할머니

**양양 철광의 철광석을 실어나르던 배

『성진 갈매기』. 시집 『우리는 읍으로 간다』

효도관광 떠나듯
아바이들 고향 가게 되었다고
동사무소로 방북 신청하려 몰려가던 날
일흔네 살 단천집 할아버지
노인회관에 앉아 담배만 피웠다

무슨 선언
무슨 회답
무슨 합의
이제는 안 속는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통일해서 손해 보는 패가 있고
통일을 개 끌고 다니듯 끌고 다니며
이득 보는 무리들이 있는 한
살아서 단천 못 간다

잠시 피난 갔다 온다고
고향 떠난 지 서른아홉 해가 지났다
두고 온 자식과 이남서 얻은 자식들이야
어떻게든 서로 알게 되겠지만
그동안 편지도 한 장 못 오간 고향을
효도관광 떠나듯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고
단천 할아버지 방북 신청 안 한다

『단천집 할아버지』. 시집 『우리는 읍으로 간다』

청호동에는 나무가 없다

임수경은 80년대 마지막 해에 전대협 대표로 평양 세계 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여 김일성을 만나고 돌아왔다. 남북화해분위기가 무르익던 시절이었다. 그때 그를 북으로 보냈던 전대협 의장 임종석은 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다. 그 무렵 임수경의 방북을 바라보는 청호동 주민들의 반응을 취재해 달라는 어떤 잡지사의 청으로 노인정 등에 들러 이야기를 들어 보았으나 대부분 냉소적이었고 철부지 같은 ‘남쪽 아’들은 공산주의에 대하여 뭘 모른다고 했다.

1996년 내가 소속되어 있던 민예총 강원도지회는 청호동 백사장에서 통일문학제를 열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마련된 무대에서 고은 시인은 통일과 민족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희망적인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듣고 있던 청호동 노인들이 무슨 돼먹지 않은 소릴 하고 있느냐, 내려오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관객보다 형사들이 더 많았다는 소리도 있었다. 이어 오백 한 마리의 소떼를 몰고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고향을 방문한 것도 그 무렵의 일이었다.

분단과 전쟁 중에 월남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상적으로 공산주의를 반대하거나 신분상 김일성 치하에서 사는 것이 남한에 사는 것보다 불리하고 싫은 사람들이다. 때문에 의외로 통일문제에 대하여 보수적 이거나 북한에 대해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혹 시절이 좋아져서 몽매에도 잊지 못하던 그 고향에 돌아갈 희망이 보인다 해도 그걸 내놓고 좋아하다가 남한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는 경계심은 본능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자기검열 때문에 남북문제에 있어서 보수성을 떨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보면 반세기를 훨씬 넘은 분단 이데올로기의 족쇄가 우리 모두의 삶을 얼마나 강고하게 틀어쥐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일인 것이다.

그날 단천에서
뱃길로 사흘 객지 속초에 와
나무를 심는 일은 단천을 버리는 일이다
그렇게 청호동 모래바닥에 엎드렸다가
한두 달이면 떠나야 할 객지
청호동에 나무를 심고 뿌리를 키운다는 건
단천 나무를 욕하는 일이다
철공소집 변돈도 받아야 하고
뻬뜰네 콩명석 두 닉도 돌려줘야 하는
단천이 보이지 않는다
뱃길 사나흘 머나면 단천 때문에 나무를 심지 못하는
청호동 사람들의 단천은
단천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프리카나 마찬가지임을
청호동 사람들은 눈치 채고 있지만
아직 청호동 모랫바닥에 나무를 심는 일은
뱃길 사흘 단천을 아주 버리는 일이다

『청호동에 나무를 심는 일은』. 시집 『내일로 가는 소』

지금도 그렇지만 청호동에는 나무다운 나무가 없다. 과일나무는 물론이고 흔한 가로수도 별로 없다. 그곳은 대한민국의 공유수면이다. 그리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타관객지에 나무를 심을 여유가 없었고 실제 심을 데도 없었을 것이다. 나무를 심은 일은 수십 년을 내다보는 일이다. 잠시 잠깐이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남의 땅에 나무를 심어 뭐하겠는가. 한편 그것은 고향을 배반하고 싶지 않아서일지도 모른다. 남한 땅에 나무를 심고 기른다는 것은 두고 온 고향집 뒤란의 밤나무나 마당의 감나무에게도 미안한 일이었을 것이다.

청호동이라는 보통명사

80년대부터 부르기 시작한 나의 청호동 노래는 이후 상당기간 동안 계속되었으나 2천 년대가 되면서 잊어들기 시작했다. 2천 년대는 그야말로 태평성대였다. 그야말로 민간정권이 보수와 진보를 오갔다. 일 년에 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외국 관광에 나서는가 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은 냉전시대의 마지막 철조망을 제거하는 상징으로 세계가 주목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관계가 지속되었고 경제와 문화 등 많은 분야에 걸친 교류는 통일에 대한 진일보한 전망을 가능하게도 한 시기였다. 그 바람에 나도 2천 년대 중반 6·15 민족통일대축전 남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다녀오기도 했다.

한편 9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소위 후일담 문학은 상업적 성공에 목을 맴으며 문학에서 이념성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낡거나 촌스러운 것으로 보이기 십상이었다. 신서정이나 생태문학 같은 비평용어가 활기를 얻는 동안 나의 시집에서도 청호동이 사라져 갔다. 그 대신 절간 이야기와 마을의 소소한 일상이 들어섰다. 문학에 있어서도 시대 정서는 물결과 같은 것이어서 나도 그 물결에 휩쓸려 갔던 것이다.

그동안 직접적으로 청호동 혹은 갯배를 제목으로 하거나 삶의 현장으로서의 동해, 어로(漁撈) 등을 제재로 한 작품들이 시집 한 권 분량은 되는 듯하다. 내게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동서 냉전시대의 유물인 분단국가는 지구적으로 오직 대한민국뿐이고 그 분단을 온 몸으로 살아냈던 청호동은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다. 나의 청호동의 노래가 청호동에게 얼마나 유의미한 것이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청호동도 예전처럼 그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역 시인들을 중심으로 그간 많은 시인들이 우리 안의 섬인 청호동 속으로 들어가 청호동과 청호동 사람들을 함께 노래했기 때문이다. 그래

서 지역 시인 치고 청호동에 대한 작품 몇 편 정도 안 가진 시인도 드물 것이다.

2천년대가 되면서 갯배는 관광 상품이 되었다. 그리고 청호동은 청호동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아바이 마을이 되었다. 관광객을 모으기 위하여 함경도 사투리로 개명하여 상품화한 것이다. 아바이 순대, 아바이 냉면 등 새로운 식품들이 개발되었다. 누군가 통일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한다고 했지만 청호동이라고 오지 않는 통일을 기다리며 언제까지 엎드려 있을 순 없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청호동은 어엿한 고향이고 함경도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고향일 뿐이다.

그렇더라도 청호동의 어디에도 청호동의 역사를 알리는 제대로 된 안내판 하나 보지 못했다. 지자체들은 지역의 역사적 유물이나 문화적 가치들을 발굴하고 보존하고자 애를 쓴다. 그것이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인문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들로 전쟁의 야만성과 실향민의 북방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청호동에 실향민 박물관이나 실향민문화마을 같은 것의 조성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이 지역만의 특별한 역사이자 우리에게 아직도 진행 중인 근대적 유적이기 때문이다.

혹시 청호동에 가본 적이 있는지
집집마다 걸려 있는 오징어를 본 적이 있는지
오징어 배를 가르면
원산이나 청진의 아침햇살이
퍼들썩거리며 뛰어오르는 걸 본 적이 있는지
그 납작한 몸뚱이 속의
춤추는 동해를 떠올리거나
통통배 연기 자욱하던 갯배머리를 생각할 수 있는지
눈 내리는 함경도를 상상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오징어 속에는 소줏집이 들앉았고
우리를 삶이 보편적인 안주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마흔 해가 넘도록
오징어 배를 가르는 사람들의 고향을 아는지
그 청호동이라는 떠도는 섬 깊이
수장당한 어부들을 보았거나
신포 과부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는지
누가 청호동에 와 새끼줄에 거꾸로 매달린 오징어를 보며 납작할 대로 납작
해진 한반도를 상상한 적은 없는지 혹시 청호동을 아는지

『청호동에 가본 적이 있는지』. 시집 『집은 아직 따뜻하다』

글을 마치며

분단 해소나 통일문제가 남북 정권의 권력유지에 이용되거나 정파적 이해에 따라 개 끌려다니듯 하는 동안 정전이 된 지 60여 년이 지났다. 조금 세월이 지나면 청호동은 관광 안내 책자에 옛날에 이북 피난민들이 살던 마을이라는 전설적 혹은 문학적 서사만 남을 것이다.

나는 이제 청호동에 아는 사람이 없다. 관광객처럼 셀카를 찍으며 갯배를 타는 것도 어색하다. 지역의 주민이자 시인으로 내속에 내면화되어있는 청호동과 내 밖의 청호동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사피엔스에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야말로 그 시대를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정말 우리는 우리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른다.

최근 청호동은 다시 분단되었다. 새로운 수로를 열고 그 위에 교량이 놓였다. 그 수로를 사이에 두고 속칭 신포마을 쪽은 구 청호동에서 분리됨으로 청호동은 남북으로 재 분단된 것이나 다름없다.

갯배는 관광 명품이 되었다.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출을 선다. 언젠가 번호표를 받고 대기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세기가 훨씬 넘는 동안 피난민들의 삶과 역사를 실어 나르던 갯배에는 정작 청호동 사람들이 없다. 물회를 먹고 닭강정 박스를 든 관광객들이 재미 삼아 타보고 인증샷을 날리는 곳이 되었다.

청호동과 갯배는 합경도 피난민의 집단 거주지며 그들의 교통수단이라는 역사성이 소거된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항구 풍경이 된 것이다. 이제 청호동도 마음이 편할 것이다. 갯배도 많은 나이를 먹었다. 그래도 청호동이 어떤 곳이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겐 아직도 가야 할 고향이 있다고 갯배 머리 어디에 이런 시라도 한편 걸어놓고 싶다.

갯배를 아는지

언제 가나 합경도
자벌레 제 몸 재듯
온몸으로 기어가는 배를 아는지

그 배 타고
눈보라 치는 홍남을 가 보았는지
원산 신포 가는 물길을 아는지

비가 와서 못 가고
바람 불어 못 가네

갯배를 아는지

누가 혹 역사라는

명랑구리 배를 아는지

가도 가도 그 자리

그리워도 못 가고

밤을 세도 못 가네

『갓배』, 『문학청춘』 2017년 겨울호



지역문인의 시(詩) 작품에 나타난 ‘청호동과 갯배’의 이미지

김 종 현 (시인)

I. 들어가는 말

속초문화원의 ‘청호동과 갯배, 실향민의 삶을 다룬 문학작품 해설’이라는 주제를 받았다. 원고를 쓰기 위해 우선 청호동과 갯배를 주제로 한 문학작품, 그 중에서도 시(詩) 작품을 찾기 시작했다. 의외였다. 청호동과 갯배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작품이 생각보다 매우 적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 나왔다 청호동에 정착한 피난민 1세대의 삶을 그려낸 실향민의 이야기를 통하여 ‘분단 문학’과 ‘통일문학’에 관한 작품은 상당수가 있지만, 청호동과 갯배를 소재로 실향과 망향의 이미지를 소재로 형상화한 작품은 그리 많지가 않다.

필자가 본 소고를 작성하기 위해 청호동과 갯배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본바, 대부분의 자료가 역사적, 지정학적, 향토자료학적 측면의 조사자료이었다. 문화예술 자료로는 엄상빈 사진작가의 사진집 『속초 아바이 마을, 청호동 가는 길』과 『아바이마을 사람들』이 출판되었으며, 문학적 자료로 피난민의 삶을 소재로 실향과 망향을 이야기하는

작품은 많이 있으나, 청호동에 관한 지역 문인의 시 작품은 20여 편, 갯배에 관한 시 작품은 10여 편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도에 지역의 체재순 시인이 『속초시 피난민 정착사』라는 향토자료 속에 「문학 속에 투영된 속초시 거주 피난민들의 삶과 그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시, 소설, 희곡 등 다양한 문학작품을 분석하여 ‘속초 실향민 문학’을 개관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소고는 지역문인의 청호동에 관한 작품 20여 편과 갯배에 관한 시 10여 편을 중심으로 지역문인들의 눈에 비친 청호동과 갯배의 이미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II. 청호동의 역사에 관한 소고

먼저 청호동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자.

속초문화원의 자료에 의하면 청호동은 속초시의 최동단에 위치한 마을로 동쪽으로는 동해바다, 서쪽으로는 청초호를 두고 남에서 북으로 길게 뻗은 형국을 하고 있다. 청초호는 육지로 굽이쳐 들어온 바닷물이 퇴적층에 막혀 호수가 형성된 것으로 전형적인 석호(潟湖)이다. 석호와 바다와의 경계는 그 사이에 퇴적된 모래사장에 의한 경우가 많다. 물론 청초호도 동해 바다와 모래사장을 사이에 두고 막혀 있었다. 이를 사구(砂丘)라고 하는데, 청호동은 바로 이 사구, 즉 모래밭에 생성된 마을이다. 마을의 형성은 피난민 1세대의 설명에 의하면, 1.4 후퇴 때 내려왔다가 국군의 북진과 시기를 같이하여 귀향하다가 잠시 짐을 풀 곳이 바로 청호동 이라는 것이다. 6·25 전쟁 당시 북진하던 국군이 중공군의 개입에 막혀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38선을 넘은 것이 51년 3월이므로, 마을의 형성은 그 이후가 될 것이다.

속초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25전쟁 이후 속초 및 주변으로 이동한 피난민의 규모는 48,722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배를 이용

하여 이동한 사람들은 주로 속초항 주변에 거처를 마련하였고, 육로를 통해 이동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현재 종합 공설운동장 뒤편인 학사평에 자리 잡았다고 한다.

청호동의 옛터는 여러모로 거주지역이 되기는 힘들다. 모래사장인 탓에 지반이 단단하지도 않고, 바닷물을 머금고 있는 탓에 식수 확보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곳에 사람들이 살게 되었을까? 당시 청호동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출신지를 보면 함경남도가 92%로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였고, 이들 중 반 이상이 어업을 생계로 하여 생활을 유지하였다.

이들이 속초 정착 후에도 어업을 생계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고향에서 어업에 종사했었기 때문에 어업 관련 기술에 숙련된 이들이 많았고 전쟁 시 피난 수단으로 배를 이용한 이들이 많았기에 보유된 선박과 인력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초기 정착민들은 대부분 피난민들로, 이곳을 종전 후 귀향을 위한 거점으로 생각하고 임시로 정착한 상황이었다. 북에서 남하할 때 청호동에 자리 잡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배를 이용하여 피난을 나왔으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도 배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배를 정박하기 쉬운 지역이 임시 거주 공간으로 적당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청초호의 사구는 빈 터여서 다른 지역에 비해 큰 갈등 없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휴전선으로 남북이 가로 막히자 모래사장의 임시 정착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이곳에 정착하게 된다. 어느 정도 마을이 형성되면서부터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피난민들은 이곳에 친척이 있어 이주하거나, 같은 고향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주하는 등, 여러 계기로 모여들어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피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일시적인 움막형태의 집들이 들어섰고, 동향사람을 찾아 몰려 든 이들이 정착하면서 신포마을, 정평마을, 홍원마을, 단천마을, 앵고치마을, 짜꼬치마을, 신창마을, 영흥마을, 이원마을 등의 집단촌이 형성되었다.

또한 청호동은 ‘아바이 마을’이라는 별칭으로도 유명하다. 사전적으로 ‘아바이’라는 말은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를 의미하는 방언으로 경상북도와 평안도, 함경남도 일대에서 사용되며 지역마다 어감은 조금씩 다르다. 과거 청호동 주민들 중에서는 함경남도 북청군 사람들이 주로 ‘아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보다 나이 많은 남성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아바이 마을’이라는 단어의 연원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찾기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단어의 연원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아바이 마을’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자기정체성의 자각이다. ‘아바이’라는 것은 전쟁 피난민을 상징하는 근원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마을’이란 현실적 기반을 의미한다. 즉 청호동을 대변하는 이미지는 ‘실향과 망향’이다. 이 두 가지는 청호동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의 키워드다.

청호동의 인구가 정점을 이르던 때가 1966년경이다. 이후로 청호동의 인구는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서고 1980년경에 가장 많은 인구가 빠져 나갔다가 이후로 다시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 서게 된다. 청호동 인구의 감소는 당연히 어획량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주지한 자연 환경적 영향 이외에도 청호동 생활환경의 변화나 속초시의 팽창, 정착민 2세 및 3세들의 외부 진출 등도 청호동의 어업 위축에 복합적인 영향을 주었다. 마을이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관광지화되어 가는 분위기는 식당과 커피숍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마을의 중심이 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또한 신수로 개설과 금강대교, 설악대교가 개통되면서 두 개의 청호동으로 분리된 오늘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III. 지역문인의 시 속에 나타난 청호동의 이미지

지역 문인 중 실향민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이야기한 시인은 단연

이상국 시인과 김춘만 시인이다. 이상국 시인은 청호동, 갯배와 함께 그 마을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노래하였다. 반면 김춘만 시인은 본인이 태어난 고성 공현진에 뿌리내린 피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실향과 망향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중 지역문인들이 노래한 20여 편의 시 작품을 통해 청호동의 형상화된 이미지를 찾아보자.

1. 피난민 1세대들의 디아스포라로서의 청호동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0년에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 김민정 교수가 ‘가족과 문학’ 제26집 3호에 발표한 「복 없으니 고생이지 : 한국사회의 변화와 ‘피난민’ 장씨의 생애 이야기」에 인용된 논문 일부를 요약해 옮겨 본다.

“전쟁 때문에 집단적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피난민은 ‘국내 난민이주자’라는 디아스포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화와 통합의 측면에서 볼 때 국제 난민의 사례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로 볼 것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사실 디아스포라의 개념 규정은 애매한데, 가장 고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샤프란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아스포라는 첫째, 하나의 중심에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주변장소로 분산되며, 둘째, 원 고국에 대한 기억과 신화를 유지해야 하고, 셋째, 자신이 방문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럴 수 없다고 믿으며, 넷째, 고국은 때가 되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라 여기며, 다섯째, 고국의 유지나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여섯째, 이들의 집단의식과 연대는 고국과 지속되는 관계로 정의된다. 그런데 김귀옥에 의하면 ‘월남민’들은 고전적 의미의 디아스포라로 보기 힘들다. 이들에게는 귀향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유대인 집단을 설명하던 디아스포라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남한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기 때 문에 해외 한인과도 다르며, 뚜렷하게 사회적 소수집단으로 인식되는 것도 아니며, 민족공동체 의식에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토 렐리안(Tololian)의 견해처럼, 오늘날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이주자 와 국외자, 난민, 이주노동자, 추방커뮤니티, 재외 커뮤니티, 종족 커 뮤니티와 같은 말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영역을 일컫는다.”

지역 문인들의 청호동에 관한 시 몇 편을 살펴보자.

청호동 방파제 너머 떠다니는 섬이 있다는 걸 /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장화를 신은 채 청호동 사람들마저 잡들고/
홍남이나 청진물이 속초 물과 쓰린 속으로/
새섬 근처에서 캄캄한 소주를 까다가 쓰러지면/
북쪽으로 날아가는 새 섬을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헐떡거리며 짐승처럼 날다 바다의 벽에 / 다치고 돌아와 죽은 듯이 잡드는/
청호동 방파제 너머 새섬을 사람들은 모른다./
청호동 사람들의 동해 밑바닥 국적 없는 고기를 잡거나/
모래위에 집짓고 아이들을 낳는 사실을/
믿거나 믿지 않는 건 무서운 일이다./
나룻배 끊기면 흐르는 땅 모래 께 앓고 아바이들 잡드는/
청호동 방파제 너머 이남 물과 이북 물이/
야 이 간나이 새끼 마이 늙었구만 하며/ 공개적으로 억세게 무너지면/
동해 속으로 사라질 청호동은 잠시 객지일 뿐이고/ 분명히 객지여야 한다./
청호동 방파제 너머 청호동 사람들의/
흐르는 섬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청호동 새섬」(이상국)

떠나야지./ 청호동은 청호동 사람들의 땅이 아니고/
그저 남한의 공유수면일 뿐,/ 이곳에선 물이 흐를 때마다/
자꾸 발목이 빠진다./ 잊혀지지 않으려고/ 잡들지 않으려고/

서로 모래뿌리는 저녁,/
갈매기들이 청초호 더러운 물에 부리를 박고 있을 때/
늙은 아바이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바라보고 있다./ 섬이 아닌 줄 알면서도/
끌끌내 떠도는 섬,/ 흐르고 물이 흐르는 동안/
청진이나 신포 부두에 매어 놓은 배들이 삐걱거린다.

「떠도는 청호동」(이상국)

이상국 시인은 청호동은 섬이 아니되 섬이라고 말한다. 즉 지정학적으로는 섬이 아니지만 피난민 1세대들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언제든 떠날려고 마음먹고 있는 청호동 모래밭은 ‘청호동 사람들의 땅이 아니고, 그저 남한의 공유수면일 뿐’이고, ‘이남 물과 이북 물이 공개적으로 억세게 무너지면 동해 속으로 사라질 청호동은 잠시 객지일 뿐’인 곳이다. 그러나 여기서 섬은 또 다른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바로 피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단절’에 대한 함의적 단어이기도 하다. 고향과 고향에 담긴 추억, 생사조차 알 수 없는 피붙이와 일가친척들, 생업과 예전에 가졌던 것을 찾지 못하는 상실감 등이 가져다주는 단절감을 시인은 갈 수 있으되,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닌 ‘섬’으로 1세대 피난민의 디아스포라를 보여주고 있다.

새는 이곳에서 먹이를 찾지 않는다
두 눈과 두 발을 모두 걷고
청초호 어디쯤 잠기어 가는 신촌이나 함흥을
청호동 가는 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청호동 일기 3」(김영준)

햇발이 종종걸음으로/ 달려오는 날에도/
캄캄한 대낮이 걸려드는 청호동 그물//
핏발선 광녀의 목청이/ 와-와 울며 걸려도/ 소금에 절여진 모래땅이/
등 따신 아랫목이 될 수 없다며/ 비릿한 바람으로 몰려와 안겨도/

어제 놓아준 명태가/ 청상과부로 늙고 있는 고향을 물고 와/
저녁노을로 걸리고//
청초호 갈매기 때/ 속초 하늘을 끼룩이는데/ 섬달 하현달을 건져 올리는/
청호동 그물.

「청호동 그물」(채재순)

열 개의 다리가 있는 일 열/ 허공에 매달려 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인연으로/ 청호동에 모여 나부끼고 있다//
소금기 묻은 바람 불어와/ 온 몸 탈수가 일어나는 한낮이면/
죄어오는 그리움에/ 눈이 짓무르도록 울어버리고//
“먹물 뽑어내던 그 바다 돌아갈 순 없을까”//
목이 아프도록/ 청호동 하늘의 별을 세며/ 오징어들은 밤이슬 맞고 있다//
북쪽 고향바다 그리워/ 줄에 매달린 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인연으로/
팔에 팔을 걸치고/ 바다보다 속 깊은 청호동 사람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오징어 덕장이 있는 청호동」(권정남)

이상국 시인이 ‘섬’으로 디아스포라를 표현했다면, 김영준 시인은 ‘청초호 어디쯤 잠기어가는 신촌이나 함흥’을 통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청초호 물속에 가라앉은 불빛으로 표현했고, 채재순 시인은 그들이 깔고 앉은 청호동이 ‘소금에 절여진 모래땅이 등 따신 아랫목이 될 수 없다며’ 늘 떠남의 열망을 가진 그들이 따스하게 등 붙일 곳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권정남 시인은 청호동은 그들에게 그토록 돌아가고 싶은 ‘먹물 뽑어내던 그 바다’가 아니라 ‘소금기 묻은 바람 불어와 온몸 탈수가 일어나는 한낮이면 죄어오는 그리움에 눈이 짓무르도록 울어버리고’ 싶은 대기소일 뿐이었다.

2. 피난민 1세대들의 희망과 좌절의 땅 청호동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호동은 피난민 1세들에게 고향으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대기소요, 피난처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집을 짓고 터를 잡은 것이 아니라 모래밭 위에 임시로 움막을 짓고, 집 앞 바다에서 생선을 잡으며 귀와 눈을 북쪽 땅을 향해 크게 열어 두고 살아갔다.

그날 단천에서/ 벤길로 사흘 객지 속초에 와/
나무를 심는 일은 단천을 버리는 일이다./
그렇게 청호동 모랫바닥에 엊드렸다가/ 한두 달이면 떠나야 할 객지,/
청호동에 나무를 심고 뿌리를 키운다는 건/ 단천나무를 욕하는 일이다/
철공소집 변돈도 받아야 하고/
빼뚤네 콩 명식 두 냥도 돌려줘야 하는/ 단천이 보이지 않는다./
벤길 사흘 머나먼 단천 때문에/
나무를 심지 못하는 청호동 사람들의 단천은/
단천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겐 아프리카나 마찬가지임을/
청호동 사람들은 눈치채고 있지만/
아직 청호동 모랫바닥에 나무를 심는 일은/
벤길 사흘 단천을 아주 버리는 일이다.

「청호동에 나무를 심는 일은」(이상국)

그물이나 작살로는 잡을 수 없는 안개 때문에/ 원산이 보이지 않는다.
원산이 보이지 않으면 결코 보일 수 없는 서울, /
안개 속에 넘어진 아바이들은 모래바닥에 못을 박으며/
캄캄한 소주만 마신다./ 안개가 청진을 먹고 원산 진남포를 먹어 치우고/
목포 인천을 먹으며 영을 넘어와/
뻔뻔스럽게 청호동 여자들과 동침하는 밤에도/
인천 등대와 같은 속초 무적霧笛으로는 속수무책이다./
청호동이 아프면 같이 아프다고 그리움 속에 몸을 숨기고/

지워져야 한다고, 아픈 청호동은 지워져야 한다고/ 안개는 속삭인다./
전라도나 함경도는 지구에 없다고/
먹어 치우는 안개 잡으려고 작살이나 그물 펴 들고/
넘어진 아바이들 기 쓰다 잡들면/ 지워지지 않으려고 우는 청호동.

「청호동 안개」(이상국)

물을 모여도 이곳에선/ 모래를 끌지 못한다//
새들은 새섬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고/ 주둥이 가득 거품만 물고 있다//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술잔을 달래고 있을 때/
고인 물처럼 점점 어두워가는 파도가 오늘도 다만 침묵하고 있다//
아픔이라고 하자/ 허연 생채기 같은/ 우리를 끊겨진 길이라 하자//
아침과 아침의 말을 고이 보내고 난 다음/ 청호동 네 굳은 어깨 너머/
기침 같은 소주만 보이고//
물을 모여도 이곳에선/ 꽃이 되지 않는다/ 처박고 앓을 나무가 되지 않는다

「청호동 일기 1」(김영준)

그런 청호동 아바이들의 삶을 이상국 시인은 ‘청호동에 나무를 심고 뿌리를 키운다는 건 단천나무를 욕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사흘이면 돌아갈 수 있는 고향 단천을 두고, 돌아가서 헤어진 이웃들에게 줄 것도 받을 것도 있는 청호동 아바이들에게 놀러 살 목적으로 청호동에 집을 짓고, 나무를 심는 일은 고향을 포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생각과 현실은 늘 틈이 있어 ‘시간과 환경’이라는 청호동 안개는 ‘청호동이 아프면 같이 아프다고 그리움 속에 몸을 숨기고 지워져야 한다고, 아픈 청호동은 지워져야 한다고’ 속삭인다. 이제 그만 잊어버리라고 속살거린다. 그러나 그러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에 ‘넘어진 아바이들 기 쓰다 잡들면 지워지지 않으려고 우는 청호동’으로 각인된다.

김영준 시인도 그 시절 청호동을 아바이들의 삶을 ‘물을 모여도 이곳에선 꽃이 되지 않는다 처박고 앓을 나무가 되지 않는다’라고 노래

한다. 주둥이 가득 거품을 물고 새섬을 갔다 와도 끊겨진 길은 다시 이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청호동 아바이들은 서서히 좌절과 체념을 배운다.

청호동 일원에 마른 바람이 한때 지난다/
서서히 파도치기 시작하던 청호동의 좁은 어깨
펄럭이는 판자지붕/ 동에서 서로 바삐 움직이는 비릿한 손놀림//
망각의 연기로 꺼져가는/ 청호동 골목골목의 원흔들//
청호동 골목길에는 파도가 혀를 내밀다가도/
아주 속속들이 사리를 틀었다//
청호동 옷 소매 속/ 부엌 아궁이까지 날 세운 바람은 자리를 굳히더라//
청호동 바람은 밤마다 청호동을 떠메고/
고향 뜻까지 다녀서 바삐 돌아온다 하더라/
고향집 텃밭도 돌아보고 안방도 기웃거리다가/
새벽이면 스르르 제자리로 돌아온다더라/
청호동 골목은 그러니까 검은 파도가/ 한의 높이까지 치솟아 오르지/
청호동 아낙들은 밤 깊도록 낚시 바늘에/
고향을 찍어서 바람을 찍어서 이야기처럼/
서리서리 대바구니에 그걸 담는 일을/ 아주 이슥토록 하더라

「청호동 바람」(박명자)

가지를 치고 있어요./ 파고들어 모래뿐인 땅 위에 피는 소금꽃/
나무들은 혼들리며 소금을 뿜어내요./
이 세상 한복판 낯선 땅에서 날아온 가지들이 버린 안개와 모래 바람 속에서/
그렇게 쓰디쓴 수액을 나누는 일은 신기해요./ 보아요./
발바닥 써늘한 소금밭에 지난날을 묻어 두고/
흰 뼈의 통통선은 어디로 가는지/
안개가 끌고 다니는 적막 속에서 맨 발의 아이들이 뛰어 올라요.
그물을 치고, 친 그물을
끌어올리는 익숙한 장난질 속에는/

펄떡거리며 아비가 놓친 고기떼가 걸려들고
와와 작은 섬을 채우는 환호 소리에 나무가 흔들려요./
흔들리며 소금을 뿜어내요.

「청호동 나무」(김춘만)

박명자 시인의 청호동 바람에서 이제 청호동 아바이들은 꿈속에서 고향뜨락을 돌아보고 다시 새벽이면 제자리로 돌아와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아마이들은 밤 이슥토록 명태낚수를 찍어낸다. 이제 눈에 가물거리는 고향보다 커가는 자식들이 더 눈에 밟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청호동의 변화를 김춘만 시인은 청호동 나무에서 ‘모래뿐인 땅 위에 흔들리며 피는 소금꽃 같은 청호동 나무’를 본다. 그 청호동 나무는 청호동 아바이들이 나무를 심으면 고향을 버리는 것 같은 죄책감으로 심지 못한 나무 대신 ‘펄떡거리며 아비가 놓친 고기떼를 잡고, 환호 소리로 소금을 뿜어내는’ 아이들이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청호동 주민으로 자리 잡게 된다.

엊저녁 청호동에서 마신 소주는/ 그리운 바닷물인 줄 알았다/
어쩌면 그 놈이 마시고 간 바닷물도/
십중팔구 씁쓰름한 소주맛이었을지 모른다//
휘청이는 바닷물에 떠서/ 잡기는 뱃줄 건져 올리며/
힘있게 뱉아내는 소주 기운이/
매양 이승의 아침으로 닥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판장 죽은 생선들/
감지 못한 눈동자 핏발 같은 햇살로/
따스해져오는 속초의 지붕들과 창문들을/
아슴아슴 바라보는 것 또한/ 낯설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엊저녁 청호동에서 마신 소주는 정말 내 고향 바닷물인 줄 알았다/
부러진 나무젓가락 두드리는 소리도/
젊은 날 네 녀석들 웃음소린 줄 알았다/
이 땅에 새로 심은 나무들이 자라고/
뜰 앞 꽃덤불도 해마다 줄기를 키우는데

술 깨는 아침이면/ 동전만한 크기로 가물대는 땅/ 고개 돌려 따라가면/
무더기로 내다버린 눈동자들뿐인 바다//
바람만 드나드는 눈자위에/ 하나 가득 다시 해장술을 따르면/
아바이 아바이 고향이 어데요/ 아바이 아바이 타향은 어디메요/
갈매기들 끼룩대는 소리에/ 새로 돋은 하루가 물살로 감긴다

『청호동 아바이』(장승진)

바람이 불어 가끔 해금강 하얀 모래를/
청호동 방파제 위로 한 마장씩 부려놓고 간다네.//
수평선 위에는 가끔 붉은 달이 떠오르고/
달 속에 숨었던 어린 나의 연인이/
선연한 눈물 한 줄기 떨어뜨리고 가기도 한다네.//
때로는 처자를 남겨두고/
바다 건너 한사코 떠나겠다고 마음먹기도 한다네.//
손 내밀면 닿을 것 같은 내 고향/ 뗏목을 타고 건너도 한나절일 텐데/
나는 가지 못했네.// 나는 이제 걷지도 못하고/
나의 연인을 알아보지도 못하네.//
아무 것도 그리워할 것이 없다네/ 아무 것도 보고픈 것이 없다네.//
그러나 지난밤 차가운 비바람 속에/
청호동 모래밭에 숨어 있는 메꽃 한 송이/
꽃잎이 다칠까 작은 손바닥으로 가리느라/ 전전긍긍하였다네.

『아버지의 일기 – 청호동에서』(최월순)

봄은 오지 말라고 / 냉이 꽂 꾀었습니다./ 별들의 폭죽/
금강산 왕벚꽃나무 가지에/
매달려 울다 / 세월(歲月) 다 갔수다.//
쉽게 오진 않을 거라던/ 청호동 돌담길/ 속살 드러낸 향기/ 진동하네요.//
가진 가는데/ 비무장지대 꼭대기 대동강 가/
간헐성 폭발 장애 증후군 앓는 큰 아이 집에/ 진달래 피어야/ 가네요.//

『속초, 청호동』(김영섭)

영영 다시는 못 만날 것을 알면서/ 얼싸안은 꿈결에 비단자락 흔들며/
겁으로 이별하는 동기간이 있다./ 북망산천 다다라서/
문풍지처럼 서러운 미수에/
혈육의 여한을 염장하는/ 처절한 눈물 강/ 범람하는 겨레가 있다./
바라보는 별 밭이면 그립지나 않지./
함께 묻힐 수 있는 고살이면 서럽지나 않지./
심장을 옥죄는/ 자절의 끈이 어디더냐?/ 농잇소를 다 팔아 주고/
전지 거두어 다 바치고라도/ 아니 되겠나이까/ 단전 저린 눈빛/
상봉 채비 서슬서슬한 흰 고무신/ 상여꽃이 피었네.

「다시 청호동에서」(김영섭)

청호동 모래밭에 잠시 짐을 부렸던 피난민 1세대들은 결국 귀향을 면 훗날의 일로 기약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청호동에서 마신 소주는 정말 내 고향 바닷물인 줄 알았다’고 위안하며, 서로 고향을 물으면서 다시 해장술을 마신다. 그 해장술은 오늘 새로 감겨 오는 하루를 견뎌내야 할 피로회복제이자 고향을 잠시 잊게 하는 진통제이다. 그들은 ‘나는 가지 못했네. 나는 이제 걷지도 못하고 나의 연인을 알아보지도 못하네.’라고 말하지만 늘 그들의 눈과 마음은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1985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또 다른 희망이었다.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가슴 깊이 묻어 두었던 피붙이들과 만날 수 있고, 아스라이 떨어진 고향길이 다시 보이는 가느다란 연결고리였다. 그러나 그 희망의 끈을 잡기도 힘들었고, 피붙이를 만난 이들도 그다음이 보이지 않았다. ‘논밭과 소를 팔아서라도 함께하고 싶지만, 상여꽃이 피도록 세월만 다 갚수다’라고 다시 절망한다.

3. 실향민 2세대의 삶이 가지는 청호동의 이미지

청호동 바닷가의 삶은 늘 치열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피난민 1세대들은 악착같이 살아가야 했다. 남정네들은 툭하면 바람 부는 동해바다에서 섬으로 가라앉았다. 오징어를 말리거나, 밤늦도록 명태낚수를 찍어야 하는 엄마 곁을 순가락 빨며 맴도는 아이들이 눈에 띈 혀 고단한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 있어야 고향도 잘 수 있으니까... 이제 그들은 피난민이 아닌 실향민으로 청호동에 얇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새벽을 건져 올리던 바람이/ 어지러운 물살로 뒤척인다//
어느 아침이면 돌아갈 수 있을까/ 그물질을 기다렸던 명태가/
비릿한 바람으로 걸려들고//
청호동 마실을 따라 나란히 선/ 단천상회, 북청이용소 간판이/
네 이놈, 네 이노옴!/
뚫어지게 내려보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
아이들이 햇살로 깔깔거려도/ 설악산 대청봉 바람에/ 손발이 시린 청호동은
아침이 오지 않는 한/ 캄캄한 바람, 어두운 대낮이다.

「청호동 바람」(채재순)

이제 아이들은 '단천 상회, 북청 이용소' 간판이 가지는 의미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른들의 뜻이고, 아직 어른들은 돌아갈 아침을 기다린다. 그래서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열심히 뛰어 노는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청호동은 아직 어두운 대낮이다.

내가 죽었다면/ 그것은 목을대가 메었기 때문이다//
갈매기를 모래밭에/ 울며 받아 적고 / 울고 읊은 이름들/
유언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청호동 바닷가에서」(김향숙)

청초호를 가르는/ 휴전선 닮은 모래톱 위/ 집들이 나지막하다/
잠시 비를 긁고/ 바람만 막기 위해/ 오래전/ 그들은 혼들리는 모래톱 위에/
그렇게 엎드려 있었다/ 면 훗날을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잠깐 쉬어 가는 곳/
그렇게 내린 실뿌리가/ 50년 묵은 뿌리로 자리 잡아/
이제는 홀홀 털고 일어설 수도 없다/
갯배 위로 철다리가 놓이고/ 바닷길이 뚫려도/ 고향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어/ 죽은 이는 혼으로 떠나고/ 살아있는 이는 등 떠밀려 떠나고/
어찌지 못하는 사람만이/ 하나 둘 높아져 가는 집들 속에/
가쁜 숨 몰아쉬며/ 남작 엎드려 숨죽이고 있다

「청호동 낮은 집」(김종현)

기차도 기찻길도 없는 속초 역사(驛舍)에서/ 전쟁의 아픈 기억이/
7분짜리 영상물로 상영되고,/ 남루한 판자촌은/
지워져 가는 기억의 증인으로/
빈 역사를 지키고 있다//
며칠, 아니 몇 달을 기약으로/ 시작된 피난살이/
고향땅 다시 밟을 희망이 있어/
거친 바다에 삶을 내린 함경도 아바이들/ 모래땅 한 평짜리 판잣집도/
배고픈 설움도 견뎌 낼 수 있었다는데//
그리움으로 지켜낸 무심한 시간은/ 기약도 희망도 모르는 쳐/
저 혼자 흘리가고/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뿌리내린/ 대를 이은 실향의 아픔만이/
빈 역사와 남루한 판자촌으로/
실향민 문화촌, 꽃비 내리는 뜰을 지키고 있다.

「청호동 아바이-실향민 문화촌에서」(정명숙)

그렇게 청호동 모래밭에 내린 얕은 뿌리들이 제법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가 될 만큼 깊은 뿌리로 잡아가게 되자, 이제 1세대 피난민들은

‘울며 받아 적고, 울면서 읽은 이름’ 때문에 목울대가 메어 하나 둘 죽은 혼으로 고향을 찾아 간다. 거기에 청호동이 드라마 촬영지로 뜨면서 상업자본이 청호동을 잠식하고, 개발에 밀려 청호동 낯은 집을 떠나 시내로, 객지로 이사를 가며 청호동이 점차 본 모습을 잊어가게 된다. 이제 오래된 속초의 뿌리를 보려면, 실향민 문화촌 꽃비 내리는 땅에 박제된 청호동을 보러 가야 한다.

청호동에 가본 적이 있는지/ 집집마다 걸려있는 오징어를 본 적이 있는지/
오징어 배를 가르면/ 원산이나 청진의 아침햇살이/
페들썩거리며 튀어 오르는 걸 본 적이 있는지/ 그 납작한 몸뚱이 속의/
춤추는 동해를 떠올리거나/
통통배 연기 자욱하던 갯배머리를 생각할 수 있는지/
눈 내리는 함경도를 상상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오징어 속에는 소줏집이 들앉았고/
우리들 삶이 보편적인 안주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마흔 해가 넘도록/
오징어 배를 가르는 사람들의 고향을 아는지/
그 청호동이라는 떠도는 섬 깊이/
수장당한 어부들을 보았거나/
신포 과부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는지/
누가 청호동에 와/ 새끼줄에 거꾸로 매달린 오징어를 보며/
납작할 대로 납작해진 한반도를 상상한 적은 없는지/
혹시 청호동을 아는지

「청호동에 가본 적이 있는지」(이상국)

물길을 트느라/ 사람의 발길을 끊었다/ 아바이 마을의/ 새로운 38선//
이제 더 이상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20분과 5분의 차/ 야경 사진의 멋진 배경이 된/ 두 개의 철제 다리//
잃은 것에 대해 누구도 말이 없었다//
가을동화 은서네 집/ 1박 2일이 다녀간 집/ 입맛이 아닌 입소문을 팔고
삶이 아닌 드라마가 사는 곳//

발뒤꿈치로 늘려서 팔던 말린 오징어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고향을 잊지 않으려던 이들과/ 그들의 삶을 나르던 갯배마저/
편도 200원짜리 인증샷의 배경이 되어버린/오늘 저녁 무렵//
청호동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청호동이 지워지고 있다」(김종현)

이제 청호동 사람들도, 실향민 2세인 우리도 선뜻 청호동에서 ‘원산’이나 청진의 아침햇살’과 ‘수장당한 어부’와 ‘신포 과부들의 울음소리’를 기억해 내지 못한다. 그러니 누가 거기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납작해진 한반도’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고작 ‘입맛이 아닌 입소문을 팔고, 삶이 아닌 드라마가 사는 곳’으로 청호동을 리모델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속초의 역사이자, 더 나아가 대한민국 유일한 실향민 브랜드인 ‘청호동 아바이 마을’의 뿌리를 지워가며, 관광 1번지만을 외치는 일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IV. 갯배의 역사

청호동과 중앙동을 이어 주고 있는 도선(渡船) 갯배는 일제 말기에 속초항이 개발되면서부터 그 세월을 함께하고 있다. 예전에 반부평(청호동)으로 불리던 이곳은 속초 부월리 2구(청호동)과 속진(영랑동과 중앙동의 일부)이 맞닿아 있던 것을 준설, 외항과 내항(청초호)이 통수되고 폭 92m의 수로가 형성되자, 이 마을 사람들이 거룻배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였고, 특히 자전거나 손수레의 이용은 더 어려웠다. 1955년 속초읍에서 갯배 1척을 만들어 도선에 이용하게 되었는데 본래 크기는 트럭 한대와 우마차 한두 대를 같이 실은 정도였다. 1961년도에 1척을 더 만들어 정식 도선업 허가를 받아 재향군인회 속초지회에서 위탁하여 운영을 하게 되었다. 속초시에서는 1988년에

다시 청호동 개발위원회에 위탁 운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의 갯배는 1998년에 35인승 FRP선으로 개조한 것이다. 갯배의 운항시간은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청호동 주민들에게는 처음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해 유료 이용객수는 15만에서 20만명이며, 청호동 주민의 이용도 연간 20만 명을 넘으면서 갯배는 피난민들의 애환에 담겨 있는 소중한 기억으로 또한 속초 시민과 동고동락하는 삶의 현장으로 함께하고 있다.

갯배는 양쪽에 두 가닥을 쇠줄을 매어 놓고 각 쇠줄별로 하나의 배를 고정시켜 사람이 직접 갈고리로 쇠줄에 걸어 당기면서 배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운행하는 명텅구리 배다. 이 갯배에 승선하는 사람은 노약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갈고리로 이 배를 끌어야만 청초호의 수로(바다)를 건널 수 있다. 이 배는 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스쳐 지나는 명장면을 연출하면서 국제적으로 유명해졌다. 최근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시내로 넘어가기 위해 이용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탔다. 도로를 이용하여 중앙동과 청호동을 이동하면 30분이 걸리지만 갯배를 이용하면 5분 만에 왕래할 수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아바이마을 갯배에서 인용-

이렇게 청호동 주민들의 생활 수단이었던 갯배는 이제는 시내로 볼일 보러 가는 노인들 몇 분만 이용하고, 오후와 주말에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와 직접 쇠줄을 끌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인증 샷의 배경이 된 관광 상품으로 더 유명해졌다.

그런데 기존 갯배는 지난 2015년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안전검사 대상이었으나 건조 당시부터 무동력선으로 안전검사 요건인 제조검사도 받지 않아, 승선인원을 33명에서 12명으로 감축 운행해 왔다. 2017년 11월 15일에 속초 도심과 청호동 아바이마을을 연결하는 속

초의 명물인 갯배(청호도선)가 새로 건조돼 운행에 들어갔다. 새 갯배는 길이 9.5m, 승선정원 32명 규모이며, 이용요금을 10여년 만에 현실화해 소인은 기존 100원에서 300원, 대인·손수레·자전거는 기존 2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했다. 이용시간은 오전 5시~오후 11시 까지며, 연중무휴다. 속초시민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설악신문 기사 인용 -

V. 지역문인의 시 속에 나타난 갯배의 이미지

갯배는 속초의 또 다른 상징이자 청호동의 이미지와 늘 같이 따라 다니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갯배는 속초에서 실향민 하면 연상되는 1·4 후퇴 – 함경도 – 청호동 – 아바이마을 – 갯배로 연결되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우리는 뱃길 북쪽으로 돌릴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이 무거운 청호동 끌고 갈 수 없어/
와이어 로프에 복장 째인 채 더러운 청초호를 헤맬 뿐/
가로막은 철조망 너머 동해에서/
청진 원산물이 가자고/ 신포 단천물이 들어가자고/
날래 따라 나서라고 날마다 아우성인데/ 우리는 동력도 키도 없어/
바람 물 때 손바닥 보듯 하던 아바이들 모래벌에 다 묻고/
이따위 죽은 배로는 갈 수 없어/
와이어로프에 복장 째어 떠도는 함경도일 뿐./
우리는 강원도가 아니야/ 우리는 속초가 아니야.

「청호동 갯배」(이상국)

갯배를 아는지/ 언제 가나 함경도/ 자별레 제 몸 재며 가듯/
온몸으로 기어가는 배를 아는지/

그 배 타고 꽃 피는 단천 가는 사람들 아는지/
한 오십 년 속초와 신포 사이를 오가는/ 꿈길을 아는지/
가다가 가다가 풍덩/ 푸른 동해 빠져 죽고 싶은 배를 아는지/
혹역사라는 명텅구리 배를 아는지/ 함경도에 가본 적이 있는지/
청호동을 아는지

「갯배」(이상국)

우리는/ 우리들 떠도는 삶을 끌고/ 아침 저녁 빼걱거리며/
청호동과 중앙동 사이를 오간 게 아니고 / 마흔 몇 해 동안 정말은/
이북과 이남 사이를 드나든 것이다/
갈매기들은 슬픔 없이도 끼룩거리며 울고/
아이들이 바다를 향해 오줌을 깔기며 크는 동안/
세계의 시궁창 같은 청초호에 아랫도리를 적시며/
우리는 우리들 피난의 나라를 끌고/
마흔 몇 해 동안 정말은/ 우리들 살 속을 해맨 것이다

「갯배 1」(이상국)

지역 문인 중 ‘청호동’과 ‘갯배’를 가장 시 작품으로 많이 형상화한 이상국 시인은 초기부터 한참 동안을 갯배를 속초나 청호동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함경도 청진, 원산, 신포, 단천의 어디쯤으로 보았다. 그래서 북쪽의 한류가 속초 바다를 찾아오는 계절이면 날래 고향으로 가자고 귀향의 꿈을 키우지만, 청초호 더러운 물 속에 잠긴 와이어 로프에 복장을 훠친 갯배는 스스로 떠날 수도 없고, 그저 기어 다니는 명텅구리 배일 뿐이다. 그러나 또한 청호동 사람들에게 갯배는 실제적으로는 단순히 시내로 가는 교통수단이지만, 심정적으로는 피난 내려와 지금까지 살아 온 마흔 몇 해 동안 계속적으로 드나들었던 고향과 피붙이 속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로 풀어냈다.

미시령 너머로 해 떨어지고/ 개 건너 호텔은 벌써 불야성이다./
월급쟁이들 학생들 리어카 품팔이 갔다 돌아오는 여자들로/

청호동 들어오는 배는 몸이 무겁다./
-야야, 성진胡同 선자야! 느 엄마가 꼬치끼리 사 오래는 걸/
내래 깜빡 까먹었다. 니 건너울 때 사와라/
들어가는 배를 탄 아주머니가 나가는 배에 대고 소리 지른다./
-에이, 아줌만 쟁피하게, 얼마친데요?/
하고 건너다보는 처녀 얼굴이 고춧가루 빛이다./
-야 이 간나 다 컸다고 꿀값한다. 무시기 쟁피하니,/ 꼬치끼리 안 먹고 사니?
학생들이 먼저 킥킥거리자/ 오가는 배에 탄 사람들 모두 웃는다./
오늘도 갯배는 청초호 가운데서 수없이 만나고 헤어진다.

「갯배 3」(이상국)

겨울 새벽/ 영하의 기온 속에 눈발 조차 흘날리는/ 청호동 갯배//
아바이는 새벽 4시를 열고/ 명태바리 나갔고/ 동해 수평선에서 날아온/
눈 푸른 팽이갈매기들/ 표범보다 날카로운 송곳니로/
ㅋㅋㅋㅋ 갯배머리를 쪼아대었다//
오마니는 펄펄 뛰는 생태를 고봉으로/
고무 험지밖에 담아 머리에 이고 섰다//
자전거를 끌고 배에 오는 면서기 아저씨/
강아지를 데리고 할마시 한 분도 배에 올랐다/
책가방을 들고 서있는 미래의 꿈나무들 … //
살아있는 풀잎 같은 생명체들이/ 빙산 같은 동체를 입김으로 움직여서/
청호동을 떠밀고 갔다 // 청호동 갯배는 아침마다/ 만삭이었다

「청호동 갯배는 만삭이었다」(박명자)

그러나 한편 갯배는 청호동 주민들의 진정한 삶의 터전인 청호동과 각종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속초 시내와의 유용한 연결 고리였다. 일터로, 학교로, 시장으로 통하는 일종의 마법통로와 같았다. 그들은 갯배를 기다리며 단천액이 엊저녁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았고, 갯배의 갈고리를 함께 당기며 함홍액의 은근한 흥볼거리를 속닥대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다른 갯배를 보며, 인사도 나누고 깜빡 잊어버

린 물건도 심부름시킬 수 있는 아주 쓸만한 소통의 광장이자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너에게 내린 줄을 당기고 싶다는 건/ 내게로 오게 함이었다/
뱃전에 달라붙는 소외된 냉기쯤/ 더 아플 것 없는 청호동 바람에 훑어내고/
가끔 큰 배가 지나칠 때마다/
물결 사이로 솟구치는 유혹은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네가 왜/ 면 바다에까지 외등을 밝히고/ 밤마다 서성이는지 알아야겠다/
갈고리에 끼운 쇠줄/ 힘껏 당기어/ 네 가슴 한가운데를 끌어내는데/
내 먼저 가고 있는 건/ 발 먼저 내달아지는 건 무슨 까닭인가//
바람 속 너를 끌어안고 싶은/ 오늘/ 내 가슴 한가운데로/
굵은 쇠줄 하나 내리고 싶다.

「청호동으로 가는 갯배」(지영희)

줄을 당긴다/ 내가 너에게로 가는 길/ 물 속 깊이 가라앉아/
보이지 않는 줄을 당기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드러나는 너와 나의 질긴 인연//
가 보지 못한/ 너의 길을 걷기 위해/ 오래 걸어 왔던/ 나의 길에게/
등을 돌려야 한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저 깊은 뻘밭에/ 훌러간 시간들을 버리고/
잊지 않은 꿈도 버리고/
나도 벼려야 한다// 가까워진 만큼/ 또 멀어지는 것들로/ 청호동 갯배는/
날마다 줄줄 눈물 흘리고 있다.

「청호동 갯배」(김종현)

물가에 서면/ 돌아갈 곳이 있을듯해/ 잔잔한 파문 몰고 들어설 마을이/
있을듯해//
골목을 몰고 다니던/ 스산한 바람/ 남아있는 사람들 몇 집 건너씩/
쪽마루에 걸터앉아/
검버섯 드뭇한 햇살 받아 놓고/ 시름없이/

하여 봉분 돌우지 못한 문돌찌귀 그대로 두어/
무서운 겨울 손에 찍찍 불던 추위/
기억의 저장장치를 슬라이드로 열어놓고 있는/
해가 지지 않는 마을// 물가에 서면 돌아올/ 그 누군가가 있을 듯

「청호동 갯배」(조인화)

위의 갯배에 관한 시 3편은 단순하게 갯배를 실향의 상징으로만 표현한 시로 볼 수 없다.

언어가 가지는 다의적 특성을 살려 시 작품을 읽는 독자의 해석에 맡겨놓은 시라고 본다.

즉 위 갯배에 나타난 이미지는 크게 2가지로 읽힌다. 그 첫 번째는 속초와 갯배에 담긴 실향의 메시지를 읽어 낼 수 있는 독자는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청호동 실향민의 그리움을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갯배를 청호동과 속초 시내를 연결하는 끌배로 인식하고 있는 독자들은 위의 시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해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세월이 흘러 실향의 아픔과 망향의 그리움이 희석되었다는 의미이다.

저렇게 푸른 동해도/ 청초호에 들어오면 썩을 수밖에 없다/
흐르는 물 길 막하면/
우리들 그리움 또한/ 이까 복장처럼 새까맣게 명들 수밖에 없다/
갈매기들 흰 배 뒤집으며 끼룩거리는 여름/
낯선 관광객들은 갯배를 타고 사진을 찍는다/
우리들 분단의 고통이/ 피서지의 추억이 되고/
떠도는 삶이 구경거리가 되는 동안/
썩어가는 청초호에 몸을 담그고/ 우리는 주먹으로 슬픔을 틀어막는다.

「갯배 2」(이상국)

그렇게 지워져 가는 분단의 아픔과 실향의 그리움을 이상국 시인

은 ‘우리들의 그리움 또한 이까 복장처럼 새까맣게 명들 수밖에 없다.’고 자조한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인증 샷의 배경이 된 갯배와 그저 피서지와 먹거리 관광지로 멈춘 청호동을 보며 ‘주먹으로 슬픔을 틀어 막는’ 것밖에 할 수 없음을 가슴 아파한다.

동해의 햇살들을 갯배에 싣고/ 그리움 물그리매 아바이 마을/
청호동 가슴으로 스미는 바람//
그리운 이 하나둘 꽂처럼 쳐서/ 바람에 전한 안부 소식도 없고/
청호동 고향되어 줄 감는 손길//
갈매기 한 마리가 갯배를 따라/ 물속을 바라보다 먼 하늘 날다/
청호동 노을 속에 멀어져가네

「갯배」(정영애)

분단의 세월이 흐른 지, 어언 60여 년. 이제 실향민 3세대는 더 이상 청호동과 갯배를 보며 고향 함경도와 두고 온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지 않는다. 60년간 지속되어 온 피난민의 삶의 원형인 ‘서사’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쩌면 갯배는 그리움과 관계라는 ‘서정’만이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

지금까지 지역 문인의 작품을 주로 살펴보았다. 지역 문인이 아닌 다른 시인은 어떻게 청호동과 갯배를 해석해 냈는지 작품 하나를 살펴보자.

아무도 살지 않던 모래 벌에/ 바람 숭숭 구멍뚫린 현 문짝 달아 놓고/
바닷물처럼 간간히 밀리는 알 수 없는 그리움에/
목젖 늘이며 살아가는 청호동 사람들//
수평선 한 쪽으로 가슴 한 쪽이 기우는 그리움에/
기우는 몸 신고 가는 갈매기 떼들에게/
고시내 몇 번 하고 돌아오는 길/ 어느 새 바다 노을이 가슴에 번지면/

마디진 한 생을 이어가듯 그물을 집고 또 집는다//
꿈속에서도 누군가를 찾는 소리/
겨울 바다보다 자식들의 가난이 더 무서워/ 빼꼼한 하늘 한 쪽을 지붕삼아/
저녁밥 짓는 냄새에 위안을 얻었던/ 늙수그레한 청호동 아바이}//
뚫리다만 원산 행 철로 같은 이마의 깊은 골/
얼마나 많은 세월을 갈아엎었을까/
걸쭉한 사투리가/ 어릴 적 뱃길을 만들고 지우며/ 허공에 길을 낸다/
바닷길을 연다

「청호동 아바이」(정정하)

VI.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 지역 문인들의 시 작품 속에 ‘청호동’과 ‘갯배’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찾아 그 의미를 유추해 보았다. 문학 작품을 해설하는 일은 참으로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 내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그 작품을 해석해 내는 일은 온전히 읽는 독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글 또한 작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필자의 스키마와 움벨트로 해석한 결과임을 밝힌다. 부디 그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오독’이 가능한 적 기만을 기대한다.

이제 청호동과 갯배는 더 이상 60년간 청호동을 만들고, 지켜내려온 실향민 1세대들의 분단과 망향의 ‘서사’가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은유하는 ‘서정’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 현상을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하기엔 ‘청호동’과 ‘갯배’가 가진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너무 크고 소중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청호동과 갯배’를 다시 한 번 조명해보는 프로젝트를 우리 지역 문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 보아야겠다. 그리하여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청호동과 갯배’의 서사를 다시 살려내야 하겠다.



망향(望鄉)의 기착지 '청호동', 실향(失鄉)의 종착지 '속초항'

- 극(劇)으로 재현된 '망향의 고통'과 '실향의 실체'

최재도 (극작가)

1. 실향, 그리고 청호동과 속초항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이 되어 한국전쟁에 참전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맥아더의 최종 무기는 원자폭탄이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해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전력이 있다. 그 공로로 그 무렵 그는 연합군 사령관의 자격으로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곧 '주한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된다. 낙동강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한 후, 9월 인천상륙작전으로 일거에 전세를 역전시키며, 10월에는 38선을 넘어 압록강 턱밑까지 밀고 올라간다. 하지만 11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하게 되어, 12월 24일에는 흥남에서 철수했고, 12월 말 38이북을 도로 내준 채, 1월 4일에는 서울마저 다시 빼앗긴다.

이때 북한 전역에는 원자폭탄 투하 소문이 망령처럼 떠돈다. 국군이 황급히 후퇴하는 이유는, 일단 아군 병력을 철수시킨 후에, 일본에게 그랬던 것처럼 큰 도시 한두 군데에 폭탄을 떨어뜨리고자 함이

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 무렵 맥아더는 트루먼 미 대통령과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었다. 북한 주민들은 동요했다. 어차피 전쟁은 곧 끝날 것이로되, 만에 하나 원자폭탄이 우리 마을에 떨어지면 멸족을 면할 수 없을 터이니, 국군을 따라 잠시 남쪽으로 피신했다 돌아 와야겠다고 생각한다. 온 가족이 다 움직일 수 없었던 이들은, 집안의 기둥인 ‘장남과 장손’만이라도 피신시켜야 했다. 여행히 우리 마을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으면 며칠 후 재회할 것이고, 불행히 원자폭탄이 우리 마을을 덮친다 하더라도 ‘장남과 장손’이 돌아와 가문의 명맥을 이어갈 것이었다.

이들이 가족과 헤어지며 “이르면 보름, 늦어도 석 달은 넘기지 않고 재회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일왕의 항복을 받아낸 전쟁 영웅 맥아더가 기어코 승리할 터이니, 비록 지금 고향을 떠나긴 하나 머지않은 장래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다.

물론 그들의 월남(越南) 사유가 이것이 전부인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의 월남 권유도 있었고, 공산당의 억압이나 학살을 피하기 위함이기도 했으며, 생계 수단을 찾아 떠난 이들도 다수였고, 친일파나 부르루아지로 분류돼 도저히 북한 정부 체제 아래서는 버틸 수 없었던 이들도 있었다. 한때, 이들 모두가 반공주의자라서 ‘자유를 찾아 월남했노라’고 여겼던 적이 있긴 하나, 사실 이념이나 사상 때문에 고향을 버린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처음 이를 난민에게 ‘38선 이남’으로 내려갈 것을 권유했으나, 1월 4일 서울마저 중공군에게 빼앗기자, 다시 ‘39선 이남’으로 내려가도록 종용한다. 선박을 이용해 월남한 난민들은 ‘38선 이남’ 주문진항에 머물다가, 정부의 지침대로 ‘39선 이남’인 포항이나 부산 등지로 몰려가게 된다. 일부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고, 또 다른 이들은 서울이나 대구 등의 도회지로 옮겨 갔으며, 또 어떤 이들은 고향 땅 가까운 ‘수복지구 속초’로 모여든다.

휴전 직후 속초에 정착한 피난민은 5만 명을 상회한다. 1975년 속초시 인구 71,475명 중 피난민이 5만 3천여 명으로 파악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속초는 남한에서 피난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되었다.

낯선 땅에 내던져진 피난민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생계수단의 확보였다. 기준에 누렸던 사회적 신분은 월남과 동시에 상실되었으니, 토지도 기술도 자본도 가지고 있지 못하던 이들이 이 생소한 곳에서 삶을 일구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들은 육체노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중 손쉬운 것이 일용선원으로 나서는 것이었다. 사실 수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이다. 어선을 타고 조업을 하는 선원뿐 아니라, 그들이 잡아온 수산물을 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속 관계의 새로운 직업이 창출된다. 명태나 오징어를 할복·건조·수송·판매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용효과가 나타난다. 어선을 건조하고 수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산업이 파생했다. 속초에 정착한 피난민들도 이런 ‘막벌이’ 직종에 의지해 생계를 이어갔다.

피난민들의 상당수가 어업 또는 그 관련 산업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그들의 주거지도 어촌 촌락에 밀집하게 된다. 이들은 속초항 주변인 청호동·영랑동·금호동 등과 그 인접 내륙지역인 중앙동·청학동 등에 몰려 살게 된다. 이들 지역은 그 이전엔 야산이거나 모래벌판에 불과했다. 피난민들은 여기에다 판잣집을 짓고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

특히 청호동은 피난민들에게 안성맞춤의 거주지였다. 속초항을 끼고 있어 작업 장소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잡아온 수산물을 가공처리하기도 쉬웠으며, 또 그곳이 공유지였으므로 별다른 마찰 없이 판잣집을 지어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었다.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피난민들은 그러나 그 후 수십 년이 지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들을 실향민(失鄉民)이라 부르게 된다. ‘고향을 잃은 백성’들이라는 뜻이

다.

이렇게 해서 청호동은 실향민들의 주거지가 되고, 속초항은 실향민들의 생업 터전이 된다.

2. 극작가 이반(李盤)의 속초항

이렇듯 휴전 이후 속초는 피난민들의 정착 공간으로 거듭난다. 피난민들은 낯선 땅에서 기존의 모든 사회적 기득권을 상실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들이 머문 속초라는 공간 역시, 기실 북조선 통치에서 막 벗어나 새로이 남한 영토로 편입된 상태였다. 이를하여 수복지구(收復地區). 그리하여 속초는 피난민이라는 새 구성원으로 재편된, 또한 ‘적성국’으로부터 탈환해 뒤늦게 남한에 편입된 ‘이 나라 이방(異邦)지대’로 자리매김된다.

속초라는 공간에 모여든 낯선 이들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속초인을 형성한다. 이들의 개별적 체험이 한데 어우러짐으로써 북한 전역의 이질적인 문화가 섞이게 되고, 거기마다 전쟁 직후 황폐한 사회적 분위기까지 겹쳐 수복지구 속초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생활환경이 조성된다. 피난민들은 이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남한의 신민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자신의 본적지를 속초로 정하고 가족관계를 새로이 설정해 일가(一家)를 창립한다. 한편 본디 속초에 살고 있던 주민들도, 농토 등 일부 생계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피난민과 다를 바 없었다. 그들도 여느 실향민과 같이 북한 통치를 받던 이들이었으므로, 남한 정부 입장에서는 적성국에서 유입된 난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향민들이 반공투사로 행세할 때, 속초 본토인들은 북한 정부에 협조한 경력 때문에 ‘빨갱이’로 매도되어 사회적 고립의 위기에 처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형성된 ‘속초’는 얼마 전까지 자기를 통치하던 북조선 정부를 적대시해야 하고, 그 구성원들은 북에 남겨진 가족과 지인(知人)들을 적성국가 국민으로 인식해야 할 처지에 이른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또 그 시절을 그리워하다간 자칫 적성국을 고무 찬양한다는 누명을 쓰기 십상이어서 함부로 내색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 묘한 처지의 속초인들이 내적으로 겪는 갈등은 곧 이 시대 한반도의 비극을 압축해 놓은 것이라 할 만했다.

바로 이러한 갈등을 적확하게 포착해 ‘망향의 아픔’과 ‘실향의 아픔’을 절묘하게 극(劇)으로 표출해 낸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극작가 이반(李盤)이다.

이반(본명 이명수)은 1940년생으로, 그 자신이 함경남도 홍원 출신의 실향민이다. 1950년 ‘홍남 철수’ 때 아버지 손을 잡고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나 속초에 정착했다. 아버지를 ‘실향 1세대’라 부른다면, 그 아들인 이반은 ‘실향 2세대’인 셈이다. 그 아래 팔순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 속초에 적을 두고 있으니, 속초 거주 북한 이주민들의 생활상을 가장 근접하여 관찰하고 체험한 작가이다. 당연히 그는 작품 활동 대부분을 속초 실향민들의 삶을 그리는 데 바쳐 왔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에, 그의 작품 절반은 ‘종교’가 소재가 되고, 다른 절반은 ‘실향’이 소재가 된다. 그는 「그날 그날에」, 「아버지 바다」,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 「샛바람」 등 일련의 실향 관련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피난 생활을 경험했고, 수복지구 속초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기에 그 누구의 작품보다도 생생한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다.

이반의 작품에는 대부분 ‘바다’가 등장한다. 당연히 항구와 부두도 그곳에 있다. 이반에게 있어 바다는 고향이자 어머니이다. 실제 이반의 아버지는 뱃사람이었다. 그는 아들이 ‘바다에 남게 되기’를 은근히 소망했다. “배를 타고 파도와 바람과 싸우며 사는 삶이 가장 깨끗한

삶”이라며 배를 탈 것을 권했다는 것이다. 이반도 그의 아버지를 닮아 바다를 생존의 터전이자 그리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금도 의지’하고 있거니와, ‘장차도 돌아가 기대야 할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날 그날에」나 「아버지 바다」에서의 바다도 그러하다. 낚시꾼에게 있어 ‘놓쳐버린 고기’는 늘 ‘월척’이듯, 실향민에게 있어 ‘잃어버린 고향’은 늘 ‘낙원’이다. 행복과 그리움이 영원히 머물러 있는 곳이기에, 이들의 실향은 그 자체가 실낙원(失樂園)이다. 전 생애를 걸고서라도 꼭 되찾아야 하고, 연어가 모천으로 회귀하듯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만 할 곳이다.

이반이 그의 작품에서 바다를 논하며 뱃사람들을 등장시킬 때, 그 무대는 늘 속초항이다. 실향을 그런 그의 작품에는 거의 대부분 속초항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이 나열된다. 속초항이라 함은 청초호를 일컫는 것이고, 청초호는 청호동과 속초부두에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청호동과 속초항은 실향을 묘사하는 절대적 공간이다.

「그날 그날에」와 「아버지 바다」는 서울연극제 등에 출품되어 호평을 받았거니와 속초 지역 연극인들에 의해서도 여러 차례 공연되었다. 초창기 속초 지역 연극 활동은 이반 작품의 공연으로 시발(始發) 하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향민의 정서를 이보다 더 진지하게 묘사해 낸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이들 작품은 그가 ‘청호동’에서 직접 체험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북녘 고향 땅에 묻어 주기 위하여 아내의 시신을 다락에 감춰둔 채 보관해 온 김 노인,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복받쳐 현역 장교 신분으로 휴전선을 넘어 북한땅을 다녀온 형철 등 실향의 한을 강하게 느끼는 인물들이 그의 작품 곳곳에서 등장한다. 이들 작품에는 작가의 개인 체험과 염원이 예술적으로 승화되어 있다.

또한 주목할 것은, 이반 희곡의 대사가 함경남도 방언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나라 극작가 중 함경도 사투리를 이

반처럼 잘 구사하고 많이 사용한 작가는 드물 것이다. 천승세가 희곡 「만선」에서 호남사투리를 쓰고, 안수길이 소설『북간도』에서 함경북도 사투리를 활용할 때, 이반은 함경남도 동해안 사투리를 이용해 대사에 영혼을 담아냈다. 그는 이 언어로, 전쟁 난민들의 ‘망향의 그리움’과 ‘실향의 아픔’을 밀도 있게 그려 낸다.

3. 망향의 그리움이 종식되는 시간, 「그날 그날에」

「그날 그날에」는 1979년 12월 극단 ‘광장’에 의해 세실극장에서 초연되었다. 당시 이반의 나이는 40세였으며 실향한 지 30년쯤 되는 때였다. 이 작품은 고향을 잊은 지 20년째 되는 해인 1970년의 속초항이 무대가 된다. 그 줄거리는 아래와 같다.

청초호 끝자락 속초항 한 편의 주막집. 이 주막은 실향민 김 노인 소유로, 북청택을 주모(酒母)로 두고 있다. 김 노인은 배도 한 척 가지고 있는 선주(船主)인데, 이 배에는 친구 박 노인을 선장(船長)으로 세워 놓고 있다. 이 배 선원들이 주막에 들어와 털어놓는 푸념에 의해, 선장 박 노인이 결핏하면 북쪽을 향해 기수를 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때문에 어군(魚群)을 놓쳐 어획(漁獲)이 부진할 뿐 아니라, 월북조업의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박 노인 역시 실향민으로서, 이름도 못 지어주고 나온 어린 딸이 고향에 남아 있다. 그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조급한 마음이 유별나다. 김 노인은 박 노인을 선장직에서 해임하려 하나, 주모 북청택이 강하게 박 노인을 옹호하는 바람에 실패한다. 사실 지난날 박 노인이 배를 지니고 있던 시절, 김 노인은 그 배의 선장으로 고용되어 조업 중 ‘마량도에 가서 깨어 먹고’ 온 바 있다. 그럼에도 박 노인은 김 노인을 격려하며 일체 문책하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김 노인이 배를 장만했을 때, 군말 않고 박 노인을 선장으로 세운 것이었다. 그러니 김 노인으로서는 박 노인을 해임하기가 쉽지 않은 입장이다.

한편 김 노인의 아들 창길이 대학을 마치고 은행원으로 취직하여 고향으로 돌아온다. 김 노인은 아들이 배 사업을 이어받길 원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실망이 적지 않다. 창길은 현재의 판잣집이 너무 누추하니 새 집을 짓자고 김 노인에게 제안한다. 그러나 김 노인은 이복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 에다 짓자며 응하지 않는다. 창길은 ‘통일이 요원하다’는 점을 내세워 설득해 보지만 김 노인은 꿈쩍도 않는다.

이때, 출항했던 배가 이북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어로한계 선 부근에서 조업하고 있던 중 별안간 북한경비정이 접근하며 나포하려 하자 박 노인은 선원들을 모두 바다에 밀어 넣고 자신만 끌려갔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김 노인은 사실상 박 노인이 의도적으로 월북한 것임을 직감한다. 박 노인과 동병상련인 김 노인은, 아들 창길을 다락으로 옮겨 보낸다. 창길은 그곳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확인한다. ‘고향 땅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이루기 위해, 김 노인이 그 시체를 헛가루로 둘러싸 남몰래 다락에 보관해 왔음을 이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

이 작품에서 박 노인은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염원을 실천하려 하고, 김 노인은 통일의 그날이 꼭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채 죽어서라도 그 아내를 고향땅에 묻어 주려하고 있다. 실향 1세대들이 얼마나 고향을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지 이 이상 극명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다.

작가 이반은 이 작품 집필 후기에다 이렇게 썼다.

- 아버지의 한숨을 생각하며

어릴 때 놀던 친구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바다가 보고 싶으면 나는 배낭을 짊어지고 홀짝 서울을 떠난다. 터덜거리는 버스를 타고 대진, 거진, 오흐리로 해서 속초로 간다. 뛰은 미역 냄새와 비릿한 꽁치 냄새는 내게 어머니의 품과 같은 아늑함을 안겨준다. 어판장에서 떠드는 소리, 고기를 혜아리는 어부들과 아낙네들의 고함소리, 난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이면서도 한참 동안 그들 속에서 그들과 동화되려는 나를 발견한다. 어판장은, 바다는 살아있다. 바다는 모든 만물의 어머니처럼 생명을 잉태한다.

속초 어판장에서 나룻배를 타고 청호동으로 건너간다. 내 앞에는 60이 넘는 노인이 걸어간다. 나는 노인의 무거운 발길을 따라 비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노인은 대문이 없는 판잣집으로 들어서면서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등으로 저녁 햇살을 받으면서 먼 저 북쪽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한숨을 한 번 쉬고는 판잣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노인의 등어리에서 빛나던 햇빛과 슬픈 한숨을 사랑한다. 그것은 현상의 보잘 것 없는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조각들은 우리의 아픔을 가장 리얼하게 드러내는 실상이다.

내 아버지도 저 노인과 마찬가지로 북을 향하여 매일 한 번 이상은 한숨을 쉬면서 살다가 돌아가셨다. 서울에서는, 그리고 도시에서는 북을 향하여 한숨을 쉬는 노인들을 볼 수 없다. 1년에 한두 번씩 임진강변에서 한숨을 쉬뿐이다. 그러나 동해 바닷가에서 사는 많은 노인들은 매일 하루 한 번 이상은 북을 바라보며 고향을 생각한다. 나는 적어도 그만한 우리의 리얼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의 민족의 문제뿐 아니라, 세계가 해결해야 할 세계인의 근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골치 아픈 것이니 잊고 살자고 한다. 이젠 우리나라 사람들마저 한숨을 잃고 말았다. 아버지 세대, 피난 나온 1세대들은 모두들 그렇게 한숨을 쉬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젠 정말 몇 분이 남지 않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보다 넓은 아파트와 보다 많은 싸라리, 그리고 포니를 위해서 늙어가면서 언제 북쪽을 향하여 한숨 한 번 쉬어 보았던가?

-중략-

바다는 변하지 않은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다. 변하고 또 변하는 세태 속에서 변하지 않는 바다. 그 바다 앞에서 나는 아버지의 한숨을 생각하며 북쪽을 바라본다. 이 동해 바닷가에 하늬바람이 불면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돛을 올리고 고향에 가기 좋은 바람인데….”

지금은 가을이다. 동해 바다에는 매일 하늬바람이 분다. 이 하늬바람을 맞으며 북을 향하여 한숨을 지을 노인들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날, 그날에…」를 서둘러 쓰게 되었다.

이반은 ‘한숨짓는 실향 1세대들이’ 없어져 가고 있기에 서둘러 이 작

풀을 썼다'고 고백한다. 그는 그들의 한숨을 바로 코앞에서 줄곧 지켜보아 놓고도, '실향 2세대'인 자신이 '한숨 한 번 쉬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에 자책한다. 정말이지 이 작품에는 청호동 노인들의 한숨이 가득 차 있고, 작가가 '그 한숨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향 1세대'들이 왜 청호동을 떠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실향 2세대'와의 갈등은 무엇인지 다음 대목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대학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아들과 김노인의 대화 장면이다.

- | | |
|-----|--|
| 창길 | 제 생각은 아래요. 배가 들어오면, 아버님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로 떠났으면 좋겠어요. |
| 김노인 | 무시기라구? |
| 창길 | 서울이 아니라도 좋아요. 좀 큰 도시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
| 김노인 | 아니, 창길아, 니 지금 날보구 여기서 떠나 살자, 이 말이니? |
| 창길 | 네, 아버님. |
| 김노인 | 이 바다와 저 사람들을 두구 이사 가자 이 말이니? |
| 창길 | 네, 이젠 아픈 기억들을 떨쳐 버릴 때도 되었어요. 고향, 고향 집, 배, 바다, 이 모든 것을 떠나 사세요. |
| 김노인 | 그런 것들이 니를 괴롭혔니? |
| 창길 | 직접 고통을 준 것은 아니지만, 이젠 밝게 살고 싶어요. 그래요, 제 생각으로는, 고향은 아버님의 생을 앗아갔어요. |
| 김노인 | 야, 힘든 문자 쓰지 말아. 생이라는 기 무시기니, 생이라는 기? 고향이 내 생을 앗아 갔다구? 나는 처음부터 잘못 생각 했다. 내기 있어서, 아이 나뿐이 아이다. 박아바이나 북청 아지미에게 있어서 생이라는 것은 말이다. 그기 고향을 그리는 맴하고 다른 기 아이다. |
| 창길 | 그러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 제 생마저도 고향 때문에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

- 김노인** 니 행복이구 내 행복이구, 그런 소리하지 말고, 간단하게 말 하자. 넌 여기서 살기 싫다, 이거니?
- 창길** 네, 그렇지만, 아버님의 동의 없이는….
- 김노인** 내 말은 하지 말구 니만만 해라. 여기서 살기 싫니?
- 창길** 네, 싫어요.
- 김노인**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 창길** 제 부탁을 들어주시는 거죠?
- 김노인** 혼자 올라가라.
- 창길** 넷? 혼자라니요?
- 김노인** 나는 여기서 한 발도 빠질 수 없다. 니 혼자서 가겠으면 가거라. 니가 살고 싶은 디 가서 맴대로 살아. 그렇지만, 나는 아 이 된다. 아이 되구말구.
- 창길**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여긴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기 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 김노인** 고향에서 제일 가까운 땅이다.
- 창길** 넷?
- 김노인** 여기가 고향서 제일 가까운 땅이다. 여기서, 움직일 순 없다.
- 창길** 저도 아버님과 헤어져 살 수는 없어요.
- 김노인** 고마운 이야기다마는, 나는 너를 꼭 품에 안구 살구 싶은 생 각은 없다.
- 창길** 전 달라요. 아버님은 절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저 에게는 아버님의 마지막 생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 김노인** 의무구, 무시기구 그런 소린 하지두 말아. 사람이 지가 좋아 서 하는 일에는 희생이니 무시기니 그런 말 하는 기 아이다. 니 좋을 대로 해라. 가구 싶으면 가구 오구 싶으면 오구.
- 창길** 전 아버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어요.
- 김노인** 맴이 내키는 대로 해라. 니가 같이 살다가 떠난다구 해도 내 섭섭하게 생각 아이 하겠다.

아들 창길은 이곳을 뜨자고, 바다를 잊자고 권하지만, 김 노인에게

는 가당치 않은 소리일 뿐이다. 김 노인에게 있어서 바다는 곧 어머니고 속초향은 곧 고향으로 가는 디딤돌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대단원은 실향 1세대들이 얼마나 애태게 고향을 그리는지, 그 마음의 깊이를 ‘실향 2세대’들로서는 도저히 짚 수 없다는 절망을 충격적 방식으로 드러낸다. 김 노인은 아들 창길에게 다락을 뒤지게 하고, 이윽고 창길은 그곳에서 20년 동안이나 보관되던 어머니의 시체를 확인한다.

창길	(크게 놀란) 저기 다락 위에….
김노인	무시기 있다?
창길	시체가, 시체가 있어요!
만길	시체가?
김노인	너어 어미다.
창길	이십 년 전에 죽은 어머니가?
김노인	너어 어미다.
창길	어머닌 여기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런 어머니가 어떻게?
김노인	너어 어미는, 거제도에서 죽었다.
창길	네, 그래요. 거제도에서 돌아가셨어요.
김노인	그 어미의 유언이 무시긴 줄 아니? 마지막 말이 무시긴 줄 아는가 말이다. 이남 흙을 아이 쓰구 고향 흙을 쓰구 자겠다는 기다. 저 귀신이 고향 흙을 쓰구 자겠다구 저기서 지드력을 쓰구 아이 내려온다. 고향에 가는 날이나 저기서 내려오겠다구, 저러구 있다.
창길	아, 아버지!
김노인	사람은, 제 물에서 살아야 된다. 고향에 가서 살아야지비. 그렇겠고는 사는 기 아이다. 그날, 그날이 곧 온다. 꼭 오고야 만다. 그날, 그날은, 빠르면 봄에 늦어두 가슬까지는….

실향민들이 ‘청호동 사람들’ 혹은 ‘늙은 아바이들’이 되어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아직 그들이 뿌리 내릴 곳이 아니다. 남한에서의 생활은

단지 ‘잠시 머무르는 과도기적 삶’에 불과한 것일 뿐, 진정한 그들의 삶터는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야 찾을 수 있다. 청호동은 분명 이들에게 ‘객지’이며 임시 거처일 따름이다.

이 무렵 이들이 당하는 가장 큰 곤혹은, 과연 북한 사람들을 적으로 보아야 하느냐, 같은 민족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실향민들에게 있어 분명 저들은 형제자매임에 분명하나, 이 나라에서는 저들을 ‘적(敵)’이라 불렀다. 서로가 서로에게 총과 칼을 들이대며 살육하고 규탄하고 있으니, 감히 고향을 그리워할 수도 없었다. 내 핏줄을 적으로 대해야 하는 모순, 그 아픔이 종식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그날’이 와야 한다. “빠르면 금년 봄에, 늦어도 올 가을까지는” 이 갈등이 해소되게 해달라고 이반은 간절히 소망했다.

4. 실향의 삶을 사는 공간, 「아버지 바다」

통일의 ‘그 날’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실현되지 않는다. 이에 극작가 이반은 다시 「아버지 바다」라는 작품을 내놓는다. 이 작품도 역시 속초항 부둣가, 그 어판장의 한 귀퉁이 포장마차가 무대다. 「그날 그날에」가 청호동의 한 노인네 일화를 소재로 한 것이듯, 「아버지 바다」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상황도 상당 부분 실제에 근거했다. 이반은 이 작품 후기에 이렇게 밝혔다.

나에게는 동호, 형철, 길모, 성자, 장근이라는 어릴 때의 동무들이 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판장에서 몇 번 스친 친구도 있고 함께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한 사람도 있다. 그중에는 벌써 바다에서 실종되어 자기 몸이 바다가 된 친구도 있고 아직 배를 타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꼬리도 대가리도 없는 소문 속에서 '소대원들과 휴전선을 넘어갔다' 온 친구도 있다

이 ‘친구’들은 모두 이 작품에 실명(實名)으로 등장한다. 이반은 현 실감을 살리기 위해 ‘리얼리즘’극의 형태로 이북 사투리를 그대로 구사하는 대본을 완성했다. 이 작품 역시 1989년 9월 서울연극제에 출품되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속초항 부둣가. 어판장 경비원 길모와 작은 어선의 선장 동호, 포장마차를 하는 성자는 모두 친구 사이이다. 이곳에 낯선 사내가 찾아든다. 알고보니 30년 만에 고향을 찾아온 이들 친구 형철이다. 형철은 장교로 전방에서 근무하던 시절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여 휴전선을 넘어갔던 적이 있다. 그 죄로 20년 동안이나 감옥생활을 했다. 형철의 아버지는 등대지기였는데, 6·25전쟁 때 군 작전상 불을 켜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불을 밝혔다가 ‘반동’으로 몰려 인민재판으로 처형된 바 있다.

한편, 선주(船主)가 새 배 마련을 위해 노임을 주지 않고 빼돌리자 선원들은 파업을 계획하는 등 갈등이 격화된다. 이에 동호가 중재에 나서고, 여기에 깨달은 바가 있어 선주는 노임을 해결하기로 약속한다. 이 과정을 지켜본 길모는 어판장의 갖은 부정을 뿌리뽑겠다며 새로운 다짐을 굳힌다.

형철도 친구들이 동요 없이 강하게 사는 모습에 활력소를 얻는다.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을 밝힌 아버지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며, 아버지가 어둠을 밝혀준 등불이 되었던 것처럼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연출가 김호태는 이 작품을 문예회관 대극장에다 올리며 나름대로 그 주제를 이렇게 파악했다.

이 연극은 극작가 이반이 즐겨 다루는 ‘선명한 주제를 복합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동해안에 연해 있는 어촌에 사는 실향민 2세대가 겪는 갈등과 아픔을 극화한 것이다. 현실적인 삶과 비현실적인 삶의 대조를 통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책임의 중요성, 반목과 불화, 서로 대립되는 삶의 목표 등을 부각시키고, 그 이해의 다양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버지의 삶의 현장이었던 바다를 향한 송고함으로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반은 이 작품에서 화해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중오해야 할 대상을 ‘사람’에게서 찾을 게 아니라, ‘상황’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호	형철아 아직두 미워하구 있어? 나 같으면 이곳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난 지금두 기억하고 있어. 군인들이 네 아부지를 어판장 저 구석에 세워놓구 “이 등대지기는 아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적군을 유리하게 한 반동이지요 불순분자요”라고 말할 때 침묵을 지키던 어른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우리 아부지두 길모 아부지두 아무 말 않고 있었어.
형철	아냐, 그렇지는 않아. 내가 미워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야. 사람들을 비겁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어.
동호	상황은 너무나 큰 덩어리라서 개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상황과 싸우기보다는 제 자리를 지키며 서 있기가 더 힘들어.
형철	그런데도 나는 과감히 덤벼든거야. 미친 짓이라구 하더군. 그래, 그건 분명히 미친 짓인지도 몰라. 사기꾼처럼 숨어서 살았어.

그래서 그렇게 ‘상황에 대항’했건만 그는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 ‘사기꾼처럼’ 숨어 살아야 했다. 이 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비겁하게 만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한다.

뱃사람들을 위해 인민군의 명령을 어겨가며 등댓불을 밝혔던 형철의 아버지. 그러나 그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반동분자로 몰려 공개 처형될 때 뱃사람 중 누구도 그를 위한 변명에 나서지 않았다. 그 후 이 포구에서 등대불은 더 이상 켜지지 않았고 그러니 그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동호	며칠이 못가서 이 포구는 아비귀환으로 변했어. 괴기잡이를 나갔던 어선들이 풍랑 속에서 포구를 찾지 못해 파선되었어. 등대가 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대부분 선원들은 물에 빠져 죽었어. 한 사람이 제 길을 가지 못해 일어난 일이었어. 그 때 우리 아버지두, 장근이 너어 아버지두 가물에서 죽었다. 시신두 찾지 못했다.
장근	저 언덕에 무덤이 있으오.
동호	빈 무덤이다. 바다는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다.

우리의 비겁함이 저 언덕 위에 빈 무덤을 만들었다. ‘우리를 낳았고 우리가 종내 돌아가야 할 곳도 바다’지만, 그러나 비겁한 ‘선원’이 되어 ‘등댓불’ 사라진 바다에서 비참하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이 작품은 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작품에서는 당시 ‘어촌으로서의 속초’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실향민들 삶의 양태가 섬세하게 그려지고 있다. 선주의 횡포와 그 유형이 어떠한지 설명되어 있고, 그래서 선원들의 ‘민중 봉기’를 촉구하는 조언도 슬그머니 들어가 있다.

물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선주가 바로 그런 악덕 자본가의 전형은 아니다. 이반의 작품에서는 대체로 악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선주는 자신이 노임 지불을 미루는 것은 선원들의 새 일터 마련을 위해, 다시 말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철선’ 구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선주 창섭은 선장 만선에게 ‘새 배’ 구입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만선	빚이 많다면서 또 철선 하나 계약했오?
창섭	쉿, 남이 말을 듣겠다이. 나두 배를 하나만 가지구 선원들에 게 줄 것을 제대로 주구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다.
만선	그런디 어째서 또 배를 계약했오?
창섭	그러다가 배가 수명을 다하면 어찌겠니?

- 만선** 그때 가서 철선을 사도 늦지는 않오.
- 창섭** 바다 일이란 것은 앞을 모른다. 누군가는 욕을 먹어가면서 배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다고는 배 선주되겠다고 나설 사람이 없다. 배 한 척이 몇 천만원 짜리니? 수억이다. 요즘 시상이 어느 쟁취가 부동산이나 증권에 돈을 아이 넣고 청청바다에 수억씩 투자하겠니?
- 만선** 투자한 만큼 들어오는 것도 있겠오?
- 창섭** 말루 주구 되로 받는 것이 들어오는 거니? 니 한 번 생각해 보라이. 이 개안에 배가 없다구 가정해보란 말이다. 선원들은 어쩔구. 식솔은 무스 걸 멱구 살겠니?
- 만선** 다른 일을 하면 아이되오?
- 창섭** 나는 내 혼자만 잘 살자구 이라는 기 아이다. 뉘긴가는 욕을 먹어서라두 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서두는 기다.
- 만선** 선주님 뜻은 알 것 같지만 선원들두 고생이 많오. 내년이나 이면 빚을 아이 지고도 철선을 구입할 수 있을 텐데. 금년은 무리라 이거오.
- 창섭** 내 어째서 그걸 모르겠니? 사업이라는 건 운이 있을 때 확장 해야 한다. 손에서 재가 떨어지면 선장이 괴기도 못 잡는다는 것을 너는 모르니? 조합이나 경찰서에 아는 사람들이 많을 때 융자두 쉬운 법이다. 내 이곳 유지들에게 돈을 물 쓰듯 쓰는 모두 다 이유가 있다. 너는 모르지만 그동안 관계기관에 돈을 쓴 모두 한두 푼이 아이다.
- 만선** 내두 그런 건 알고 있으
- 중략-**
- 창섭** 내 사업을 확장시키는 기 어디 나만 위해서니? 너는 어떻게 하겠니? 늙어 죽을 때까지 남의 집 살이만 하겠니? 독립을 해야될 기 아니니? 선원들두 그렇다. 배가 있어야 바다에 나갈까 아니니? 한 푼 반짜리 널판지를 타다가 안전한 철선을 타고 바로에 나가니 얼마나 안전하니? 그리구 미래를 생각해 보자. 우리두 언제까지 저까짓 백삼십톤급 배만 가지구 바로 하겠니? 오백톤이구 육백톤급 배를 사가지구 원양으로 나가

야 될 끼 아이니? 부족한 국민의 비타민은 무스 결루 보충하겠니? 내가 이러는 것은 나만 잘 살자구 하는 게 아이다! 사람은 앞을 보구 살아야 하는 기다. 코 앞에 잇속에 눈이 어두워지고 발전이 없는 게 아니니? 멀리 보라이… 멀리 보라 이….

선주인 창섭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선원들의 주장은 적극 수용되어져야 한다. 선원들은 ‘그렇다면 그 배가 선원 모두의 것이 되어야 옳다’고 주장한다. 기관장인 장근이 선장인 동호를 만나 선주의 횡포를 지적하는 장면이다.

- | | |
|----|---|
| 장근 | 우리가 두 달 동안 잡은 이까가 열매친 줄 아오? 내 여기 이렇게 조사해왔오. 자그만치 육천만 원 어치오. |
| 동호 | 경비는 어떻게 하구? |
| 장근 | 경비 계산도 해왔오. 디젤 기름값이 팔백만 원이오. 그것두 넉넉히 잡아서 그렇오. 삼십만 원 짜리 야광등을 몇 개 썼는 줄 아오? 열두 개밖에 아이 썼오. 쌀값과 부식값은 우리 개인 부담이었오. 육천만 원 중에서 경비는 천만 원밖에 쓴 기 없오. |
| 동호 | 계산은 그러지만 돈은 못 받았다고 하젤니? |
| 장근 | 여기 어디 귀밑에 똥쏟 아이들이 있는 줄 아오? 내가 다아 가서 알아보았오. 우리에게 줄 배당금과 다음에 잡아올 이까값과 거기다 수협융자까지 합치면 어군탐지기를 갖춘 철선을 하나 살 수 있오. |
| 동호 |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보이지 않는 바다에 미끼두 없는 낚시를 넣구 후리질 하긴디 어느 미친놈이 잡히지두 않은 이까값을 미리 준다고 그러니? |
| 장근 | 미친놈뿐이 아이라 미친 어미네들까지 잡지두 않은 이까를 사겠다구 서슬이 퍼래같구 다니오. 길모 서이미가 어째 뛰어 다니는 줄 아오? 그런 것들은 이 어판장에서 쫓아내겠다고 |

그러는 거오.

동호 나는 지금 니가 어느 나라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장근 선주가 철선을 하나 더 사면 그것은 우리들의 것이지 선주 것
이 아이라 이 말이오. 배당금을 아이 주고 산 배는 우리 배
오. 이거 보오. 선주가 살 새 배의 계약서 사본이오.

동호 정말이구나. 어디서 구했니? 다음 번부터는 새 배를 타게 되
겠구나.

장근 그 배는 뉘기 배요?

동호 나는 그런디 관심이 없다. 새 배면 된다.

장근 그 배를 타구 고기를 잡아두 선주가 혼자서 이까의 삼분지
일을 가져가구 나머지를 가지구 열 사람의 선원이 나눠두 된
단 말이오? 서이미두 이저는 눈을 뜰 때가 되었오.

이 작품에서는 부둣가 사람들의 비리가 슬며시 터져 나오고 있다.
선주가 선원들의 노임으로 선원 상대의 고리대금업을 하는 기묘한 현실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선원들이 선주인 창섭을 찾아가 밀린 ‘배당금’을 내 놓으라고 독촉하는 장면이다.

장근 이까값은 어째서 받지 못했오?

창섭 아이 주는 것을 어떻게 받으란 말이니? 니 지금 저 흥국상회
에 가서 물어보라이. 내 부시기를 쓰면 열라들 속으로 나왔
겠다.

명금 흥국상회는 노랭이지비

창섭 들었지. 저 명금이두 안다. 흥국상회 영감은 이 개안에서 다
아는 노랭이다.

장근 우린 뉘기가 노랭이구, 아이구 그런 걸 알 필요가 없오. 배당
금만 받으면 그 뿐이오. 돈을 내어놓오.

성금 나야 빼칠 일이 아이지만, 배가 바다에 나간 두 달 동안 선원
들 가족들은 고생이 말이 아이었오. 전부 빚으로 살았오. 그
런데 빚갚을 돈두 다 아이주구 바다에 나가면 가족들은 무

스 걸 먹고 살겠오?

창섭 사정은 나도 알고 있지비. 그래서 내가 선원들 집으로 돌아다니며 몇 만원씩 꿔 주는 거 아니니?

장근 그기 어떻게 꿔준 돈이오? 우리가 받을 돈을 조금 주구 생색을 내지 마오. 어디 그뿐이오? 나중에 회계 할 때 그 돈의 이자를 떼어먹는데, 그기 선주요? 고리대금업자지비.

이런 저런 부두의 비리들을 어판장 경비원 길모는 모두 알고 있다. 아마 곧 길모에 의해 속초항 부두의 모든 비리들은 사라질 것이다. 길모는 ‘등대가 사라진 이 속초항’에서 새로운 등대로 부활할 생각인 모양이다. 지난날 등대지기인 형철의 아버지가 그려했듯 길모는 이제 이 시대의 등대로 다시 설 것이다. 선주와의 일전을 벼르는 선원들을 선장 동호와 경비원 길모가 설득하는 장면이다.

동호 그리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다는 말이다. 바다는 이 시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다. 벗사람이 가야할 곳은 바다밖에 없다.

길모 여기 일은 내게 맡기구 바다로 나가라.

동호 가서 선원들을 데리구 오라이.

길모 이 어판장의 부정은 내가 뿌리를 뽑겠다. 그것이 내 길이라구 동호가 말하겠니? 너어들은 너어 길을 가.

창섭 나그네 아저씨는 빨리 피해야 되잖오?

형철 아니야.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 이젠 더이상 물러서지 않아.

길모 니 지 정신 갖구 하는 소리니? 이십 년 동안 고생했으면 되었지, 어째 노동판에서 말썽을 피웠니? 그리구두 무스 결 생각해 봐야겠단 말이니? 어째 또 그러니?

형철 동호 말이 맞아. 셋 중에서 내 아부지의 길을 간 사람은 너희들 둘뿐인 것 같아.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할 것처럼 날뛰었어. 난 이젠 내 길만 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 일이 뜻뜻하지 못한 가치 없는 짓이

		아이었는가 하구 죄책감에 사로잡혔어. 후회하기도 했어
동호		시간이 없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나하구 배를 타.
길모		그래, 빨리 이곳을 피해.
형철		형무소에서 나온 뒤에도 세상은 나를 지켜보고 있어. 운해처럼 몰려와서 내 목을 조르고 있고 출왔다. 나는, 나는 패배자다. 죄인이다. 미친놈이다. 하구 괴로워하면서 쫓겨 다니구 있어.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어. 나는 이곳에서 알았어. 땅끝에 와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알았어.
길모		나쁘구 아니구가 무슨 문제니? 너는 이제까지 당했다. 내 말 알아듣겠니? 고생스러운 길을 또 가겠다니 안스러워 그런다.
동호		뜻이 있으면 뉘기 막을 수 있겠니?
형철		더 이상 세상의 눈총이나 운해처럼 몰려오는 저 사람들을 피해 다니지 않겠어. 당당히 맞서야겠어.
길모		셋이 다 제 각각이지만 우리는, 알겠니? 우리는 서로를 믿구 있다.
형철		피하지 않구 대결하겠어. 지면 또 일어서서 싸우겠어. 이 나라 모든 사람이 벌이는 춤판과 씨름판을 생각해봐. 난 이제 야 내 길을 찾았어.

김한(성심여대 교수)은 이반의 작품에 줄기차게 등장하는 ‘부두’의 이미지에 분단 극복 의지가 담겨 있다는 요지의 글을 쓴 바 있다.

극작가 이반(李盤)의 무대는, 저널리즘을 넘어선다. 20세기 현대 극작가로서, 에스킬루스에 도전할 영원한 인간 비극을 사겠다고 외치던 오닐처럼 화려한 영웅심도, 유난스러운 구호도 모르는 채, 이반은, 눈에 뜨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동해안 어촌 아바이들의 그날, 그날 속에, 우리의 생에 있어 가장 리얼한 것, 가장 깊은 아픔의 근저를 다루는 몸짓을 묵묵히 실행한다.

저 함경도 아바이들의 염원은, 어쩌면, 지극히 불합리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아바이의 염원은, 결코 구름과 같은 허상이 아니다. 바로 그들이 존재하게 하는,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나날들이 결코 헛

된 것이 아니게 해주는 실존(實存)이다. 생명이다. 천장에서, 기다리던 어마이의 시체 - 저 염원은 그토록 리얼한 것이었고 그 기다림은 그토록 간절한 것인 한, 이 기다림의 입김 속에서, 동해안은 결코 얼어붙지 않으리라. 이 입김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의 역사는 연속되리라. 과거와 현재의 고통에 강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믿음이다.

이반의 부둣가에 모여든 사람들은 아픔, 좌절, 죽음, 고통, 눈물 그 모두를 포함한 송두리째의 삶, 그것이 의미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목격한다. 생에 있어 궁극적인 두 단어 - 사랑과 성실을 온 가슴과 혼을 다해 지키려는 작가 이반의 고집스런 몸짓이 계속되는 한 바다는 외침을 그치지 않으리라,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외침을.

이 작품에서는 이반 작품의 갈등구조와 그 해소방식이 아주 확연히 드러난다. 형철은 ‘실향 2세대’로서, 어린 시절의 고향이 그리워 철책근무 중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그로 인해 20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으니, 그 갈등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성’과 ‘제도적 압제(壓制)’ 사이에서 발생한다. 형철의 아버지 또한, 작전을 위해 등댓불을 밝히지 말라는 인민군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아직 귀환하지 못한 뱃사람들을 위해 불을 켰다가 처형당했으니, ‘휴머니즘적 사명감’과 ‘권력적 압제’가 충돌한 것이다. 형철로선, 아버지가 처형당할 때, 아버지의 등댓불에 의지해 무사히 귀환한 뱃사람들조차 그를 위해 아무런 변명도 해주지 않았음에 매우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터이다.

선주를 향한 선원들의 갈등도 역시 이와 같다. 마땅히 선원들에게 주어야 할 노임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선주의 횡포에 선원들은 파업을 하며 거칠게 대항한다. 선원들은, 오징어 ‘스무 마리’를 잡으면 배삯으로 ‘열세 마리 반’을 내놓아야 되는 ‘분배의 불공정’에 대한 불만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부두엔 여러 부정과 비리들이 얼룩져 있어, 선원들을 이중삼중으로 착취하고 있다. 본성과 압제가 부두 여기 저기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갈등은 용서(宥)와 어울림(和)으로써 해결된다. 곧 유화(宥

和)이다. 사전적 풀이로는, ‘너그럽게 대하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선원들은 ‘선주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또 다른 새 배를 마련하려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용서하고, 형철은 자신의 인간애와 아버지의 사명감에 자부심을 가짐으로써 세상과 다시 어울리는 것이다. 이는 부두에서 경비로 일하고 있는 길모가 자신이 단속해야 할 무허가 장사꾼들에 대해 “그들이 있어야 내가 할 일도 생긴다.”며 ‘적당히 쫓고 쫓기는 게 인생’이라는 공존 공생의 인생관과도 어울린다.

분단 갈등을 유화(宥和)의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이반의 주장은, 바다를 소재로 하는 모든 작품에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만약 바다가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삶의 터전’이라면, 그리고 그곳이 ‘우리가 종내 돌아가야 할 고향’이라면, 너그럽게 용서하고 다정하게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고향과 터전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5. 이념의 희생자들에게 수여된 「붉은 훈장」

남북이 분단되고 남북 사이에 전쟁을 벌인 것은 이념과 사상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실향민들은 이념 따위엔 관심도 없는, 단지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들일 뿐이다. 이를 인식한 전후 세대 극작가들은 실향 세대인 이반과는 달리, 다소 객관적인 접근으로 실향과 망향을 묘사하고 대립과 화해를 논한다.

연극협회 속초지부는 1997년 최재도작 「그대여, 바다로 가거든」이라는 실향민 뱃군들의 삶을 그린 작품을 전국연극제에 출품하여 우수상을 수상한다. 최재도는 라디오 드라마를 주로 써 왔는데, 특히 1999년에 발표한 KBS 라디오 미니시리즈 「회한」은 분단문제를 민족사적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인민군 고급장교 출신으로 전쟁 중 포로가 되었다가 얼떨결에 반공포로로 분류되어 석방

된 주인공은, 북조선 정부로부터 전쟁 중에 받은 ‘훈장’을 한평생 소중하게 간직한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그것을 자랑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회적 불행을 자초할 터. 북조선의 인민 영웅이 청호동에서 단지 뱃놈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그런 이 작품은, 그 몇 년 후 「붉은 훈장」으로 개작되어 연극 무대에 오르게 되고, 역시 전국연극제에서 작품상과 희곡상을 거머쥔다.

이 작품의 개략적인 줄거리는 아래와 같다.

인민군 고급장교였던 김일권(金一權)은 6.25 전쟁 중 생포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얼떨결에 반공포로 석방조치로 풀려 나, 실향민들이 밀집해 사는 속초에 정착한다.

김일권은 자신이 인민군 장교 출신이며, 전쟁 때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북한 정부에서 하사한 훈장을 소중하게 간직한 채 늘 과거를 회상하며 산다. 하지만 반공을 신봉하는 남한 체제에서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고, 오히려 사회적 불이익을 자초하는 요인인지도 하다. 북한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당연히 인민의 영웅으로 대접받을 것이라 믿음 때문에, 늘 귀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술에 취하면, 인민군가를 부르고, 인민 앞에서 호령을 하는 망상에 젖는 등 기행(奇行)을 일삼는다. 휴전 이후 40여 년 동안 그의 삶은, 그러므로 자신의 낙원을 빼앗겼다는 「실낙원(失樂園)의 한(恨)」이 누적되어 있다.

한편, 그의 아들 동선과 동후는 이런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고통을 당한다. 그나마 동생 동후는 수재였기에 학교 대표로 반공궐기대회에도 수시로 참여하는 등 반공이념에 충실했으나,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 그럴수록 아버지를 미워하며 끝내는 아버지와 불목한 채, 도회지로 떠나 현재 은행의 중견간부로 살고 있다. 그러나 형 동선은 아버지의 세계를 나름대로 인정하며, ‘북한에 남겨진 아버지의 가족’에게 총칼을 겨누기 싫다 하여 고등학교 교련 교육을 거부하다 퇴학당하고 고기잡이배를 타는 선원의 길을 택한다.

그러던 중 김일권은, 금강산 유람선 취항 소식을 접한다. 아들 동선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일권은 금강산 여행을 거부한다. 그는 이때부터 자신을 영

옹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펼친다. 남북교류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념의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북한정부의 명을 받고 싸운 것은 사실이나, 자신도 역시 민족을 위해 영광스런 혁명과업을 수행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으므로, 남한 정부는 북한 정부와 협의해 자신을 민족지도자로 예우하라고 요구한다.

해방 직후 아버지의 자진월북으로 이른바 월북자 가족이 된 최봉하도 김일권의 주장을 옹호한다. 월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아온 최봉하는 김일권 일가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가 같음에 늘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

김일권의 기행은 그 친구인 주대석에 의해 확대되며 널리 알려진다. 주대석은 김일권과 같은 고향출신으로 죽마고우이다. 남한에 정착한 후 꾸준히 김일권을 보살펴 왔다. 그러나 그는 김일권과 달리 철저한 반공주의자이다. 주대석은 김일권의 행동에 제동을 걸며, 그의 반성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김일권의 기행이 알려지자,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난다. 91년에 귀순하여 현재 이 마을에서 북한음식점 을 경영하는 고광철은,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자신은 양쪽에서 모두 배척받는 민족반역자가 될 것임을 두려워하며, 남북 화해에 앞서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신분보장을 요구한다.

주대석 또한, 남한 기업들의 지나친 상업주의가 불만스럽다. ‘구걸하듯 금강산 여행을 해야 하는가’ 하는 데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전쟁 빨발에 대한 사과가 우선되지 않는 한, 어떤 접촉도 불가하다고 믿는다. 자칫하면 6.25 전쟁이 북침(北侵)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을 촉구한다.

이처럼 김일권 주변 인물들이 새삼 이념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 김일권은 지병이 악화되어 임종을 맞게 된다.

동후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향한다. 그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와 아버지의 기행에 대해 들으며,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한다. 동후는, 남한 정부가 만약 국시(國是)를 ‘반공’에서 ‘통일로 바꾸려 한다면, 반공 이념 아래서 희생당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을 수용한다.

동선과 동후 형제는 아버지의 영결식장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인민

군 중좌 김일권」이라는 위폐를 당당히 세운다. 통일 한국 시대에 이르면, 남북한의 영웅 모두가 추앙되는 세상이 될 것임을 이들 형제는 확신한다. 장례 행렬 뒤로, 비 그친 하늘에 무지개가 뜬다. 인민군 복장을 한 김일권 중좌가 말을 탄 채 위풍당당하게 무지개 위로 오르는 모습을 동선과 동후는 함께 목격한다.

분단시대 남북은, 대립적 정치 이념으로 인해 각기 자국 구성원 중 상당수를 희생자로 만들었다. 남한의 경우, ‘반공(反共)’ 이념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적 제한이 있었다. 공산주의 이념을 지지하거나 그 신봉자로 의심되는 자는 과중한 형사처벌 등 사회적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 저들과 전쟁을 겪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경험하였기에, 저들에 대한 적대감이 그 무엇보다 우선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반공’은 국시(國是)로 지정될 만큼 한 시대를 장악한 우리의 신념이었다.

그러나 이제 ‘통일한국 시대’ 진입을 앞두고, 반공 이념은 더 이상 옹호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을 ‘군사적 적(敵)’으로 인식하기에 앞서,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더 우선하기에 이른 것이다. 오히려 반공 이념을 옹호하는 자들은 통일을 반대하는 보수 세력으로 몰리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또 한 번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을 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신속히 자신의 사상을 전환해야 하나, 그 전환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닌 이유, 그리고 북한과 화해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할 당위성 등이 어떤 형태로든 구성원들에게 설명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공 이념을 포기하게 된 오늘날, 그 가치관의 혼란을 줄이고 새로운 이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공 이념이 횡행하던 시절

그 때문에 희생당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당시 반공 이념의 희생자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고립되었던 사람들에게,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음을 주지시키고 ‘당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작품에서는, 반공이념하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도태되어야 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대 새로운 이념 도입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들을 점검하며, 분단 1세대와 2세대가 가지고 있던 이념적 갈등을 오늘의 시각으로 재해석한다.

아울러 이 작품에서는 우리 시대 반공이념 수호 과정의 정당성을 재평가하고, 이념 보호의 명분 아래 국가 권력의 횡포에 시달린 당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그 구성원 보호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도 진지하게 제기된다. 예컨대 납북당했다 귀환한 어부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국가가 그 구성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놓고 그 책임을 오히려 구성원한테 떠넘기고 있는 셈 아니냐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반공 이념에서 통일 이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백으로 남은 우리 시대의 가치관과 그 혼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시대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날개옷을 잃어버린 북녘나그네들

반복해 말하지만, 청호동은 실향민들로 구성된 마을이고, 속초항은 그 실향민들의 생업 터전이다. 청호동에 머물면 망향의 한을 체험할 수 있고, 속초항에 가면 실향의 아픔을 목격할 수 있다. 이들은 기실,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들이고, 이를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민주화로 가는 과도기의 난민’들이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때, 다시 말해 역사와 국토가 단절로부터 벗어나 서로가 소통을 새로이 시작하는 때에 이

르러서야 이 나라 이 시대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고, 이를 실향민들의 고통도 소멸될 것이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분단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당했던 ‘실향 1 세대’들은 그것을 보상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대부분 숨을 거두었다. 이제 유일한 위안은, 이 땅에 남은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민족과 역사 앞에 증언하여 자손만대 그 원혼을 달래주는 것뿐이다. 다행히 이반을 비롯한 몇몇 극작가들이 그 시절의 실상을 상세히 그려 극(劇)작품에 새겨놓았으니, 우리로서는 소중하게 여겨야 할 문화콘텐츠다. 실향민들은 한평생을 청호동에 머물며 속초항을 맴돌았지만, 여전히 이곳은 객지였을 뿐, 기어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애썼다. 그래서 실향민의 다른 명칭은 ‘북녘나그네’이다. 이반의 작품에서 확인했듯, 고향 땅에 묻어주어야 한다며 아내의 시신을 20년간이나 다락에 보관해 둔 이가 있는가 하면, 곧 고향에 돌아갈 터인데 왜 새집을 지어야 하느냐며 한사코 판잣집에 기거한 이도 있다. 고향 땅을 밟고자 납북을 가장해 자진 월북하기도 하고, 경계 근무 중 휴전선을 넘어 고향으로 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화해를 논하며 통일을 기원했다.

아주 오랜 옛날, 한 무리의 선녀들이 이 땅에 목욕하러 잠시 내려왔다가, 그중 한 선녀가 날개옷을 잃어 버려 하늘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 옷은 나무꾼이 감추었었다.

이 시대 우리의 ‘아바이’들도 잠시 청호동과 속초항에 머물며 고향을 무척이나 그리워했지만 결국 돌아가지 못했다. 대체 ‘아바이’들의 날개옷은 누가 감추었을까. 이반을 비롯한 몇몇 속초 출신 작가들은 ‘나무꾼의 실체’를 밝혀 하루빨리 ‘아바이’들에게 날개옷을 되돌려 주자고 목쉰 응변가가 되어 저자거리에서 외쳐왔다. 북녘나그네들에게 끝내 되돌려주지 못한 날개옷을 이제 우리라도 챙겨야 하지 않겠는가.



씽•오닐•이반의 바다

김 한

길수 날씨두 잠잠한데 별 걱정 맙세. 꿈이 나쁘다구 바다에 아이 나가구 기분이 좋잖다구 가뭄에 배를 띄우지 않으면 바다엔 뉘기 나가겠소. 궂으나 좋으나 꾀를 부려서는 아이되오. 당신 두 이전 뱃사람이 다 된 줄 알았드니 아직 멀었구만. 그 까짓 꿈을 가지고 그러면 못쓰오.

젊은 며느리 쌩가매는 왜, “바닷사람은 괴기(고기)가 많이 잡히건 그렇지 않건 바다에 나가야 되는지”를 아직 이해할 수 없다. 노파는 말한다. “괴기보다 중요한 것, 그걸 알아야 바닷사람이 되는거다.”

바다. 유진오닐(Eugene o'Neil)이 그린 안나 카레니나의 바다도, 씽 (J. M. Synge)이 목격했던 애란섬을 둘러싼 바다도, 작가 이반이 살 아냈던 한국 동해안의 바다도 하나로 통한다. 바다는 죽은 것이 아니

다. 그것은 삶의 근거로서, 생명을 먹이고 일으키는가 하면, 생명을 거두어 가고, 인간을 좌절의 극에까지 끌고 가 모든 것을 죽이고는 이제까지와 다른 생명으로 부활시킨다.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이 극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다’다. 그리고 작가는 바다를 안다. 그는 실로 ‘바닷 사람’의 아들인지 모른다.

작가 이반의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을 대면했을 때 가슴에 와닿던 쉬임 없는 호흡으로 인간을 휩싸는 저 살아 있는 바다의 숨소리 주던 감동과 힘을 잊을 수가 없다. 어느 평론가가 그의 모노드라마 「황무지」에 대하여 “흔이 깃든 이 작품을 대했을 때, 그것은 쓰레기통에서 한 송이 장미를 주운 기쁨이었다”고 고백하던 말을 기억한다.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의 아내였고 어머니였던, 바다를 아는 한 여인을 바다는 인도한다. 인간의 모든 상대성과 허무성을 초월한 진정한 자유애로.

“거기서-바다에서 살아야 된다”고 외치며 마지막 아들의 시신을 바다로 내보내는 노파는 바닷속에서 살고 있기에 아들의 죽음을 죽음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바다에서-‘아바이랑’·‘아부지랑’ 모두 함께 살아왔고, 살아갈 것이다.

아일랜드 작가 씽의 「The Riders to the sea」(바다로 가는 기사들)에서 주인공인 노파 모리야는 마지막 남은 아들의 시신이 들어오는 날, 이제 더 이상 바다가 그녀에게서 ‘뺏어갈 것이 없음’을 느끼기에 체념을 넘어선 평화를 체험한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막내아들의 시신에 성수를 뿌리며, 신(神) 앞

에 무릎 끓고 기도 올리는 것으로 이 극은 끝나고 있다.

동해바다가 마지막 아들의 목숨을 앗아가던 날, 동해안의 한 어촌의 한 노파는 피가 뛰고, 가슴에 힘이 솟구침을 이상하게 체험하며 외쳤다. “그래 가자!”고. 그것은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곡과 눈물조차 거두어진 탈진과 체념의 극한 너머로, 자아포기와 함께 울던 저 애란 섬의 노파 모리야의 평화의 체험과는 다르다.

이 동해안 어촌의 이름 없는 노파는, 어쩌면 싸르뜨르가 말한 “고난의 뒤안 너머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삶”을 이미 살아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바닷물이 똑똑 떨어지는 아들의 시신이 마를 새라, 바다로 보낼 것을 재촉한다. 여긴엔 성수를 뿐이고, 성호를 긋고, 기도를 올리는 의식이 구태여 요구되지 않는다. 어쩌면 神과도 통하는 이 바다를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선택했고, 그 속에서 살기를 결단했기에, 아니 이미 그 바다를 살아오고 있었기에, 굳이 바다로 나가 죽은 아들을 위해 올릴 예배의식은 필요치 않다.

바다로 나가 빠져 죽은 아들 마이클의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못했음을 비난하며, 그의 시신이 언젠가 들어오기를 고대하며, 그날을 위해 물에 ‘깊은 무덤(Deep Grave)’을 만들어 줄 마지막 남자로서, 집 안에 남아 있어 주기를 간청하며 바다로 나가는 막내아들 바틀리의 발길을 만류하던 모리야. 꿈자리가 사나워 남편의 발길을 만류하고자 하던 쌍가매를 나무라며, 막내아들 길수의 바다로 나가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동해안의 노파.

이 마지막 아들이 시체로 들어왔을 때 ‘바닷사람’의 시체를 물으로 들여온 어부들을 호통치며, ‘거기서’ 살아야 하는 저 바다로 서둘러 내보내는 그녀.

바다와 더불어 사는 삶. 그녀에겐 이 하루하루가 다름 아닌 예배였다. 바다는, 바로 생명의 품이었고 신의 품이었으므로 여기에 신 앞에 바칠 예배의식이 따로 필요 없음은 물론이다.

여기에서 저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극작가 쟁의 최대작으로 꼽는 「The Riders to the sea」에서 한결음 나아간 놀라움이 있다.

결국, 결정론(Determinism)과 숙명론을 극복할 수 없었던 유진 오닐의 저 “좌절로 끝나는 에필로그”(Frustrating epilogue)를 기억하며, 오닐도 쟁도 보여줄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 한국 작가를 통해, 우리의 동해 바닷속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발견함은 가슴 뛰는 희열이 아닐 수 없다. 이제까지 너무 서구 희곡만을 짹 사랑해오지 않았나 하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청호동에 가본 적 있는지

인쇄 2017년 12월 21일

발행 2017년 12월 30일

지은이 이상국 / 김종현 / 이 반 / 최재도

발행인 김계남

편집인 김인섭

발행처 속초문화원

주소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155

전화 (033) 632-1231 팩스 (033) 632-1241

홈페이지 www.sokcho-culture.com

펴낸곳 디자인미디어

ISBN 979-11-959856-1-6

비매품

이 책은 속초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의 글이나 이미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와 속초시 문화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② 문화콘텐츠로 돌아본 속초 - 청호동

청호동에 가본 적 있는지..

비매품/무료



9 791195 985616
ISBN 979-11-959856-1-6